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 현 정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창 대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 현 정

박현정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u>김 동 일 (인)</u> 부위원장 <u>신 윤 정 (인)</u> 위 원 <u>박 승 민 (인)</u> 위 원 <u>최 한 나 (인)</u> 위 원 김 창 대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퍼비전 관계의 다양한 관점 중 실제관계 경험에 주목하여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 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 지의 실제관계 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고, 특별히 연구참여자의 실제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Giorgi(1985)의 기술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방법으로는 목적 표집을 활용하여 상담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서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상담관련 전공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최근 2년 이내에 상담 수퍼비전을 약 10회 이상 경험한 수퍼바이지 9명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였으며, 참여자별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을 1회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개별 심층면담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참여자 중 자발적인 희망자 6명을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추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분석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총 302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 7개의핵심구성요소와 28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를 도출된 핵심구성요소의 내용과 하위구성요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은 수퍼비전 과정에서 실제관계 경험이 잘 일어나게 한 맥락이자 실제관계를 위한 준비로서 수퍼비전 동안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서로에 대해 갖는 관심과 궁금함이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일상과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수퍼바이지는 그런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점점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수퍼비전이 진행되면서 수퍼바이지들도 점점 수퍼바이저가 궁금해지고,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을 경험한다.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존중〉도 수퍼비전 과정에서 실제관계 경험이 잘 일어나게 한 맥락이자 실제관계를 위한 준비로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가 일관되게 보인 인간적 태도이다. 수퍼바이지가 상처받지않게 살피며 가르쳐주려는 수퍼바이저의 모습에서 자신을 한 사람으로서 아낀다는 느낌을 경험하며, 때로는 보호받고 돌봄받는 느낌을 받는다.

〈평가에서 점점 자유로워짐〉은 실제관계 경험의 핵심 체험 중 하나로서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믿어주고, 상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음을 달래주며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경험하며 평가의 시선에서 점차 벗어나게된다. 수퍼바이지는 점점 더 수퍼바이저를 평가자로만 보지 않게 되고자신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된다.

〈배우기 위해 용기 있게 나를 드러냄〉은 실제관계 경험의 또 다른 핵심 체험 중 하나로, 수퍼바이지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경험이다. 수퍼바이지의 더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봄〉은 실제관계 경험이 자신의 상담을 바라보게 되는데 적용이 된 것으로 수퍼바이지가 상담에서 자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과정이다. 수퍼바이지의 특성을 존중하는 수 퍼바이저의 모습에서 수퍼바이지는 점차 상담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감정 과 마음에 신뢰를 갖게 된다.

〈실제관계가 상담관계로 전이〉는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 후 그경험을 내담자와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다. 수퍼바이지는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통해 힘들었던 내담자를 다시 마음에 품고 마주하게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담에 임하게되고, 수퍼바이저와 함께 한 실제관계 체험을 내담자와도 함께 하게 된다.

〈상담사로서 나의 확장〉은 실제관계 경험 후 수퍼바이지가 경험한 상 담사로서의 변화이다. 수퍼바이지는 자신의 상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 게 되었으며, 상담이라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을 활용하여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상담 수 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바이저의 가르침에 대한 진심과 수퍼바이지의 배우려는 용기와의 만남으로, 그 안에서 가장 필요 하고 적절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며, 더 나아가 수퍼바이저와의 실제 관계 경험을 상담에서 내담자와 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수퍼비전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깊이있게 탐색하고 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 수퍼비전 장면에서 실제관계 형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밝히며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실제수퍼비전 장면에서 실제관계를 형성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추후 수퍼바이저 교육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담에서 실제관계는 강한 치료적 요인으로서 알려져 있으나(Hayes, 1998), 상담사 교육이나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이수퍼바이지의 상담에서 내담자와의 실제관계를 촉진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교육에 대한 고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상담사 교육이 더욱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수퍼비전, 수퍼바이지, 수퍼비전 관계, 실제관계, 현상학적 연구

학 번: 2018-30124

목 차

I .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Ⅱ. 이론적 배경	9
1. 수퍼비전 관계	9
1) 상담 수퍼비전과 수퍼비전 관계	9
2)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고찰	0
3)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6
2. 실제관계 2	4
1) 실제관계 개념 2	4
2) 실제관계 선행연구 2	7
3)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실제관계 3	
3. 한국에서의 수퍼비전과 실제관계 3	5
w 41 7 31 31	
Ⅲ. 연구방법 3	9
1. 현상학적 연구방법3	9
2.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4	
3. 연구절차 4	
1) 연구준비 4	4
2) 연구참여자4	
3) 자료수집6	
4) 자료분석 6	
4. 연구의 타당도와 연구에 대한 평가 7	2

Ⅳ. 연구결과	76
1.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	76
2.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일반적 구조	111
1) 실제관계를 위한 준비	112
2) 실제관계 체험	113
3) 실제관계 적용	114
4) 실제관계 경험의 확장	116
V. 논의	110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실제관계의 개념적 특성	
2) 수퍼비전에서 나타나는 실제관계의 특성	
3) 실제관계 경험의 학습과 상담관계로의 확장	
4)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되는 실제관계	
2. 상담 수퍼비전에서의 시사점	133
VI. 요약 및 결론	136
1. 요약	
1. 요약	
3. 연구의 의의	
4.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43
참고문헌	147
부록	
〈부록 1〉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	
〈부록 2〉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부록 3〉면담질문지	
Abstract	178

표 목 차

52	•••••	•••••	••••••	정보	참여자	연극	1>	く丑
53	•••••	정보	<u></u> 수퍼비전	험을 한	관계 경	실제	2>	く丑
71	•••••	•••••		분의 예	단위 구	의미	3>	く丑
71	•••••	•••••	전환의 예	어로의 🧵	학적 언	심리	4>	く丑
73	실행 내용	1981)과 실	& Lincoln,	(Guba &	도 기준	타당	5>	〈丑
77	<u> </u>	구성요소	관계 경험의	1 실제관	바이지의	수피	6>	く丑

그림 목차

[그림 1]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 1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사 교육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수퍼비전이다(Bernard & Goodyear, 2009). 수퍼비전이란 숙련된 상담사가 수퍼바이저로서 초보혹은 경험이 적은 상담사인 수퍼바이지에게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적절한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배우도록 조력하는 전문적인 상담사 교육 방법이다(Bernard & Goodyear, 2009; Cashwell & Dooley, 2001).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지의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발달과 인간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아니라 내담자의 복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꾸준히 강조되어 오고 있다(Bernard & Goodyear, 2009).

수퍼비전이 상담사 교육에 중요하게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수퍼비전 성과를 최대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수퍼비전 성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특히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비전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왔다(Bernard & Goodyear, 2003; Heppener & Roehlke, 1984). 만족스러운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을 감소시키며(Hutt, Scott, & King, 1983)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Efstation et al., 1990), 자기개방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손 승희, 2005; Bernard & Goodyear, 2009). 더 나아가 수퍼바이지의 실제 상담과정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두경희 외, 2008; 손승희, 2005; 이승은, 정남운, 2003; Ladany et al., 1999; Patton & Kivlighan, 1997). 반면, 부정적인 수퍼비전 관계는 역할갈등과 같은 모호함을 경험하게 하며, 수퍼비전 만족도가 저하되고 수퍼바이지의 학습동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손은정 외, 2006; Ladany & Friedlander, 1995). 이처럼 많은 연구가 수퍼비전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퍼비전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은 아직도

연구마다 상이한 편이다(Borders & Brown, 2006; Ellis & Ladany, 1997).

전통적으로 수퍼비전 관계는 상담자-내담자로 이루어진 상담관계에 빗대어 설명되어왔다. 특별히 상담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관계, 즉 전이-역전이와 작업동맹은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언급되어오고 있다. 수퍼비전 관계에서 전이-역전이는 주로수퍼바이지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역전이를 어떻게 다루고 훈련해야 할지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져 왔다(Gait & Haleswood, 2019; Hayes et al., 2011; Ladany & Bradley, 2013; Skovholt & Rønnestad, 2003). 그러나 전이-역전이는 개념 자체가 정신분석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으며, 경험적연구에서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최한나, 2010)가 있어, 수퍼비전관계를 이해하는 다른 개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왔다.

전이-역전이 이외에 수퍼비전 관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개념은 작업동맹이다. 상담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작업동 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주목을 받아왔다.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상 담관계의 작업동맹모델(Bordin, 1983)에 기반하여 '수퍼바이저와 수퍼바 이지의 변화를 위한 협력관계'로 정의되어왔다(Knight, Bordin(1983)이 작업동맹 개념을 제시한 후, 상담관계 작업동맹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퍼비전 작업동맹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어 수퍼비전 관계 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최한나, 김창대, 2008). 그러나 수퍼비전 관계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는 작업동맹을 중 시한 나머지 '수퍼비전 관계'와 '수퍼비전 작업동맹'을 잘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상담관계에서는 전이-역전이나 작업동맹으로 포착하지 못 하는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퍼비전 맥락에서는 '수퍼비전 작업동맹'이 '수퍼비전 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 다.

수퍼비전 관계가 상담관계의 연장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지만, Greenson(1967)이 확립한 상담관계의 3요소(전이-역전이, 작업동맹, 실제관계)중 하나로 알려진 실제관계 맥락에서는 수퍼비전 관계를 탐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관계는 Freud(1957)가 상담관계에서 '긍정적

유대'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했으며, 초기 정신분석 문헌에서는 전이가 없는 상태로 이해 되어왔다(최한나, 2010). 실제관계는 상담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존재하며 상담사와 내담자 간에 형성되는 개인적인 유대를 의미한다.

실제관계는 진정성과 실체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진정성은 "가짜가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일 수 있으며, 지금-여기에서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실체성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인식하며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elso, 2002). Gelso(2004)는 실제관계의 두 요인을 통합하여 "두 사람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진실하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관계"로 실제관계를 정의하였다.즉, 실제관계는 모든 인간의 관계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목적에 앞서 관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상호 연결감이라고 할 수 있다.이 연결감은 진실한 자기를 드러낸다는 의미의 '진정성'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의미의 '실체성'의 근간이 된다. 실제관계는 오랫동안지속적으로 개념화되고 구체화 되었으며, Gelso 등(2005)에 의해 실제관계 척도가 개발되고 경험적 연구가 활발해지며 상담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

상담관계의 전이-역전이와 작업동맹은 오랫동안 수퍼비전 관계에 빗대어 연구되었으나, 실제관계가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담에서의 실제관계의 측면을 수퍼비전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Watkins, 2011).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상담관계에서 실제관계는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관계에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전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lso, 2011). 즉,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

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수정, 2017). 수퍼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관계는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에게 부정적 감정이나 갈등을 느낄 때에 관계의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는 상담과 수퍼비전 자체의 병렬과정 (parallel process)으로 인해 상담관계에서의 갈등적인 역동이 수퍼비전에 서 드러나거나, 수퍼비전 관계 자체에서의 전이 또는 역전이의 결과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Grant & Schofield, 2012; Mueller & Kell, 1972; Nelson & Friedlander, 2001).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부정적 감정을 개방하는 것은 수퍼바이저로부터 도움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상담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Hess, 1999; Milne & Oliver, 2000). 더 나아가 수퍼바이저는 수 퍼바이지의 상담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퍼바이지의 보고를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수퍼바이지의 진솔한 개방은 수퍼비전 성 과를 최대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 탕으로 보았을 때 실제관계에서 개인적 유대는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 를 신뢰하고, 개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따라서 실제관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는 작업동맹 형성의 근간으로서 작용할수 있다. 상담관계에서 실제관계는 작업동맹과 함께 많이 논의되어왔다. 실제관계와 작업동맹은 전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작업동맹은 상담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인 반면, 실제관계는 목적이 없는 조금 더 근본적인 개인적 관계로 각 개인간의 상호 연결감을 의미하고 상담관계 뿐 아니라 모든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elso & Hayes, 1998).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작업동맹과 실제관계는 상담관계와 유사하게 논의될 수 있다. 상담관계에 빗대어보면,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수퍼비전이라는 목적이 있는 특수한 관계인 반면, 실제관계는 목적이 초점이 아닌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상호 간의 인간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되므로(Gelso, 2011), 실제관계는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작업동맹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실제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작업동맹의 형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수퍼비전 관계에서 작업동맹은 수퍼비전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요소로 밝혀져오고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작업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수퍼비전을 이끌어 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유대와 인간적 연결감으로서의 실제관계는 수직적 이고 위계적이라는 수퍼비전 관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다. 수퍼비전은 평가적 요소와 전문성 관리 기능과 같은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므로(소수연, 장성숙, 2011), 수직적이고 위계적 형태를 지 닌다.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수퍼바이저는 조력자인 동시에 수퍼바이지의 수행에 대한 평가자이며 전문성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조금 더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게 된다(Bernard & Goodyear, 2009). 반면, 수퍼바이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힘을 갖기 때문에 수퍼비전 에서 더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Quek & Storm, 2012). 수퍼바이지의 긴장과 불안은 수퍼비전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Ladany & Friedlander, 1995),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불안과 긴장 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퍼비전 과정 안에서 수퍼바이지의 불 안과 긴장을 낮아졌을 때 비로소 강한 작업동맹이 형성되고 수퍼비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관계는 모든 관계에 근간이 되는 인간적 만남이므로 강한 실제관계는 수퍼바이지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수 퍼비전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강한 작업동맹 형성을 위한 좋 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수퍼비전에 서 실제관계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하지만 수퍼비전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실제관계와 유사한 측면들이 포착된다. 진정성은 수퍼바이저의 태도와 특성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이상적인 수퍼바이저는 높은 수준의 공감, 진실성, 존경, 유연성, 개방성을 보인다고 밝혀져 왔다(소수연, 장성숙, 2011; Carifio & Hess, 1987). 또한최근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진정성은 수퍼비전 만족도의54%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김혜련, 2021). 수퍼비전 과정에서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성장에전환점이 된 학습경험을 살펴본 장유진(2022)의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의 '진정성있는 관심과 존중,',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 등이 수퍼바이지의 전환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지의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진정성 그 자체가 연구되었기보다 주로 지지적이고 좋은 수퍼비전 관계 경험의 결과로 나타났다. 진정성 강화와 확장의 모습은 주로 수퍼바이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 이 증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Sexton & Whiston, 1994). 이는 수퍼비전 관계가 수직적 구조의 특성이 있으므로(소수연, 장성숙, 2011) 수퍼바이 저의 진정성이 수퍼바이지의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어 온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수퍼비전 관계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실제관계와 유사한 측면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측면들이 수퍼비전 관계와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실제관계의 진정성 측면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관계를 온전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당장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지만, 작업동맹과 같은 수퍼비전 관계의 다른 요소들과 온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여 수퍼비전 관계의 다른 요인들과 구분되는 지점들을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담 관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관계의 정의, 개 념, 하위요인, 척도 등을 수퍼비전 실제관계에 활용할 것이 제안되고 있 다(Watkins, 2011, 2012, 2015). 하지만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인 데에 반해 수퍼비전은 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최한나, 2007) 상담관계에 대한 이론을 수퍼비전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퍼비전 관계의 일부 측면만 반영한다는 한계를 갖는다(Beinart, 2004; Bernard & Goodyear, 2019).

현재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경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모호하고 막연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퍼비전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실제관계의 진정성과 실체성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 자체 독립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경험의 본질에 대한 우선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 자체를 조금 더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에서도 소수의 사례에 대한 고유한 경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다(이미정, 2014). 현재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므로,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현상에 대한 해석보다는 심층적인 내적 경험 자체의 기술에 중점을 둔 Giorgi(1985)의 기술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와 경험한 실제관계 경험을 면밀히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밝힐 수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며, 실제 수퍼비전 장면에서 실제관계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경험한 실제관계 경험을 살펴보고 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따 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퍼비전 관계

1) 상담 수퍼비전과 수퍼비전 관계

수퍼비전은 본래 Super(위에서)와 Vision(내려본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합성어로 임상 장면에서는 '위에서 내려다 본다, 살핀다'는 의미로 개념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켜보는 감독자의 일'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유영권 외, 2019). 심리상담 분야에서 수퍼비전은 1905년 Freud가 치료사의 훈련분석을 강조하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20년대가 지나 본격적으로 상담사 훈련과정의 요소로서 자리잡게 되었다(Kugler, 1995).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상담사 역할을 평가하고, 전문적인 상담사로서의 적절한 직업적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계현, 1992; 방기연, 2003; Gilbert & Evens, 2000; Holloway, 1995; Longanbill et al., 1982).

수퍼비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향상과 상담 역량을 촉진하고 수퍼바이지의 수행을 감독하여 내담자들이 보다 나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홍숙, 최한나, 2013; Goodyear & Bernard, 2009). 장기적으로는 수퍼바이지가 스스로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전문상담사로서의 정체감을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Skovholt & Rønnestad, 1992). 현재 상담학분야에서 수퍼비전은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상담사 훈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 방법이 되었으며(Goodyear & Bernard, 2009), 더 나아가, 상담사의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Holloway & Neufeldt, 1995).

수퍼비전이 상담사 교육에 중요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수퍼비전 성과를 최대화하는 방안들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수퍼비전 성과 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수퍼바이저의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소수연, 장성숙, 2011; Carifio & Hess, 1987; Watkins, 1995)와 전문적 역량(소수 연, 장성숙, 2011; Barnett et al., 2007),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에 대한 기대(홍지영, 2005; Gysbers & Johnston, 1965; Hogan, 1964; Swanson & O'Saben, 1993)와 발달 수준(송은화, 정남운, 2005; 신종임 외, 2004; Stoltenberg et al., 1998)등 이 있지만, 수퍼비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수퍼비전 관계이다(Bernard & Goodyear, 2003; Heppener & Roehlke, 1984).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퍼비전 관 계는 수퍼비전 성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져 오고 있으 며(DeRoma et al., 2007; Knight, 2014, Ladany et al., 2013), 수퍼바이지 의 상담 과정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강지연, 유성경, 2006; 두경희 외, 2008; Westefeld, 2009; Worthen & McNeill, 1996).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비전 성과 및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고찰

전통적으로 수퍼비전 관계는 상담자-내담자로 이루어진 상담 관계에 빗대어 설명되어왔다. 그런 전통의 맥락에서 상담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이-역전이와 작업동맹은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언급되어오고 있다. 수퍼비전 관계에서 전이-역전이는 주로 수퍼바이지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역전이를 어떻게 다루고 훈련해야 할지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져 왔다(Gait & Haleswood, 2019; Hayes et al., 2011, Ladany & Bradley, 2013; Skovholt & Rønnestad, 2003). 구체적으로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역전이 반응에 대해서 자각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소수연, 장성숙, 2011;

Hayes et al., 2011; Hayes et al., 2015; Hayes et al., 2018)과 상담관계가 수퍼비전에서 재현된다는 병렬과정 현상에 주목하여 수퍼비전에서 드러나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 역동을 활용하여 역전이를 다루는 방식이 있다(Caligor, 1981; Doehrman, 1976; Perlman, 1996). 특별히 병렬과정의 활용은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보고에만 의지하여 사례를 볼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병렬과정에 대해서는 개념적 합의가 필요하며, 유용성 입증을 위한 실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해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윤성근, 양은주, 2022). 전이-역전이가 수퍼비전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이-역전이는 개념 자체가 정신분석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으며, 경험적 연구에서 측정이용이하지 않다는 한계(최한나, 2010)가 있어, 수퍼비전 관계를 이해하는 다른 개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왔다.

전이-역전이 이외에 수퍼비전 관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개념은 작업동맹이다.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상담관계의 작업동맹모델(Bordin, 1983)에 기반하여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변화를 위한 협력관계'로 정의되어왔다(Knight, 2014). Bordin(1983)이 작업동맹 개념을 제시한후, 상담관계 작업동맹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퍼비전 작업동맹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어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최한나, 김창대, 2008).

수퍼비전 작업동맹과 수퍼비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퍼비전 작업동맹이 높을수록 수퍼바이지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으 며(천혜숙, 유미숙 2010; Efstation et al., 1990), 수퍼비전 만족도도 수퍼 비전 작업동맹에 비례하여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화 외, 2013; Ladany et al., 1999). 더 나아가 수퍼비전에서의 높은 작업동맹은 수퍼바이지의 상담에서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높이고, 내담자의 어려움 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혀졌다(손승희, 2005; 이승은, 정남운, 2003; Ladany et al., 1999; Patton & Kivlighan, 1997). 이처럼 현 재까지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성공적인 수퍼비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 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이정민 외, 2021; Bordin, 1983; Efstation et al., 1990; Ekstein & Wallerstein, 1972).

수퍼비전 관계가 작업동맹으로 개념화되어 사용되면서 수퍼비전 관계 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수퍼비전 관계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수퍼비전 관계'와 '수퍼비전 작업동맹'을 구 분하지 않고 있어, 둘의 구분은 여전히 모호한 편이다. 이 외에도 작업 동맹으로 수퍼비전 관계를 모두 이해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퍼비전 작업동맹 개념이 시작된 과정을 살펴보 면, 그 뿌리가 상담관계에 있으며, 수퍼비전 이론이나 모형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다. 상담에서의 내담자와 상담사의 관계에 용어만 수퍼바이저 와 수퍼바이지로 변경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퍼비전 작업동맹 개념이 '수퍼비전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작업동맹 척도들은 수퍼비전 관계를 온전히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작업동맹 척도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를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에 대입 시켜 관련 구인을 설정하여 개발되 었기 때문에 수퍼비전과 상담의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측정의 정확도를 신뢰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Bahrick(1989)의 작업 동맹 척도는 Bordin(1983)이 제안한 상담 작업동맹의 개념을 바탕으로 Horvath와 Greenberg(1989)가 상담사-내담자용으로 개발한 작업동맹 척 도를 Bahrick(1989)이 용어만 변경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수퍼비전 이 론이나 모형을 통해 개발된 척도는 아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에서 수퍼비전 작업동맹 척도를 사용 해왔다. 이로 인해 상담에서의 작업동맹과 수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은 혼용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척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관계적 인 측면들에 대해 간과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수퍼비전 작업동맹 이외의 다양한 수퍼비전 관계의 특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수퍼비전은 전문성 성장을 위한 평가와 교육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동맹관계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Bernard & Goodyear, 2009). 또한, 수퍼비전 관계는 목표

를 위한 동맹관계나 평가라는 수직적 특성 이외에도, 상담이라는 분야에 함께 종사하는 동료로서 느끼는 유대와 수평적 관계의 특성도 지니는 등복합적이고 독특한 관계적 측면이 있다(오형경, 진미경, 2018; 최한나, 김창대, 2008; Aasheim, 2011). 이처럼 수퍼비전 관계는 작업동맹으로만이 아닌, 지지적 관계, 교육 및 자문의 관계, 전문 상담사로서 수퍼바이지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이해되어야한다는 주장들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Gonsalvez et al, 2017; Lehrman-Waterman & Ladany, 2001).

최근 들어, 선행연구의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보완하고 수퍼비전 관계의 다차원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Beinart(2004)은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수퍼바이지와의 면담을 통해서 직접 응답을 받아 수퍼비전 관계의 효율성을 이론에 기반하여 탐색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Palomd, Beinart와 Cooper(2010)가 수퍼비전 관계 척도(SRQ; Supervisory 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추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Cliff, Beinart와 Cooper(2016)에의해 보다 간편한 형태의 단축형 척도(S-SRQ; Short version of Supervisory Relationship Questionnaire)가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오형경과 진미경(2018)에 의해 번안 및 타당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척도를 활용하여 수퍼비전 관계를 이해하는 양적연구가 아닌,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수퍼비전 관계 맺음, 수퍼비전 관계 경험 등을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박보람, 2018; 박영현, 2022; 엄은숙, 2019; 최한나, 김창대, 2008).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독특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수퍼비전 전반이 대인관계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Inman et al., 2011). 더 나아가 수퍼비전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학습을 도모하는 중요한 재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유영권 외, 2019), 수 퍼비전 관계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론가, 상담사, 수퍼 바이저들이 수퍼비전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퍼바이저-수퍼바이 지 관계이며, 수퍼비전 관계가 수퍼바이지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유영권 외, 2019; Ekstein & Wallerstein, 1958; Gazzola & Teiault, 2007; Holloway et al., 1989). 이처럼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비전의 다른 모든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요인 중 하나이며(Holloway, 1995), 좋은 수퍼비전 관계는 성공적인수퍼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더 나아가 수퍼바이지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중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Gazzola & Teiault, 2007; Sexton & Whiston, 1994).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퍼비전 성과를 높이는 '좋은'수퍼비전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좋은 수퍼비전 관계란 진솔하고, 따뜻하며, 수용, 존중,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져 왔다(Hutt et al., 1983; Worthen & McNeill, 1996). 국내에서 최한나와 김창대(2008)가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지의 인식차원을 살펴보았는데, 대인관계-교육 초점, 수직-수평 초점, 자기성찰-내담자 초점 등 3가지 차원이 나타났다. 이중 수퍼바이지의 관점에서 좋은 수퍼비전 관계의 특성은 대인관계-교육 초점이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측면에는 수퍼바이지의 신뢰와 배려, 존중, 지지와 공감 등이 포함되며, 교육적 측면에는 수퍼바이지의 장점을 인정하고, 수퍼바이지가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특성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해 상담경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직-수평 차원과 자기성찰-내담자 초점 차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퍼비전 경험을 긍정적혹은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나타났다(김현지, 2020). 좋은 수퍼비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한 Worthen과 McNeill(1996)에 따르면, 수퍼바이지가 수퍼비전 관계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에게 지지와 수용을 받았을 때 자존감이 증진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수퍼비전 경험의 핵심 중 하나가 지지적 관계 경험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수퍼바이저의 지지와 격려를 경험하였을 때 수퍼바이지의 내 담자와의 관계나,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자세에 연속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승은, 정남운, 2003). 최근 진행된 엄은숙(2019)의 연구에서도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상호 교감하는 수평적 관계를 체험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으며, 이것이 추후 수퍼바이지의 상담에서 모델링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수퍼비전을 부정적으로 경험한 가장 큰 원인은 상호성과 신뢰가부족한 수퍼비전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화 외, 2013; 홍지영, 2008; Bang & Goodyear, 2014; Ramos-Sanchez et al., 2002).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부정적인 경험과 변화과정을 연구한 조윤진 등(2014)의 연구에서, 부정적 경험의 중심 현상이 '관계의 벽'에 부딪힌 느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벽에 부딪힌 느낌에는 소통의 어려움과 존중받지못하고 내쳐지는 느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홍영식과 한재희(2012)의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경우, 수퍼비전 과정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비개방을 다룬 손승희(2005)의 연구에서도 비개방을 하게 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수퍼바이저와 관계의갈등이 두려워서'로 밝혀졌다. 앞서 이야기한 수퍼바이저 스타일에서도수퍼바이저가 관계 지향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수퍼바이지의 만족도에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왕은자, 2001; 이승은, 정남운, 2013; 홍지영, 2005).

이 밖에도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신뢰성, 매력과 같은 수퍼바이저의 특성들도 수퍼비전 관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Allen et al., 1986; Carey et al., 1988; Holloway et al., 1989). 특히 신뢰성은 수퍼비전 관계의 질과 가장 큰 관계가 있으며, 수퍼바이지의 성취와도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다(Heppner & Handley, 1981). 수퍼비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이 높은데, 수퍼바이저에 대한 신뢰는 불안을 조절하도록 하여 수퍼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rmeniox, 2000). 반면 수퍼바이저의

비공감적이며 무시하는 태도와 힘겨루기를 조장하는 태도 등은 수퍼비전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수퍼바이지의 상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y et al., 2001; Nelson & Friedlander, 2001). 이는 앞서 수퍼비전 성과에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수퍼바이저의 특성 (Allen et al., 1986; Carifio et al., 1987)이 수퍼비전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수퍼비전 관계를 매개로 하여 수퍼비전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수퍼비전 관계의 질을 어떻게 조절하고 형성하느냐가 실제 수퍼비전 성과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비전 과정과 성과 및 만족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만족스러운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을 감소하며(Hutt et al., 1983)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Efstation et al., 1990), 자기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손승희, 2005; Bernard & Goodyear, 2009). 반면, 부정적인 수퍼비전 관계는 역할 갈등과 같은 모호함을 경험하게 하며, 수퍼비전 만족도가 저하되고 수퍼바이지의 학습동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손은정외, 2006; Ladany & Friedlander, 1995).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바이지의수퍼비전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강지연, 유성경, 2006; 홍지영, 2005; Ladany et al., 1999), 더 나아가 수퍼바이지의 실제 상담과정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두경희 외, 2008; 손승희, 2005; 이승은, 정남운, 2003; Ladany et al., 1999; Patton & Kivlighan, 1997).

이상의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바이지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자 수퍼비전 성과를 이끌어내는 선행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3)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일찍부터 상담관계는 작업동맹과 전이-역전이뿐 아니라 실제관계도 중

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Greenson, 1967), 수퍼비전 관계에서는 주로 작업동맹과 전이-역전이에 대해서만 논의되어왔으며 실제관계 개념은 오랫동안 수퍼비전 관계에 적용되지 않았다(Watkins, 2011).

이에 대해 Watkins(2011, 2012)는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실제관계의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양한 수퍼비전 장면에서 실제관계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나, 가식이나가짜가 아닌 진솔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과 같은 장면을 예로 들며 실제관계를 설명했다. 또한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성장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수퍼비전이 종결되는 것에 진심으로슬퍼하는 등의 모습들을 실제관계의 진정성의 한 측면으로 언급하였다.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장면들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Watkins(2011, 2012)의 주장에 더불어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상담관계에서 실제관계는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관계에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전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lso, 2011). 즉,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탐색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수정, 2017). 수퍼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관계는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에게 부정적 감정이나갈등을 느낄 때에 관계의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는 상담과 수퍼비전 자체의 병렬과정 (parallel process)으로 인해 상담관계에서의 갈등적인 역동이 수퍼비전에서 드러나거나, 수퍼비전 관계 자체에서의 전이 또는 역전이의 결과로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Grant & Schofield, 2012; Mueller & Kell,

1972; Nelson & Friedlander, 2001).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부정적 감정을 개방하는 것은 수퍼바이저로부터 도움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상담자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Hess, 1999; Milne & Oliver, 2000). 더 나아가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의 상담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퍼바이지의 보고를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수퍼바이지의 진솔한 개방은 수퍼비전 성과를 최대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관계에서 개인적 유대는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를 신뢰하고, 개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는 작업동맹 형성의 근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상담관계에서 실제관계는 작업동맹과 함께 많이 논의되어왔다. 실제관계와 작업동맹은 전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작업동맹은 상담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인 반 면, 실제관계는 목적이 없는 조금 더 근본적인 개인적 관계로 각 개인간 의 상호 연결감을 의미하고 상담관계 뿐 아니라 모든 인간 사이에서 나 타나는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elso, Hayes, 1998). 수퍼비전 관계 에서도 작업동맹과 실제관계는 상담관계와 유사하게 논의될 수 있다. 상 담관계에 빗대어보면, 수퍼비전 작업동맹은 수퍼비전이라는 목적이 있는 특수한 관계인 반면, 실제관계는 목적이 초점이 아닌 수퍼바이저와 수퍼 바이지의 상호 간의 인간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모 든 관계의 근간이 되므로(Gelso, 2011), 실제관계는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작업동맹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실제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작업동맹의 형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수 퍼비전 관계에서 작업동맹은 수퍼비전의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져오고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작업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수퍼비 전을 이끌어 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유대와 인간적 연결감으로서의 실제관계는 수직적

이고 위계적이라는 수퍼비전 관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수퍼비전은 평가적 요소와 전문성 관리 기능과 같은 교육적기능을 포함하므로(소수연, 장성숙, 2011), 수직적이고 위계적 형태를 지닌다.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수퍼바이저는 조력자인 동시에 수퍼바이지의수행에 대한 평가자이며 전문성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게 된다(Bernard & Goodyear, 2009). 반면, 수퍼바이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힘을 갖기 때문에 수퍼비전에서 더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Quek & Storm, 2012).

수퍼바이지의 긴장과 불안은 수퍼비전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Ladany & Friedlander, 1995),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불안과 긴장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퍼비전 과정 안에서 수퍼바이지의 불안과 긴장을 낮아졌을 때 비로소 강한 작업동맹이 형성되고 수퍼비전이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관계는 모든 관계에 근간이 되는인간적 만남임으로 강한 실제관계는 수퍼바이지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수퍼비전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강한 작업동맹 형성을 위한 좋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하지만 수퍼비전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실제관계와 유사한 측면들이 포착된다. 선행연구에서 수퍼바이지들은 존중과 이해가 있으며 수용 받는 관계를 '좋은', '긍정적인' 수퍼비전 관계로 인식하였다(박보람, 2018; 소수연, 장성숙, 2011; 엄은숙, 2019; 유성경 외, 2004). 이러한 결과는 실제관계의 '가짜가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일 수 있는'진정성(Gelso, 2002)과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인식하며 경험하는'실체성(Gelso, 2002)이 내포되어 있다. 수퍼바이저가 있는 그대로 수퍼바이지들을 인식하려는 모습은실체성의 한 측면으로 여겨진다. 수퍼바이저가 실체성을 가지고 수퍼바이지에게 수용과 공감의 경험을 제공하고, 수퍼바이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설 수 있는 진정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 수퍼바이지들은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좋은 수퍼비전 관계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수퍼비전 실제관계는 인간중심 수퍼비전 모델에서 비롯된 촉진적 관계모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촉진적 관계모델은 인간중심 접근의 세가지 치료적 조건인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긍정적수퍼비전 관계의 구성요소로 보았다(Rogers, 1957). 인간 중심 수퍼비전의 창시자인 Rogers 등(2011)에 의하면 의미있는 학습의 촉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사이의 인간관계속에 존재하는 태도적 자질에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실제관계의 진정성과 유사한 수퍼바이저의 진솔성은학습 촉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진솔성에 더해 정확한공감적이해가 동반되는 환경에서 수퍼바이지의 자율적인 학습과 성장이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관계 하위요인 중 하나인 진정성은 수퍼비전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직정성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이상적 수퍼바이저의 특성을 밝혀낸 연구(Carifio & Hess, 1987)에서 수퍼바이저는 높은 수준의 공감, 진실성, 존경, 유연성, 개방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상적인수퍼바이저는 공감과 존중하는 태도, 개방성, 진실성 융통성, 성실성과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소수연, 장성숙, 2011). 최근 김혜련(2021)의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진정성은 수퍼비전 만족도의 54%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수퍼바이저의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퍼비전 과정에서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성장에 전환점이 된 학습경험을 살펴본 장유진(2022)의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의 '진정성 있는관심과 존중,',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 등이 수퍼바이지의 전환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지의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진정성 그 자체가 연구되었기보다 주로 지지적이고 좋은 수퍼비전 관계 경험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증진(Sexton & Whiston, 1994)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 퍼비전은 평가라는 속성을 지니며, 수퍼비전 관계는 수직적 구조의 특성 이 있으므로(소수연, 장성숙, 2011) 수퍼바이저의 진정성이 수퍼바이지의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수퍼비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연구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도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의 의사소통 양상으로, 이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을 개방하여 털어놓고 공유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Barnhart & Barnhart, 1992). 선행연구에서 자기개방은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가 상호존중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 내담자, 상담과수퍼비전 과정, 상담관계 및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경험등을 나누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박영현, 2022).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진실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와 신뢰를 전제로 한 자기개방은 수퍼비전 효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ss, 1999; Milne & Oliver, 2000). Gelso(2011)는 실제관계의 진정성은 내면 경험에 대한 인식에 더해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수퍼비전에서의 자기개방은 실제관계의 진정성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관계의 하위요인 중 실체성은 자신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전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Gelso, 2011). 수퍼비전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실체성을 살펴본 경우는 거의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이는 수퍼비전이 교육적 학습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교사-학생의 관계에서 그 역할에 서로 충실한 관계 그 자체로서의 실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상담사-내담자의 관계에서 실체성은 궁극적으로 전이로 덮어 씌워진 관계가 아닌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현재까지수퍼비전 관계의 실체성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만남의 형태가 어떠해야 실체성에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선행연구에서 수퍼비전 관계의 실체성을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퍼비전 관계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실제

관계와 유사한 측면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들이 수퍼비전 관계와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실제관계의 진정성 측면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체성과관련된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관계를 온전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당장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지만, 작업동맹과 같은 수퍼비전 관계의 다른 요소들과 온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여 수퍼비전 관계의 다른 요인들과 구분되는 지점들을 조금 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Watkins(2011)는 그동안 수퍼비전 관계에서 실제관계가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수퍼비전에서 드러나는 실제관계 장면들이 너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작업동맹과 같은 다른 수퍼비전 관계 요인에 일부로 흡수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수퍼비전 과정을 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고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전문적 학습 과정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성때문이다(Whitman et al., 2001). 셋째, 수퍼비전 관계를 '상담에 대한 훈련'만을 강조한 교육적 · 사업적 관계로만 보아도 완전하다는 오래된 믿음(Alonso, 2000; Rodenhauser, 1996) 때문이다. 따라서 Watkins(2011)가 언급한 부분들을 주의하고,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적 측면을들 참고하여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수퍼비전 관련 선행연구에서 실제관제 측면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Sant와 Milton(2015)은 11명의 수퍼바이지와의 면담을 통해서 정신분석에 기반한 수퍼비전에서의 관계 경험에 대해 주제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수퍼바이지들이 인식한 수퍼바이저들의 사소하지만, 인간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심의 행동을 실제관계로 분류했다. 또한 수퍼바이지들이 실제관계를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순간들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Vaštakė 등(2021)이 실존주의 이론 기반 수퍼비전에서의 수

퍼바이지들의 성찰과정의 변화를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을 하는 동안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신뢰와 지지를 보였을 때 성찰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퍼비전의 실제관계의 한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자체를 탐색하거나, 실제관계를 변인으로 두고 수퍼비전 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변인들과 의 관계를 살피는 등의 연구는 아니다. 위 연구들은 수퍼비전 연구에서 실제관계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충분히 밝히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실제 관계 자체를 탐색하거나 주요 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담관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관계의 정의, 개념, 하위요인, 척도 등을 수퍼비전 실제관계에 활용할 것에 대한 제안이제기되고 있다(Watkins, 2011, 2012, 2015). 하지만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인 데에 반해 수퍼비전은 상담사의 전문성을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최한나, 2007) 상담관계에 대한 이론을 수퍼비전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퍼비전 관계의 일부 측면만 반영한다는 한계를 갖는다(Beinart, 2004; Bernard & Goodyear, 2019).

현재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경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모호하고 막연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수퍼비전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실제관계의 진정성과 실체성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가 어떻게 체험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박현정과 김신애(2022)가 수퍼비전에서의 수퍼바이지들의 실제관

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3명이라는 소수 참여자의 경험만 반영되었다는 점, 실제관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면담이 이루어져 참여자들이 경험을 드러내는데 제한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의 한계점들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실제관계 경험 자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들이 실제관계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실제관계

1) 실제관계 개념

실제관계에서 '실제(real)'는 실제 그대로의(realistic) 현실이자 실제로 존재하는 것(reality)으로, 실제관계에서 '실제적'이라는 표현은 비현실적이고 왜곡되지 않고 부적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이와는 대조되는 실제적이고 현실 지향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의미한다(이수정, 2017 재인용).

실제관계는 정신분석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며, Freud(1913)가 언급한 '긍정적인 유대'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Freud는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에 존재하는 관계가 전이와 역전이만이 아닌 호의적이고 친절한 긍정적인 관계도 있으며, 치료적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최한나, 2010). 전통적인정신분석가들도 내담자와 긍정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삶과 성격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Couch, 1999; Menaker, 1942). 실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되며,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실제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Freud, 1954; Menaker, 1942; Stone, 1954; Zetzel, 1956), 실제관계 개념에 대한 뚜렷한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관계 개념은 Greenson(1967)이 상담관계를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

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Greenson은 작업동맹, 전이-역전이, 실제관계의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상담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널리사용되고 있는 상담관계의 이론적 정립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Greenson(1967)에 따르면, 실제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연결(conne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전이와 같은비현실적인 반응이나 왜곡이 없는 진짜인 관계이다.

실제관계 연구 초기에는 실제관계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Eugster와 Wampold(1996)는 실제관계에 대해 치료적 기술이나 역할 수 행이 아닌, 전이나 역전이가 없는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정확한 인식에 기반을 둔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Knox 등(1997)은 상담사의 자기개방은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인간미를 느끼게 하거나 불완전성과 실체성을 느끼 게 하여 상담관계가 향상 되도록 돕고,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전이의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Couch(1999)는 실제관계의 자연스럽고 진솔한 상호작용은 실제로 인간의 진정성 있는 분석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관계 심리학자인 Frank(2005)는 실제관계는 즉시성, 상호인정, 진정성, 친밀함을 포함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실제관계에서는 보통 개인적으로 의미있고 정서적인 진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로 간의 상호주관적인 교류가 중시된 다고 보았다(유지영, 2015). Wallin(2007)은 실제관계를 정서조율로 설명 하였으며, Horvath(2009)는 실제관계의 개념을 타인에 대한 민감성, 상대 방을 대하는 행동, 인간적인 따뜻함, 성실함, 관대함, 친절함 등으로 제 시하였다.

실제관계는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정의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진실하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관계(Gelso, 2011)"이다. 즉, 상담사와 내담자가 상담의 장면인 지금-여기에서의 만남에서 느끼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감정의 접촉이 있는 관계인 것이라고할 수 있다(이수정, 2017). 실제관계는 모든 인간의 관계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상담관계에서도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유지영(2015)은 실제관계 개념에 대해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자기 자신으로서 상담 전 과정에 임하며, 인위적인 개입 기술과 목표 설정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존재로 대하고 서로에게서 드러나는 한계점들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Gelso(2002)는 실제관계의 하위 요소를 진정성(genuineness)과 실체성 (realism)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진정성은 "가짜가 아닌 진정한 자기자신일 수 있으며, 지금-여기에서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실체성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인식하며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elso, 2002). 실제관계의 두 하위요인은 이론적으로는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임상 장면에서 두 요인은 밀접하게 얽혀 작용되는 경우가 많으며(Gelso, 2011), 때로 두 요인은 처리과정에서 구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에 대한 상담사의 진정성은 상담사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실체성보다 작업동맹의 효과와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유지영, 2015; Gelso et al., 2005).

실제 관계의 개념에 대한 임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크기 (magnitude)와 반응가(valence)의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크기는 실제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실제관계는 특정 시점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최한나, 2011). 진정성의 크기와 정도는 상담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나, 실체성의 크기는 상담의 시작과 끝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Gelso, 2002). 반응가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서로에게 갖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부터 매우 부정적인 정서의 범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실제관계는 정서의 색과 상관없이 강하거나 약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도 실제 관계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elso(2002)에 따르면, 실제관계 맥락 속에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상담이 효과적일 것이며, 강한 실제관계는 상담과정 동안 매우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담 초기의 부정적인 실제관계는 상담의 조기 종결을 초래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2) 실제관계 선행연구

실제관계가 상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상담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상담관계 연구에서는 Bordin(1979)에 의해 작업동맹의 이론적 모델이 확장된 후 작업동맹이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현재까지도 상담 성과에 대한 작업동맹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활발히 지속되고 있다(Horvath et al., 2011). 반면, 상담에서 실제관계에 대한 개념은 오랫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동맹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개념의 유사성(이은주, 2017)과 실제관계 측정 도구의 부재로 인해 상담 연구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제관계 개념에 대한 통합적 정리와 이를 근거로 한 측정 도구가 개발된 후(Gelso et al., 2005; Kelley et al., 2007) 경험적 연구가 활발해지며 실제관계도 상담관계의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제관계의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작업동맹(Gelso, 2014)과 함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아직 실제관계를 향상하는 상담사와 내담자 요인들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상담사 자기개방(Ain & Gelso, 2008; Knox et al., 1997), 공감(Fuertes et al., 2007), 상담사와 내담자의 애착패턴(Fuertes et al., 2007; Gelso & Hayes, 1998; Marmarosh et al., 2009) 등이 실제관계와 관련이 깊은 상담사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Gelso et al., 2018).

실제관계는 상담 진행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계 변인으로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Ain & Gelso, 2008, 2011; Fuertes et al., 2007; Gelso et al., 2012; LoCoco et al., 2009; LoCoco et al., 2011; Marmarosh et al., 2009). Eugster와 Wampold (1996)는 내담자와 상담사의 개입, 내담자와 상담사의 편안함, 내담자의 진전

도, 상담사의 전문성, 상담사의 대인관계 스타일, 내담자의 실제관계, 상 담사의 실제관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 중에 내담자가 평가한 상담사의 실제관계가 회기에 대한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Gelso 와 Hayes(1998)는 실제관계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실제관계는 강할수록 치료가 효과적이며, 이러한 실제관계의 특성은 상담의 모든 과정과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작업동맹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실제관계가 작업동맹에 비해서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혀졌다(Marmarosh et al., 2009). 최근 Gelso 등(2018)이 진행한 실제관계와 심리치료 결과를 살펴보는 메타 연구에서 실제관계가 심리치료의 진전, 사전-사후 변화, 상담 회기 평가에서 중간 정도의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나타냈음을 밝혔다.

실제관계에 대한 상담사와 내담자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본 질적인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먼저 13명의 성인 내담자들의 상담사의 자기개방의도움 사례의 경험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인터뷰한 연구에서, 내담자가 상담사의 자기개방을 통해 상담사의 평범하고 인간적인 면을 인식하였을때, 실제관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Knox et al., 1997). 정신분석적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사들의 성공적인 장기상담의 연구에서, 내담자가 전이 감정을 느낄 때 긍정적인 실제관계는 내담자가 전이를 해결할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Gelso et al., 1999).

국내에서는 상담관계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의 실제관계와 작업동맹을 살펴본 최한나(2010)의 연구를 시작으로 실제관계 척도 타당화 연구(유지영, 2015; 최한나, 2011), 실제관계와 내담자와 상담사의 애착 효과를 살펴본 연구(최한나 외, 2015), 작업동맹과 실제관계와 상담 성과를 살펴본 연구(이은주, 2017)등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근래에는 실제관계에 대한 상담사 경험(주은선, 박영현, 2017)과 내담자에 대한 경험(이수정, 2017; 주은선, 박영현, 2020)을 살펴본 질적연구도 진행되었다.

상담사와 내담자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작업동맹과 실제관계는 '전이'가 없는 관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작업동맹은 해야 할 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개발된 관계(LoCoco et al., 2009)인 반면 실제

관계는 명확한 의도가 없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낸다(Gelso, 2011). 즉, 실제관계가 더 근본적인 관계 형성의 근간이되고, 작업동맹은 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Greenson(1967)은 실제관계는 인위적이거나 가공된 관계와 반대의 의미로 정의되는 반면, 작업동맹은 치료적 목적성이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계라는 점을 언급하며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작업동맹에서의 유대와 실제관계의 유대는 그 유사성과 차별성이 꾸준히 언급되어왔다. Gelso(2011)는 작업동맹의 유대와 실제관계의 유대를 작업적 유대(working bond)와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로 구분하였다. 작업적 유대는 치료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내담자들이 상담사가 목표에 맞는 전문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며 이와는 다르게 실제관계의 정서적 유대는 치료적 작업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인간대 인간의 만남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상담사의 인간적 자질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은주, 2017).

이론가, 연구가들이 작업동맹과 실제관계의 개념적 차이를 구별한 것 과는 다르게 실제관계와 작업동맹의 관련성을 확인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두 개념의 구분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Fuertes et al., 2007; Gelso et al., 2005; LoCoco et al., 2009; Marmarosh et al., 2009).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실제 상담 현장에 있는 상담사와 내담자는 두 요인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LoCoco et al., 2009), 이는 아마도 상담과정에서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협력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실제관계가 상담성과와 상담과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 바(Ain & Gelso, 2008; Fuertes et al., 2007; Gelso et al., 2012; LoCoco et al., 2009; LoCoco, 2011; Marmarosh et al., 2009), 두 요인이 상담사와 내담자의 인식에서 어떤 현상으로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담에서의 실제관계의 적용과 연구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수퍼 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해서는 문헌적으로 논의만 되었을 뿐 연구된 바가 없다.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는 최근이 되어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Watkins, 2011). 상담에서의 실제관계가 상담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처럼(최한나, 2010), 수퍼비전에서도성공적인 수퍼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관계 형성에 실제관계가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화를 촉진하는관계인 상담관계와 달리 상담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수퍼비전에서실제관계에 대한 탐색은 수퍼비전 성과를 예측하는 새로운 변인에 대한발견이 될 수 있으며, 상담사 교육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실제관계

본 절에서는 실제관계의 진정성과 실체성이 드러나는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면서 실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1) Buber의 나-너 관계

Buber(1958)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관계에서 찾은 대표적인 학자이다. 실존적인 관점에서의 관계를 바라본 Buber의 나-너 관계에서는 실제관 계의 진정성과 실체성이 매우 유사하게 드러난다. Buber(1958)가 주장한 관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Buber에 따르면, 참다운 인간의 존재는 고립된 실존에 있는 것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드러난다. 즉,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전체성을 이루며, 그 무엇과도 관계하지 않고서는 실존할 수없다는 것이다(최지민, 2014). Buber(1958)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참된 관계 형성을 '만남'이라고 하였으며, 만남의 양식을 나너(Ich-Du)와 나-그것(Ich-Es)의 관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나-너

(Ich-Du)의 관계는 인격체로서의 '나'와 인격체로서의 '너'가 동등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너의 관계는 온 존재를 기울여 타자에서 몰입되어 타자를 이해하는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나-너 관계에서 나와 너는 인격체로서, 나는 너를 경험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사물처럼 소유할 수 없으며 단지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뿐이다(임지혜, 2019; 최지민, 2014).

나-너의 만남은 상호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Buber, 2007). 대화 (dialog)란 일반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나와 타자가 관계 맺는 행위를 말하는데, 나-너의 만남에서 대화의 의미는 무엇에 관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한 말이다(윤석빈, 2006). '향함'의 개념은 신체를 지닌 두 존재가 마주 서 있는 것으로 '향한 말'은 나-너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적 대화의 형태이다. 이러한 향함의 대화를 통해 내 생각을 타자에게 전달하고, 또한 타자가 생각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임지혜, 2019). 그러므로 대화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호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다름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장지연, 2002). 대화는 나와 너의 고유성을 지켜주고, 동시에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너와의 대화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과 관계 맺도록 하고 너의 '말'로 인해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즉,나는 끊임없이 너와의 대화를 통해 변해 가는데, 결국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닌 '되어가는' 존재자라는 것이다(박창수, 2001).

반면, 나-그것(Ich-Es)의 관계는 한 개인이 타자를 인격적 주체인 '너'로 보지 않고, 수단적·도구적 존재인 '그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손우정, 2010). 즉, 나-그것의 관계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관계로,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간을 인식하게 되면, 타자를 '너'자체로 존중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나-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타자는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의 객체로 소외된다. 이러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너와는 달리 만남이라고 볼 수 없다(손우정, 2010).

(2) 인본주의 심리학에서의 관계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은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주장한 것처럼 인간이 비합리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에 반대하였다. 인간은 단편적으로 연구하고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타인이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주은선 외, 2007).

인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상담이론은 Rogers에 의해 창안된 인간중심 상담이다(Rogers, 1961). 인간중심 상담은 정신분석의 지시적 상담을 반대하고, 비지시적 상담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상담의 원리를 소개하였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 즉 자기실현 경향성 (self-actualizing tendency)을 가진 존재이다(Rogers, 1961). 상담에서는 자기실현 경향성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주은선 외, 2007), 따라서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다른 어떤 상담보다도 치료적 관계와 상담사의 자질을 강조한다(Rogers, 1977).

인간중심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실현을 돕는 세 가지 요인은 공감적이해(empathic understanding),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unconditional positive regard)과 일치성(congruence)이 있다(Rogers, 1961). 이 중 일치성은 진정성(genuineness), 진실성(realness)이라고도 표현되며, 실제관계의 진정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Rogers(1961)는 치료적 관계에서 일치성이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으며, 깊은 수준으로 그 순간에 솔직하게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상담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담사가 자기 자신이 될수록, 내담자는 건설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성장한다고 하였다.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진정성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실제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진정성의 초점이 상담사에게만 맞

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제관계의 진정성과 차이가 있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경험과 인식, 진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며, 쌍방의 진정성, 즉 상호교류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Gelso, 2002).

더 나아가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실제관계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실체 성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간중심 상담과 더불어 인본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여러 학자들은 본래 현실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관찰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실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Gelso, 2002). 즉, 그들은 전이의 존재에 대해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감적으로 내담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았다(이은주, 2017; Gelso & Carter, 1985).

(3) 게슈탈트 심리학에서의 관계

게슈탈트 상담은 1940년대 형태주의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Fritz Perls에 의해 창시된 현상학적-실존적 심리치료이다(김정규, 2015). 게슈탈트 상담은 정신분석을 포함한 요소주의 심리학에 반대하여 신체감각, 감정, 행동 등 모든 유기체 영역을 확장한 전체 장(field)의 관점에서 과정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김정규, 2015).

게슈탈트 상담에서 내담자의 어려움의 핵심은 관계에서의 상처이며, 상담에서의 치유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김정규, 2015). 또한 치료의 기본원리들은 관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게슈탈트 상담은 나-너의 접촉과 철수 과정을 바탕으로 실현되어 간다(Yontef, 2008). 나-너의 관계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열린 과정으로 서로의 관계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며, 대상화시키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규, 2015).

나-너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화적 만남을 위해서는 상담사는 포함

(inclusion)과 현전(presence)을 실천해야 한다. 포함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현상학적인 경험을 존중하며, 내담자의 현상학적인 세계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그것을 그 자체로 경험하며, 내담자를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Yontef, 2008). 포함은 인지적 활동이 아니라 실존적 체험으로 이 과정을 통해 상담사와 내담자는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며 내담자는 상담사로부터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으며 치유된다(김정규, 2015).

현전은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Yontef, 2008). 이때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 개인적 경험, 생각 등을 치료 장면의 일부로서 수용하며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개방한다. 이러한 상담사의 개방은 내담자에게 타인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하며, 상담사를 더욱 신뢰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정규, 2015).

포함과 현전을 통해서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대화에 진정으로 전념하게 되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관계하면서도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순수한 목적으로 대한다(김민찬, 2021). 이러한 대화적 만남을 통한 관계 경험을 통해 내담자는 상호교류 안에서 알아차림을 확장하고 자기 조절적인 기능을 성장시키면서 점차 변화해 나간다.

게슈탈트 상담에서 상담사의 현전과 그로 인해 내담자가 자신을 수용하며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실제관계의 진정성 측면으로,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중심 상담에서처럼 실제관계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실체성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내담자의 현실 인식을 탐색하는 상담관계에서의 실체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관심을 두었다(Gelso, 2011).

3. 한국에서의 수퍼비전과 실제관계

본 장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에서의 수퍼비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수퍼비전 현장에서 실제관계가 탐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수퍼비전에서 관계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더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한국의 수퍼비전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상담 전공 학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담사로 수련하는 실습수업과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수퍼비전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김동일 외, 2021;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Bang & Park, 2009). 이 때문에 국내의 상담수련생들은 학과 교육과정 이외에도 상담관련자격증(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실습시간(개인상담, 집단상담, 수퍼비전)과 교육시간(세미나, 워크샵, 수퍼비전 등)을 채워야 한다(최해림, 김영혜, 2006).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수퍼바이지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퍼바이저를 찾는다는 특징이 있다(방기연, 2006). 이는 수련을 하는 기관에소속된 수퍼바이저를 배당받는 형식으로 수퍼비전이 진행되는 미국의 수퍼비전 형식(김동일 외, 2021)과는 매우 구분되는 모습으로 수퍼비전 관계가 수퍼바이지의 선택에 따라서 시작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수퍼비전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수퍼바이지의 선택이 핵심적일 수있으며,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는 기관이나 학교라는 매개가 없이 오롯이 '관계'로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수퍼비전 관계의 역할과 질이 수퍼비전의 지속과 성과에 다른 요인들보다 더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수퍼비전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한국의 문화적 측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Bang과 Park(2009)은 한국의 수퍼바이저들이 미국의 수퍼바이저들보다 수퍼비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권위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퍼바이지 역시 미국 문화권의 수퍼바이지들보다 수퍼비전 관계를보다 평가적이고 위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어(Killian, 2001), 수퍼바이저를마주할 때 더 불안해하거나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Quek & Storm 2012; Shim 2002). 손승희(2005)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들이

비개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비개방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예상'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수평적인 대인관계보다는 상하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는 한국 문화의 관계 특성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적 특징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An et al., 2020). 실제로 수퍼비전이라는 교육의 형태가 학점이나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퍼바이저가 전문가 집단에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최한나, 2007),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 관계에서 불안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데,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수퍼바이지들은 이러한 불안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 관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수퍼비전은 도제식 교육에서 보이는 독특한 관계의 특성이 있다 (권혜영, 조은숙, 2020; 손승희, 2005; 조윤진 외, 2014). 도제식 교육 (apprentice-like education)은 초심자와 숙련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더 높은 수준의 식견이나 기능을 가진 숙련자가 초심자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가치, 정체성, 전통들을 전수하고 초심자는 이를모델링하며 지식을 체득해 나가는 교육 형태이다(김한미, 2009; 이원희, 2012; Sigaut, 1993). 국내 수퍼비전에서도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를 멘토 혹은 롤모델로 여기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김계현(2002)은 국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는 교사, 자문가, 상담사 역할에 더해 수퍼바이지의 멘토 혹은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함께 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수퍼바이저는 자신이 그러한 입장에 있음을 의식하고, 수퍼바이지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유영권 외 2019).

국내 수퍼비전의 선행연구에서 도제식 교육의 특징은 자주 관찰된다. 지승희 등(2014) 연구에서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저를 관찰하고 모델링하며, 바람직한 태도나 기술을 배워 나가며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박영현(2022)의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지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수퍼바이저의 태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퍼비전을 통해서 상담 기술 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수퍼바이저의 모습을 모델링하여 성찰하는 자세를 배워간다는 연구 결과에서도도제식 교육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허재경, 김지연, 2009). 이는 수퍼비전에서 배움의 과정이 주로 수퍼바이지의 내적 과정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국외 수퍼비전 연구들과 구분되는 연구 결과이다(Auxier et al., 2003; Gibson et al., 2010).

이처럼 국내의 수퍼비전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수퍼바이저 '자체'를 모델링 해나가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 관계는 단순히 교수자-학습자의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제식 수퍼비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의 수퍼비전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상담 경험이나, 수퍼비전 경험을 토대로 수퍼비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소수연, 장성숙, 2011; 손진희, 2004), 다른 측면에서는 상담이라는 실천적 지식은 전문성이 높은 수퍼바이저와 도제적 관계를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손승희, 2005). 앞으로 국내의 수퍼비전이 관계의 두 가지 측면 모두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국내 수퍼비전에서 수퍼비전 관계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한요인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의 수퍼비전 상황에서 실제관계에 탐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관계 개념은 서양 이론가들에 의해서 정립되었으므로, 실제관계의 구체적 의미와 양상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문화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조화진, 2016). 특별히 실제관계는 관계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때문에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Mitchell, 1988;, Renik,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에서의 실제관계 선행연구(유지영외, 2018; 주은선, 박영현, 2020)와 마찬가지로 수퍼비전에서도 수퍼바이저의 인간됨과 진정성이 수퍼비전 전반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별히 위계가 다소 강조된 한국의 문화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수퍼비전 현장에서는 수퍼바이지들이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더 자신을 감추거나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퍼바이저의 진정성과 실체성은 수퍼비전 관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수퍼바이저 자체를 모델링 해나가는 측면이 있는 도제식 형태의 국내 수퍼비전의 특징은 수퍼비전 관계를 작업동맹이나 교육적 관계로 한정 시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도제식 형태의 수퍼비전에서의 모델링은 '인간 됨됨이'나 '삶 자체'에 대한 측면으로 상담 역량의 모델링보다 더 근본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동맹 이전에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실제관계는 한국수퍼비전의 독특한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실제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체험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고자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연구 절차, 연구의 진실성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의 철학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상학은 19세기 후반 인식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실증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며 "사태 그 자체로"돌아갈 것을 주장한 Husserl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사태자체로 돌아가라!"는 현상학의 행동강령이자 모토이며, '사태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의미한다. 현상학이 출현하기 전 지배적이었던 실증주의적 경향은 자연, 정신, 예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태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인식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되던 시기였다(유혜령, 2013). Husserl은 이러한 경향을 '학문적 위기'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체험된 고유한 의식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학을 이루고자 하였다(김 진, 2005; 유혜령, 2015, Fellmann, 2015). 현상학에서 중요한 이념은 개인의 의식 속에 주어져 있는 사태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로, Husserl은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의식에 직접적으로 맞닿는 '사태' 그 자체로 다시 돌아가 본질을 알고자 하였다(김 진, 2005; 유혜령, 2013; 이종훈, 2009).

이러한 배경을 가진 현상학은 20세기에 들어서 철학 이외에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

는 탐구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간의 주관적 의식 차원인 경험과 의미에 대한 탐구라는 측면에서 상담, 교육, 복지 등 인문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호되어오고 있다(유혜령, 2015; 이남인, 2014; Fellmann, 2015). 하지만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현상학의 철학적 사상과 방법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을지 몰라도 순수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이 추구하는 철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철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실천적 유용성을 고려한 연구방법으로 변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유혜령, 2012).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 혹은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려는 귀납적 · 기술적 연구방법으로, 생생한 경험을 지향하며 경험되는 현상의본질적 의미구조를 드러내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mery, 1983).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태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학적 환원(reduction)'의 태도와 '판단중지(epoche)'를 토대로 두고있다. 환원(reduction)은 이전에 이미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현상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려는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한다(Merleau-Ponty, 1962). 현상학적 환원은 선이해의 구조가 깊이 내재되어있는 연구자의 신념이나 가치 및 지식 세계에 대한 '해체'이자, 새로운 경험이 가져오는 부정성을 수용하여 자신을 열어가는 "해석학적 순환"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조용환, 2012). 다시 말해 우리가 이미 경험한 생활세계에 대해 다시 의심을 품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해 나가는 것으로서, 새로운 현상을 바라볼 때, 사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영향을 받지 않고 그 현상을 그 자체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환원은 '환원'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체험한 대로의 세계를 풍부하고 심화된 형태로 만나기 위한, 즉 경험의 생생함의 본질에 다가가기위한 수단으로서 강조되어야만 한다(Van Manen, 1994).

현상학적 환원은 판단중지에 의해 도달될 수 있다. 판단중지(epoche)란 사태 자체로 돌아가서 사태 자체의 특성을 보기 위해 이론적 전제나 가 정, 사회적 통념, 자연적 태도로 형성된 것들에 대한 이해를 '괄호치기하는 것(bracketing)'을 의미한다. 즉, 판단중지는 일종의 태도 변경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익숙한 눈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태도 변경의 노력이다. 연구자는 판단중지를 위해 연구하고자하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이전 경험이나, 주관적, 사적 감정, 기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반성의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편견이나 선이해를 점검해야만 한다(조용환, 2004). 종합하자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서 '현상학적 환원'과 '판단중지'는 경험한 대로의 현상을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모든 주관적 경험과 지식을 유보하며현상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며, 체험적 의미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뛰어넘어 구체적이면서 보편적인 본질을 변증법적으로 직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남인, 2004).

현상학적 환원과 판단중지가 현상 자체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수행의 필수적인 태도였다면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인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 것은 자유변경(imaginative vari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이남인, 2004). 현상학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본질은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이게 하는 것'으로, 경험을 이루고 있는 여타 부수적인 것들이 바뀔지라도 그 경험이 그 경험일 수 있게 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자유변경은 경험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자유롭게 변형하고 구성하는 상상의 과정으로, 이를 통해 경험의 본질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Giorgi & Giorgi, 2003).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해왔다(Colaizzi, 1978; Giorgi, 1985; Spiegelberg, 2012; Van Kaam, 1966; Van Manen, 1994). 이들 각각의 방법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상의 고유한 경험과 의미 세계가 드러나는 본질에 집중하고 개인의 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경험 세계의 본질 구조를 밝히는 순환적인 반성 과정인 현상학적 환원, 판단중지, 자유변경을 거쳐 결과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한다는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 현상을 이해하는데 '해석'보다는 '기술'에 중점을 두는 Giorgi(1985)의 기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Giorgi는 Husserl의 현상학을 계승하여 심리학적 체험연구방법을 개발하면서 현상학적 심리학 영역을 개척한 미국의 심리 학자로(Giorgi, 1985),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description)이며, 현상에 대해 참여자들이 기술한 것을 통해 현상의 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iorgi는 사태 자체로 돌아간다는 Husserl의 근본정신은 공유하고 있지만, Giorgi가 세운 경험과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사태가 Husserl이 주장한 철학으 로서의 현상학이 해명하려는 사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 다(이남인, 2014). Husserl이 주장한 사태란,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이라는 맥락을 넘어선, 의미가 생겨나는 '의식'과 '대상'의 관계 맺는 보편 적 구조, 즉 초월론적 주관을 의미한다(박승억, 2021; 이남인, 2014). 반 면, Giorgi가 의미한 '사태 자체'로 돌아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 적인 실제 상황인 일상생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신경림 외, 2004; 이남인, 2004). 따라서, 현상학적 심리학의 과제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일상적인 경험' 의 본질 구조를 탐구하는 데 있다(이남인, 2014). 다른 현상학적 방법론과 비교해보았을 때 Giorgi의 기술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상황적 구조에서 참여자 각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일반적 구조에서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경 험을 일관된 진술로 통합하여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는 특성이 있 다(Giorgi, 1985).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어떻게 실제관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현재까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개념적으로 상담에서의 실제관계에 빗대어 설명되고 있거나, 수퍼비전 관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서 실제관계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정도이다. 즉,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관계

경험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수퍼바이지가 수퍼비전에서 겪은 실제관계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지의 고유한 경험으로서 실제관계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색해야만 한다. 이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았으며, 특별히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적 구조와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1985)의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현상학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태도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가설도 허용하지 않고, 경험되는 것 그 자체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환원 (reduction)을 수행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이남인, 2004). 환원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뜻으로, 현상을 순수하게 보는 것을 오염시킨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박승억, 2021). 현상에 대해 환원적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태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는 판단중지(epoche)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중지는 연구자가 이미 했던 경험이나 이해를 없애거나 잊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중립적으로 보려는 의식적 노력이며,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박승억, 2021).

괄호치기(bracketing)는 판단중지 및 환원을 위해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이해를 괄호로 묶어 잠시 한쪽에 내려놓으려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는 연구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나 가정을 자각하고, 그것의 영향을 보류하는 괄호치기(bracketing) 작업을 연구 수행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연구자의 이전 경험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참여자의 경험 세계를 그 자체로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남인, 2014). 이에 연구자는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검토하고 연구 수행을 하는 동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에게 신뢰와 친밀감이 있을 것이다.
-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아끼고 신경 써준다고 느낄 것이다.
-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와 상담사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유대감을 느낄 것이다.
- 수퍼바이지는 실제관계를 수퍼바이저와 동등하고 수평하게 만난다고 느낄 것이다.
-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에게 이전의 수퍼비전에서 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과 자신의 상담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다.
- 실제관계에서 수퍼바이지는 돌봄과 수용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3. 연구 절차

1) 연구 준비

(1) 연구자의 준비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질적연구에 대해서 양적연구와 대비되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정보밖에 알지 못했다. 양적연구들을 가깝게 접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적연구들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다. 박 사과정 중 '교육문화 기술법'을 수강하며, 처음으로 질적연구를 가까 이 체험할 수 있었다. 위 수업에서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 론적 기반을 다졌으며, 질적연구자로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었다. 한 학기에 걸쳐 면담과 참여관찰법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수행했으며, 매주 질적연구 전문가인 담당 교수님께 지도를 받았다. 매주 제출한 과제가 총 60쪽에 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5주간의 연구를 소논문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수업을 듣는 동안, 질적 자료의 분석과 결과 제시 방법, 글쓰기 등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었다.

박사과정 중 내러티브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흥미 있는 주제라 흔쾌히 수락했고, 6개월에서 1년여에 걸쳐 연구에 참여자로 참여했다. 심충면담을 여러 차례 거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의 자료들을 공유하였다. 질적연구참여자로서의 경험은 추후 질적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참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면담을 통해 사적인 경험을 꺼내도록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쓰고 고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박사수료 후,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의 과정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수업에서처럼 세세한 지도나 조언이 없이 연구팀원들과 조금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었으며, 교과서에 제시되지않은 질적연구의 실제에 대해 세세한 과정들까지 학습해가는 기회들이되었다.

학위논문 주제와 연구방법을 정한 후, 질적연구자로서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연구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한 2022년 하계 교육학 연구방법론 워크샵의 강좌 중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행'을 수강하였다. 질적연구가 무엇인지, 질적연구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특히 질적연구의 현상학적 기초에 대해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당시, 연구 주제가 질적연구에 적절한지, 연구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확신이 부족하여, 강의가 끝나고 강의를 진행한 질적연구 전문가에게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적연구방법의 적용 가능성에대해서 나누었다. 구체적인 질적연구방법들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숭실

대학교 부부가족 상담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질적연구 워크숍에 참여하여 연구 주제에 가장 적절한 질적연구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해당 워크숍을 진행한 질적연구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방법을 확정하였다. 그 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한 책들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작성한 논문을 읽으며 현상학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하반기 질적연구의 이론과 실습 워크숍에서 개설된 강의 중 '질적 자료 수집: 인터뷰/ 관찰을 중심으로'에 참석하여 자료수집의 기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다.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에 대해서 다룬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자는 3명의 수퍼바이지를 대상으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박현정, 김신애, 2022)를 수행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 진행에 앞서 실제관계에 대한 문헌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출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퍼바이지가 수퍼비전 중 경험한 실제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자들의 경험 자체를 조금 더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여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면담 질문지 제작과 면담 등 연구전반적인 진행과 절차에 대한 예비 연습을 할 수 있었다.

(2) 질문지 개발

면담용 질문지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첫째,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상담관계를 토대로하여 진행된 실제관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았다. 실제관계 관련 문헌에서 중요한 개념과 하위요인들 중 수퍼비전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중 실제관계 경험이나 인식에 대해서 활용한 면담 질문지들이 어떠하였는지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

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였다. 그 밖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 파 실제관계 척도(Korean-version of Real Relationship Inventory-Therapist Form: KRRI-T, Korean-version of Real Relationship Inventory-Client Form: KRRI-C)를 참조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수 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끌어낼 수 있 는 반구조화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질문들 중 질문의 주제와 성 격이 비슷한 질문들을 모아서 상위질문과 하위질문을 구성한 후, 면담의 흐름을 고려하여 질문들을 배치하였다. 1차적으로 작성된 질문지를 상담 관련 전공 박사과정생 2명에게 읽도록 요청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질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제작된 반구조화 면담 질문지를 토 대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대상 1명에게 예비면담을 실시하였 다. 예비면담을 통해 질문지의 문항과 절차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질 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넷째, 예비면담을 통해 수정된 질문지를 다수 의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최종적으 로 질문지를 다듬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면담 질문지가 제작되었으 며, 질문의 주된 내용은 '수퍼바이저와의 만남이 인상 깊었던 수퍼비전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수퍼바이저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결감 을 느끼도록 한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수퍼바이저와 인간 대 인 간으로서 연결감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등이었다. 면담에 사용된 반구조화 질 문지는 〈부록 3〉에 첨부하였다.

(3) 예비 연구

파일럿 연구(pilot study)라고도 알려진 예비 연구는 연구자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Sediman, 2009). 더 나아가, 질적연구에서의 예비면담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면담 질문들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연구자의 면

담 기술을 검토하고 면담 수행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Creswell & Poth, 2021; Sediman, 2009).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시작에 앞서 1인의 수퍼바이지를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진행하였다. 예비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질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 나오게 될 진술들에 대비하고 반응을 촉진할 수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예비면담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질문지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면담 질문지를 먼저 제공하였다. 예비면담은 2022년 7월6일에 9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면담 진행이 끝나고,1시간 정도 논의시간을 가졌다. 예비면담이 진행된 후,참여자와 함께 질문지와 면담 과정에 대해 논의한 부분들은 아래와 같으며,논의된 사항들은 본 연구를진행하는데 반영하였다.

첫째, 실제관계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어 참여자들이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바로 떠올리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논의되었다. 따라서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도입 질문으로 '수퍼비전에서 인상깊었던 관계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수퍼비전 경험' 등에 대해 물으며 실제관계 경험에 가까이 다가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최종 질문지에 반영하였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풍성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촉진적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실제관계 경험이 충분히 진술되기까지 1회의 심층면담으로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진행 전에 참여자들에게 2회 이상의 면담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였다.

둘째, 면담 이전에 전달된 질문지가 오히려 면담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면담 질문지를 먼저 전달받게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면담이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각 질문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질문이 포함된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하나 정도만 참여자들에게 미리 전달하여 면담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셋째, 참여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본래의 선정기준에는 Skovholt와 Ronnestad(1992)의 '수퍼비전 전생애 발달 모델'을 참고하여, 수퍼비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특징이 있는 3단계의 대학원 후기 상태의 수퍼바이지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논의 결과, 수퍼비전 경험과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서 풍성하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실무현장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초보 이상의 전문가 상태인 수퍼바이지가 더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Skovholt와 Ronnestad(1992)의 '수퍼비전 전생애 발달 모델'의 4단계에 해당하는 초보 전문가 상태의 수퍼바이지로 선정기준을 변경하였다.

2)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질적연구의 목적은 일반화 도출이 아니므로(Glesne, 2008),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소수의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목적 표집 방법을 사용한다(Patton, 2002). 목적 표집은 의도적 표집 (purposive sampling)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연구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적절하고 풍부하게 알려줄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Creswell & Poth, 2016; Patton, 2002). 목적 표집은 연구참여자의 적절성과 충분함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적절성은 연구하려는 현상에 가장 적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참여자를 찾아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은 연구 현상에 대해 풍부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참여자를 모집하여 자료가 수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Morse & Field, 1995).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목적에 가장 적

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앞서 참여자 선정기준을 먼저 마련하였다. 선정기준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1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비면담 이후 예비면담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수정 보완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활용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2년 이내에 상담 수퍼비전을 약 10회 이상 경험한 상담사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선정한 이유는 수퍼비전에 대한 경험이 너무오래되지 않아야 생생한 경험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때문이다. 다만 1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꼭 한 명의 수퍼바이저에게 받을 필요는 없었으며, 다양한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것도 선정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적용하였다. 상담관계에서 실제관계는 두 사람이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형성되며(Gelso & Hayes, 1998), 실제관계가 어느정도 존재하느냐, 즉 강하거나 약한 정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만나는 기간이나 횟수보다는 경험의 강도가 더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Skovholt와 Ronnestad(1992)의 수퍼비전 전생애 발달 모델의 4단계에 해당하는 초보 전문가 상태의 상담전공 석사과정 졸업 이상인 수퍼바이지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이 단계의 수퍼바이지들은 졸업 후 수련생으로서가 아닌 상담사로 상담 관련 기관에 근무하며 상담에서 자신의개성을 찾아가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체성 확립에 수퍼비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더 숙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퍼비전을 받는 상황의 수퍼바이지도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셋째, 수퍼바이저로서의 경험이 없는 상담사여야만 한다. 본 연구는 수 퍼바이지로서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퍼바이저로 서의 경험이 있다면 경험이 혼재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2년 이내에 활발하게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1급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수퍼바이저로서의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자는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수퍼바이저와의 만남이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거나,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상담사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2) 예비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1인의 상담사가 예비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비 연구참 여자는 상담 전공 박사 수료생으로서, 인간중심과 대상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경력은 7년이다. 12명의 수퍼바이저에게 약 80회기의 수퍼비전을 받았으며, 면담에서 실제관계 경험을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지향은 대상관계이론이라고 밝혔다. 예비면담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진행한 후 실제 연구에서 사용될 질문지의 수정 및 보완 사항, 실제 면담의 진행 방식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논의하였다.

(3) 개인심충면담 및 FGI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선정기준에 의해 총 9명의 참여자가 선정되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일대일로 이루어진 심층면담에는 9명 모두가참여하였고, FGI에는 9명 중 6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질적연구에서체험에 대한 참여자의 독특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체험한 현상에 대한다각적 이해뿐 아니라, 일관된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는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정윤희, 2019). 이에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이 일어난 각참여자의 상황적 맥락과 개별적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 편의상참여자 구분을 위해 일련번호를 사용하였으나, 번호 및 소개 순서에는특별한 의미가 없다. 참여자 1부터 6까지는 개별 심층면담과 FGI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7부터 9까지는 개별 심층면담만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2인, 여자 7인으로,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이었다. 최종학력은 석사졸업이 6인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재학이 2인, 박사수료가 1인이었다. 상담경력은 평균 5년 8개월이었으며, 소지 자격증은 상담심리사 2급이 5인, 전문상담사 2급이 2인, 청소년상담사 2급이 4인, 전문상담교사 1인, 2급이 3인, 임상심리사 2급이 1인이었다(복수 응답). 각 참여자의 선호 이론은 대상관계이론이 5인으로 가장 많았다(복수 응답).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번 호	성 별	나이	학력	상담경력	상담관련 자격	선호이론
1	여	30대 초반	박사 재학	6년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대상관계 게슈탈트
2	남	30대 초반	석사 졸업	1년 6개월	무	대상관계
3	여	30대 중반	박사 수료	2년	무	대상관계
4	여	30대 중반	석사 졸업	6년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정서중심 인지치료
5	여	30대 초반	석사 졸업	4년 7개월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인간중심
6	여	30대 후반	박사 재학	6년	전문상담교사 1급	인지행동
7	남	30대 중반	석사 졸업	5년	전문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대상관계
8	여	30대 초반	석사 졸업	6년	상담심리사 2급	대상관계 게슈탈트
9	여	40대 중반	석사 졸업	9년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통합접근 초월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은 실제관계 경험을 함께 한 수퍼바이저의 배경 정보 및 해당 수퍼바이저와 만난 기간, 수퍼비전 횟 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진행과정에서 실제 관계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수퍼바이저의 정보도 함께 수집하였다. 참여 자들이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진행한 수퍼비전의 횟수는 6회 부터 35회까지 폭이 다양하였다. 수퍼바이저가 선호하는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이 4인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정보

번호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펴바이저와 만난 기간/수퍼비전 횟수	수퍼바이저의 선호이론
1	3년 / 20회	정신분석
2	1년 반 / 18회	대상관계, 자기심리학
3	1년 / 6회	가족치료, 초월상담
4	2년 / 20회	정신분석
5	4년 반 / 12회	인간중심, 대상관계
6	6년 / 23회	정서중심
7	1년 /15회	대상관계
8	3년 / 20회	대상관계
9	9년 / 35회	통합접근, 초월상담

각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적 특성과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참여자 1

참여자 1은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약 20회 정도 수퍼비전을 받았다. 참여자 1은 특정 장면에서 실제관계경험을 하였다고 했다. 참여자 1은 자신의 성향 자체가 수퍼바이저와 같이 권위가 있는 사람, 윗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어려워하고 긴장도하는 편이라고 했다. 상담사로 일하면서 위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수퍼바이저에게연락을 했다. 윗사람을 어려워하는 편이지만, 그 당시는 너무 힘들어서많이 고민할 겨를이 없이 연락을 드리게 되었는데, 수퍼바이저가 선뜻만나주시고 마치 상담하듯이 어려움을 다루어주셨다고 했다. 수퍼바이저가 훌륭한 상담사라는 점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수퍼바이저를 만났을 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위로를 경험했다. 참여자 1은 그 때를 회상하며,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그냥 학생이나

수련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담사이자, 동료로서, 더 나아가 한 사람으로서 위로해주시고 만나주신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수퍼바이저의 위로는 참여자1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수퍼바이저가 힘듦을 알아주고, 참여자 1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상담사로 성장하는 과정 중 하나로 이야기해 주실 때, 상담사로서 할 만큼최선을 다했다고 알아주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의 좌절과 죄책감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듬어주실 때 비로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상담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은 참여자 1이 다시 상담사로설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었다.

② 참여자 2

참여자 2는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18회기 정도 수퍼비전을 받았다. 졸업 후 처음 상담 현장에서 일하게되고, 한창 수퍼비전을 받아야하는 시기에 지금의 수퍼바이저를 만났다.

참여자 2는 본래 항상 혼자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인지 상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더 하고 찾아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요청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못남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혼이 나거나 비난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참여자 2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특성도 많이 변해갔다고 했다. 수퍼비전 시작 전에는 여전히 긴장과 떨림이 있지만 한결같이 받아주고, 승인해주는 수퍼바이저의 태도에서 신뢰감이 쌓여갔다.

참여자 2는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마치 사회적 부모님 같다고 표현했다. 아이가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체득해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처럼,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상담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같다고 했다. 참여자 2는 그런 수퍼바이저를 보면서 그냥 선생님이 아닌한 사람으로서 본보기를 삼았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쭉 보면서 수퍼바이저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참여자 2는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에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났다. 수퍼바이저를 뒷배 삼아 용기를 가지고 상담에 들어간다고 했다. 지금도 상담이 막히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수퍼바이저를 떠올리며 '선생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되새기며, 한 걸음씩 상담을 풀어나간다.

③ 참여자 3

참여자 3은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약 6회 정도의 수퍼비전을 받았다. 참여자 3은 지금 수퍼바이저를 만나기 이전에 상담사로서의 유능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경험들이 있었다. 지금 수퍼바이저와 만나기 이전의 수퍼바이저에게 혼도 많이 나고, 내담자들도 조기종결이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좌절도 많이 했다. 참여자 3은 상담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다. 상담보다 훨씬 쉽고 보수도 좋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재미있지는 않았다. 그런 와중에 참여자 3은 자신이 주변 지인들과 상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상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상담을 나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살수가 없구나'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상담에 매달렸고, 주변을 수소문해서 지금 수퍼바이저를 만났다.

지금 수퍼바이저는 참여자 3을 재단해서 보려고 하거나 틀에 대입해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자 3이 가진 고유성과 독특성을 강점으로 발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신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경험해야 한다'가 아닌 참여자 3이 자신의 상담에서 경험하는 것을 소 중히 여겨 주신다. 수퍼바이저가 늘 여유있고,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인 데, 그래서인지 참여자 3도 더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참여자 3은 수퍼바이저와 관계를 맺어가며, 수퍼바이저를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 나로서 만들어가는 상담, 나만의 상담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④ 참여자 4

참여자 4는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약 2년간 20회기 정도의수퍼비전을 받았다. 이 수퍼바이저를 만나기 이전의 다른 수퍼바이저와 힘들었던 경험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로 지금 수퍼바이저를 찾아갔다. 이전 수퍼비전에서 참여자 4는 수퍼바이저의 맹렬한 비난과 화가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상담사로서 아직 확신이 없고, 내가 상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는 시기에 그런 경험을하니 무섭고 주눅이 들고, 무너질 것 같았다. 밤에 자다가도 놀라서 깰정도로 힘들어 상담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그만둘 수 없었다.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수퍼바이저를 찾았다.

수퍼바이저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편안하지는 않았다. 이전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늘 긴장이 있었다. 참여자 4는 뭔가 수퍼비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수퍼바이저에게 알려드리고 증명해야만 할 것 같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참여자 4는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전전궁궁한 모습을 다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자신이 늘 그러한 것을 알고, 더 강조해서 참여자 4가 상담에서 노력한부분을 알아주려고 한 것 같다고 하였다. 상담사로서 스스로 의심을 할때 수퍼바이저는 조심스레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셨다. 잘하지 못한 상담을 내보일 때에도 아프지 않게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참여자 4는 수퍼바이저의 지적이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담자를 위하고내담자 이해를 위한 것임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다가왔다고 했다. 그래서때로 혼이 날 때도 그것이 배움을 위한 혼남이고, 자신을 더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임이 느껴졌다고 했다.

참여자 4는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을 나누는 중 울컥하고 눈물을 보였다. 수퍼바이저에게 이해받았던 그 경험을 떠올리니, 아직도 마음이 뭉클하고, 흐뭇한 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상담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상담사로서 충분하다는 그 말이 참여자 4에게는 상담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위안이 되었다.

⑤ 참여자 5

참여자 5는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약 4년간 12회기 정도의수퍼비전을 받았다. 상담을 시작한 초기부터 만나온 수퍼바이저이다. 상담이 잘 안 풀려 위축된 모습으로 수퍼바이저를 찾아갈 때에도 늘 따뜻하시고, 섬세하시다. 장점을 많이 봐주려고 하고, 비난하지 않고 표현해주시는 것이 아프지 않게 다가온다. 참여자 5는 수퍼비전을 받을 초기에수퍼비전이 너무 좋아서 수퍼바이저의 말들을 녹음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었다고 한다. 지금도 여전히 수퍼비전을 받고 나면 사례가 해결되어가는 느낌부터 자신을 보듬어주는 느낌까지 받아서 너무 편안하다. 점점더 난해하고, 어려운 사례를 들고 가게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을보여줘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든다. 때로 창피함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가져가면 후련할 것 같다는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5는 자신이 너무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다른 수퍼바이저를 찾기도 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와 잘 맞는 수퍼바이저는 결국 이 분이구나'를 깨닫고 이내 지금 수퍼바이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때에도 수퍼바이저는 한결같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요즘은 잘 지내냐, 괜찮냐'로 수퍼비전을 시작하였고, 오래전에 진행했던 수퍼비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물어주실 때 참여자 5는 사소하고 소소한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고 했다.

참여자 5에게 수퍼바이저는 안전기지 같은 느낌이다. 너무 바빠 자주보지 못할지라도, 힘들어서 지칠 때, 사례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며 앞이잘 보이지 않을 때 언제든 찾아가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⑥ 참여자 6

참여자 6은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약 6년 동안 23회 정도 만났다. 주로 소그룹 수퍼비전으로 수퍼바이저를 만나왔다. 참여자 6에 게 수퍼바이저는 상담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 삶 속에서 취해야 하는 자세라든가, 본보기 같은 느낌으로 다 가온다고 했다. 소그룹 수퍼비전이 진행될 때 참여자 6은 약간은 선망의 마음으로 수퍼바이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과 다르게 시원시원하고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수퍼바이저가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참여자 6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를 만나거나 도울 때 수퍼바이저의 모습과 같은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 었다.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수퍼바이저는 오히려 참여자 6의 차분함과 침착한 면의 장점을 부각해서 드러내 주었다. 참여자 6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 게 아닌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상담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수 퍼바이저가 종종 '내가 많이 봐서 알잖아~, 내가 선생님 원래 어떻게 상담하는지 알잖아~' 라고 표현하는데, 참여자 6은 그 표현이 그 자체로 그냥 따뜻하고 참 좋다고 한다.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많이 알고 있다고 느껴지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상담에서 한 실수로 고민이 될 때, 때로 망망대해에 홀로 서는 기분이들 때, 수퍼바이저를 만나러 가는 느낌은 등대를 만나러 가는 느낌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 그래도 꿋꿋이 서서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어떤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지가 되고 감사하다.

⑦ 참여자 7

참여자 7은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1년의 기간 동안 약 15회기 정도 수퍼비전을 받았다. 지금 수퍼바이저와의 인연은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다. 4-5년 전에 소그룹으로 수퍼비전을 받았었는데, 참여자 7

이 상담을 쉬게 되어 한동안 수퍼비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이 되어 다시 상담 수련을 시작하면서 수퍼비전을 받게 되었다.

참여자 7이 상담을 쉬는 동안에도 수퍼바이저와는 종종 연락이 닿았었다. 특히 수퍼바이저가 소그룹 수퍼비전을 함께 들었던 동료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연락도 주시며 근황을 궁금해하셨다. 먼저 연락을 드리지 못한 마음이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수퍼바이저가 마음을 써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다.

다시 수퍼비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사례들을 수퍼비전에 들고 갔었다. 역량의 문제인가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수퍼바이저는 참여자 7의 역량이 아닌 어려운 사례인 것을 알아주셨다. 수퍼비전이 끝나고 난후에도 따로 이메일을 보내어 위로와 지지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수퍼바이저는 단지 수퍼바이저로서가 아니라, 선배 상담사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며,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해주셨다. 참여자 7은 그 때 '나도 어려운 사례를 해나갈 수 있겠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한층 더 수퍼바이저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면서그 후에도 수퍼바이저가 보내준 이메일을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보게되었다. 참여자 7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했다. 수퍼바이저는 참여자 7에게 비빌 언덕이자, 상담사로서 성장하는데 큰 지지자원이 되고 있었다.

⑧ 참여자 8

참여자 8은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와 3년의 기간 동안 약 20회기 정도 수퍼비전을 받았다. 참여자 8은 수퍼바이저와 특별한 느낌이었다. 수퍼비전을 시작할 때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챙긴다. 자연스럽게 현재의 어려움들도 나누게 되면서 많이 끈끈해진 느낌이다. 수퍼바이저가 참여자 8에게 인간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는 모습은 사례의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수퍼비전에서 내담자의 마음과입장을 정말 꼼꼼히 살피시고 공감해 주시는데, 참여자 9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한 상담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고 내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온다고 한다. 보고 싶지 않던 내담자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참여자 8이 어려운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수퍼바이저는 자신도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30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수퍼바이저에게도 어려운 상담이 있다니, 모든 걸 잘 해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30년 후에도 나에게 힘든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마음이 들며,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좀 빼게 된다. 상담이라는 업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진다.

참여자 8은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뭉클하다고 한다.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상담사를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의 멘토로서,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챙겨가는 관계로 여겨진다. 이런 특별한 관계맺음은 누구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이 수퍼바이저를 적시 적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

⑨ 참여자 9

참여자 9는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에게 9년의 상담경력 중 35 회 정도 수퍼비전을 받았다. 오랜 기간 만나서인지 지금은 모두 설명하지 않고 사례만 보아도 수퍼바이저는 참여자 9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신다. 만날 때마다 수퍼바이저에 대해서 '우리선생님은 자신이 준비해 온 걸 알려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구나. 수퍼바이지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참여자 9는 수퍼비전을 받을 때 '너무' 좋다고 표현했다. 자신이 수퍼바이저에게 받은 존중과 수용 경험이 너무 좋아서 내 담자에게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다고 했다.

참여자 9는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내담자에게 무 엇인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조급했었다고 한다. 수퍼비전 을 받으면서도 다음 회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 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퍼바이저는 여유를 잃지 않으시고, 조급한 참여자 9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셨다고 한다. 늘 요동 치지 않으시고, 안정감 있는 수퍼바이저의 모습에 신뢰가 점점 생겼다고한다. 참여자 9는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보게끔 늘 도와주셔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되었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참여자 9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는 일상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 신뢰가 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수퍼바이저와 만나면서 수퍼바이저와 같은 상담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되었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것이 큰 안정감으로 느껴진다.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르게 연구자와 참여자가 서로 마주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연구가 이루어진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자료로 쓰인다.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연구자와의 관계 형성이 잘 되어야 함은 물론,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승민외, 2012). 특별히 참여자들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들에는 참여자들의 일상적 경험에서부터 내면의 사고 과정과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들까지도 포함되며, 수집된 자료들은 글이라는 형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민감해야만 한다(감소연, 2018). 조용환(2011)은 질적연구에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해서 고려를 하였는지, 연구 참여를 통해서 참여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민감하

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진행 및 절차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의 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s Board)의 심의를 거친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승 인번호:IRB No. 2206/003-002),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을 때, 원하지 않을 시 편안하게 불참에 대 한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밝혀 참여자의 자발성을 보장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넣어 참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면 담을 시작하면서도 연구 참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 의사 를 밝힐 수 있으며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처리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특별히 개별 심층면담이 아닌 FGI에 참여함에 있어서 다른 참여자들과 마주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에 불편 감이 있는 경우, 불참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충분히 격려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주로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자료수 집 당시, 코로나19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대면 방식 과 비대면 방식 중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면담을 진행하 였다.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서 당시 상황에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준수하여 면담을 진 행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실시간 화상 플랫폼(ZOOM Meeting) 을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면담 방식에 있어 서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 력했다.

둘째,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시작에 앞서 최대한 참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면담 일정을 선정했으며, 참여자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가 자신의 수퍼비전 과정과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경험에 대해 진술할 때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확인하며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진술 도중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감정

을 다루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가진 후에 면담을 이어 나갔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전사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 녹취파일을 저장시, 파일은 참여자 번호로 저장하여 연구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및 수퍼바이저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기호로 표시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나아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식별정보(사례비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등)는 자료수집과 결과 검토가 모두 종결된 후 폐기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 후, 연구 결과의 초안을 참여자들에게 발송하여수정하거나 삭제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넷째,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에 대한 감사와 참여자의 권익을위해 면담이 진행될 때마다 연구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1차 심층 개별 면담이 끝난 후, 각 참여자에게 50,000원의 사례비가 지급되었으며, 2차 심층 개별 면담이 끝난 후, 추가로 50,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FGI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는 20,000원의 사례비

3) 자료수집

를 지급하였다.

(1)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서 Morse와 Field(1995)가 제시한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 선정기준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목적 표집(purposing sampling)하였다. 목적 표집 중에서도 연구자가 참여자 선정기준을 먼저 세우고, 이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 참여자로 선정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typical case

sampling)' (Goetz & LeCompte, 1984)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앞서 제시한 참여자 선정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구참여 자를 모집하였다. 먼저 연구자 주변에서 참여자 기준에 부합하는 상담사 들을 탐색하거나 동료 상담사들의 추천을 통해 일차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상담사라고 판단된 경우, 연락을 취해 연구의 목적과 면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고, 먼저 구두로 참 여 동의를 받거나, 만약 참여가 어렵다고 밝히면 참여자 선정기준과 연 구참여자 모집 글을 전달하고 주변에 적합한 대상이 있는 경우 소개해달 라고 요청하였다. 소개를 통해 연구에 관심을 보인 대상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락을 하여 연구 참여 안내문을 전달하고 참여 동의를 받아 연구 를 진행하여 소개해준 사람이 해당 참여자의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도록 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담사 3명과 소개받은 상담사 3명이 모집되었다. 6명의 참여자와의 1차 심층면담이 끝나는 시점에서 면담에서 나눈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였 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고, 소개를 통해 연구에 관심을 보인 2명의 상담사가 추가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8 명의 연구참여자와의 1차 심층면담이 마무리되어갈 때쯤부터 자료가 포 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충분한 포화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변 동료의 소개로 1명의 상담사를 추가로 모집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9명 의 참여자의 1차 심층면담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 자료가 충분한 포화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 참여자 모집을 중단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9명의 상담사가 참여하였다. 9명의 모든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 설명문을 제공하여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명문을 숙지 후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설명문에는 연구주제 및 목적, 참여 인원, 연구 과정 및 기간,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 비밀보장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 중간에 참여를 그만두어도 불이익이 없다는 고지들이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두로 참여 동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료수집을

하기에 앞서 동의서에 참여 동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가졌다.

(2) 심충면담

면담은 보고자 하는 핵심 현상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 대화이며,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핵심 현상에 대한 경험을 진술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다(Pedgett, 2005). 더 나아가, 심층 면담은 연구 주제 현상에 관하여 참여자의 감정, 관점, 태도, 행동, 가치 등과 관련된 미묘하고, 복합적이며, 깊이 있는 정보와 이해를 추구하는 대화를 의미한다(전영국 외, 2013; Johnson, 2002).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 료수집은 주로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면담을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Seidman, 2009), 본 연구에서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현상학 연구에서 현상에 대한 본 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그 자체로 공감하고 각 참여자의 체험에 대한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유혜령, 1997).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현상에 대한 가정이나 선이해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 중지'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조용환, 2004). 연구자는 이러한 점들을 숙 지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반성의 자세로서 가능한 낯선 눈 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촉진적 질문들을 통 해 참여자들이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였 고, 반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 해 체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1차 면담 일정이 잡히면, 면담 당일 하루 이틀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연구 참여 동의서와 인구통계학적 질문지를 보내어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대면으로 면담이 진행된 경우, 동의서는 만나서 작성하였다. 예비면담 후 논의된 사항들을 반

영하여 면담이 진행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면담용 질문지 전체를 미리보내지 않았으며, 그 대신 메일 본문에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도입 질문들(예: '수퍼비전 장면에서 수퍼바이저와의만남을 어떻게 경험하였나요?', '최근 수퍼비전 장면에서 수퍼바이저와의 '만남' 자체가 인상 깊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냈다.

둘째, 1차 면담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8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면담은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진행하거나 ZOOM을 활용하여 만나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대면 면담일 경우 휴대폰 녹음기능을 통해 녹음하였고, 비대면 면담인 경우 ZOOM의녹화 기능을 활용해 녹음, 녹화하였다. 9명의 참여자의 1차 면담은 평균120분~150분 정도 진행되었다.

셋째, 9명의 참여자에게 1차 면담이 진행되는 동시에, 면담의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다. 1차 면담이 3명 정도 진행되었을 때 면담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질문들이 경험을 끌어내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3명 중 한 명의 전사 자료를 질적연구 전문가에게 컨설팅받았다. 컨설팅을 통해 경험의 깊이를 탐색하는 질문의 기법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이후의 면담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1차 면담이 모두끝나고 전사된 모든 자료를 여러 차례 정독하였다.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체험에 대해 구체화를 하고 싶은 지점이나, 추가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참여자별로 정리하였다. 2차 면담이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공통 질문과 개별적 경험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정교화하였다.

넷째, 2차 면담은 사전에 2차 면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1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면담과 같은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을 시작하면서 이전 면담에서 나누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어 이전 면담에서 진술한 이야기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9명의 참여자 모두에게 2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은 각 참여자당 약 60분~120분 정도로 진행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자 노력했으며,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민감하게 파악하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면담의 말미에 참여자들에게 면담에서 진술하기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 보완점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다음 면담을 진행할 때 수집된 의견들을 고려하였다. 각 참여자의 면담이 끝난 직후, 참여자에게서 관찰된 내용, 면담의 전반적 분위기 및 느낌, 면담 내용과 관련해서 떠오른 연구자의 의견등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특별히, 1차 면담을 검토하며 체험의 구체성과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 2차 면담에서는 구체적인일화를 떠올려 이야기해 줄 것을 더 요청하고, 일화에서 체험한 참여자의 정서, 느낌 등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질문하려고 노력하였다.

(3) FGI(Focus Group Interview)

FGI는 집단 인터뷰 기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Morgan, 2007) 허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참여자들의 지각을 알아보기에 적합하다(Massey, 2011). FGI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연구 현상에 대한 서로의 의견과 경험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교환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현상에 대한 보다 통합적 견해를 얻을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미옥, 2007; 김후자, 김정남, 2001).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개인 심층면담 외에 FGI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첫째,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서 각 참여자들의 체험이더욱 명확하고 구체화 될 것이다. 개별 면담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체험이 실제관계 경험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며 다른 참여자들의 경험 일화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에게 실제관계 경험이 삶에서 아주 익숙한 경험은 아니거나, 면담 이전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졌

다. FGI를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의 체험을 공유하여 각자의 경험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었다.

둘째, 서로의 경험에 대해 상호작용하며 실제관계 체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통합적 견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진술한 구체적 일화들이 공유되고, 그 안에서 했던 체험을 나누며 실제관계 경험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FGI는 9명의 참여자 중, 일정이 가능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6명과 진 행되었다.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의 가능한 일정을 수합 하였고, 가 장 많은 참여자가 가능하다고 밝힌 2022년 11월 25일 21시에 비대면 진 행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였다. FGI 실행 하루 전에 참여가 확정된 6 명에게 ZOOM 링크가 포함된 안내메일을 보냈으며, FGI에서 나누게 될 주요 질문을 함께 보내었다. 첨부한 질문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은 어떠한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 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이 상담사로서의 성장에 미친 영 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였다. FGI는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의견을 공 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 다. 주의사항에는,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 노출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으 면 원하는 정도로만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으며, 서로에게 민감할 수 있 는 특정 정보(예: 수퍼바이저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질문은 삼가도록 하 며, FGI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나누거나 유출하는 일이 없 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년 11월 25일 21시에 비대면으로 만나 FGI를 실시하였고, 약 90분 정도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고자 Giorgi(1985)의 기술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분석절차를 활용하였다. Giorgi의 기술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기술하는데 적합하며, 체계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학적 설득력을 지닌다(조영매, 2017).

Giorgi(1985)에 따르면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는 4가지의 필수적인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인식(sense of the whole)단계로, 전체적인 맥락 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 전사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현상을 의미단위로 구별해내는 다음 단계의 토대 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된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처음 부터 진술문을 살펴보며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현상이 중점적으로 드러 난 '의미단위'들을 구별해내는 단계이다. 이때는 전체 맥락에 대한 이 해를 위해 진술문을 전반적으로 읽었던 방식이 아닌 심리학적 관점을 가 지고, 진술문에서 연구 현상과 관련된 체험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 일 어나는 심리적 변화에 집중하여 진술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단 계는 추출한 모든 의미단위들을 검토하고, 조합하고 요약하여 연구 현상 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의미단 위의 조합은 연구 현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에 가까이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유 변경(imaginative variatio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연구 현상에 대한 본질적 구조에 대한 기술로서 핵심 구성요 소들의 흐름과 관계성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통합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 의미단위가 모두 고려되어 일반적인 기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Giorgi(2017)는 기존의 분석 절차의 1단계인 전체 맥락 이해와 2단 계인 의미단위 도출 사이에 '과학적 현상학적 환원의 관점 취하기'를 하나의 단계로 추가하여 5단계의 분석절차를 완성하였다. 이는 현상학적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과학적 현상학적 환원(reduction)의 태도를 강조 한 것으로, 1단계인 전체 맥락의 이해가 끝난 이후의 나머지 분석의 전 체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선 이해를 반성하여 참여자들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자 는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분석을 시작 하기 이전에 미리 작성한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선 이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중지와 괄호치기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의 절차에 따라서 연구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참여자와 면담한 전사 자료들을 여러 번 읽었다. 면담 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을 함께 들으며 전사 자료를 읽어 나갔다. 이 과정에 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추가 질문이 생기면 메모를 해두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를 해두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심리학적 관점 내에서 연구 현상에 초점을 둔 의미단위를 찾아내고 분류하였다. 각각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찾아내고자노력했다. 추출된 의미단위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였고, 1차 분석을 통해서 272개의 의미단위가 확정되었고, 2차 인터뷰와 FGI 자료를 추가하여 83개의 추가 의미단위를 찾아내었다. 1, 2차 분석을 통해 분류된 의미단위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살피며 지나치게 개별적이거나, 연구자의선이해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의미단위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한 참여자의 의미단위 예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상 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로 구분해 놓은 의미단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반성과 자유 변경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중심의미를 찾아 심리학적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적절한 심리학적 언어가 없을 경우, Giorgi(1985)의 제안에 따라 상식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예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의미단위의 내용

이 사례를 들고 가서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수퍼 바이저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혼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따뜻하게 지지를 해주고...

=> 나의 예상처럼 혼내기보다는 따뜻하게 지지해줘서 놀람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 내가 좀 조마조마하고 했던 것들을 좀 달래 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좀 수용해 주는 경험들이 내가 이 사람 을 믿고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좀 신뢰감이 생기고 어찌 보면 를 모델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김

=〉 롤 모델로 느껴짐

[참 8]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안 도감? 그걸 확인을 받고 누군가한테 이해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심.. 안도도 있고..

=>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받아 안심됨

〈표 4〉 심리학적 언어로의 전환의 예

의미단위의 내용 이 선생님께는 배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분이 내가 못한 것 9-23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혼남인게 느껴졌어요. 그냥 정말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이제 나를 까발려가지고 뭔가를 해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상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담사 역시 너 자신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과정들을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이후에는 좀 든든함의 느낌도 있고 편안한 느낌도 있고..

평가하며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든든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여 일관된 기술을 하기 위해 먼저 심리학적 언어로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모 두 펼쳐서 다시 살펴보고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구성요소들을 시간적, 인과적, 맥락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간의 관계와 공통된 속성들을 재배치하고 정렬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대한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의 구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며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합하였다.

4. 연구 절차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른 철학적 배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방법과 연구에서 추구하는 목적 또한 다르다. 따라서 연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적연구와는 다른 개념들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초기 질적연구의 타당성은 양적연구의 관점에서의 타당도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점차 양적연구와는 구별되는 질적연구의 성격에맞는 개념들을 구축하여 타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Creswell & Poth, 2016). 즉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통찰이나 발견, 해석에 중점을두기 때문에 질적연구에 맞는 적합한 평가 기준이 활용되어야만 한다(박승민 외, 2012). 질적연구의 평가 기준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Guba와 Lincoln(1981)이제시한 4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고려하여 연구의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Guba와 Lincoln(1981)의 4가지 기준의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연구에서 실행한 내용을 요약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타당도 기준(Guba & Lincoln, 1981)과 실행 내용

 기준	·····································	실행 내용
사실적 가치 (truth value)	수집된 자료가 현실 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파일럿 인터뷰 진행 방법론 삼각 검증: 개별심층면담, FGI 멤버체킹: 의미단위 검토 + 결과기 술 검토 연구 성찰 일기 작성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	수집된 자료가 외부 현실에 얼마나 잘 적 용되는가?	 1차 의미 단위 전문가 검토(상담관 런 박사과정생 2인) 결과 범주 전문가 검토(상담관련 박사과정생 1인)
일관성 (consistency)	연구의 절차가 반복 가능한가?	연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연구 과정에 대한 감수(상담전공 교수 1인, 질적연구 전문가 1인)
중립성 (neutrality)	연구자의 편견에 의 해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나?	 판단중지와 괄호치기의 태도 유지 결과 범주에 대한 전문가 검토(상 담전공 교수 1인) 결과 해석에 대한 전문가 검토(상 담전공 교수 2인, 질적연구 전문가 1인)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실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히 반영하는가를 의미하며,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상이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하는 현상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풍성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개별적 면담자료뿐 아니라, FGI를 실시하고, 연구 성찰 일기 작성과연구참여자들의 문자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상의 다원화를추구하는 삼각검증을 거쳤다. 사실적 가치 확인을 위해서 질적연구 전문가의 검토를 받거나 참여자들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자가 분석

한 내용과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Morga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 내용 분석과 결과 도출과정에서 상담 전문가 교수 3인으로부터 자문과 검증을 받는 검토 과정을 거쳤다. 또한 분석이 끝나고 연구 결과 기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결과와 해석을 보내어 참여자들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험의 각 구성요소마다 자신의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1~10점(1점: 경험과 매우 다름, 10점: 경험과 매우 일치함)으로 평정할 수있도록 요청했고, 같은 방법으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일관된 구조진술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잘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5점 미만의 점수를 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10명의 참여자들이 보내준 평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험의 구성요소는 평균 8.6점, 구성요소의 관계구조는 평균 8.4점, 일관된 구조진술은 평균 8.9점으로, 분석의 결과와 주제가 적절히 잘 드러났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적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양적연구의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이는 연구 결과가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고려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성이나 대표성을 의미한다. 질적연구에서는 양적연구의 일반화 기준과는 달리, 독자들, 혹은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대상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 결과가 의미 있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박승민외, 2012).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수퍼바이지 3인(박사과정생 1인, 박사 수료생 2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본인의 경험과 유사한지 검증받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한 참여자와 유사한 조건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하여 실시하였을 때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될 것인지를 의미한다. 양적연구와는 달리 질적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경험과 환경의 독특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반복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Guba와

Lincoln(1981)은 이러한 질적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사가능성 (audibility)이라는 용어로 일관성을 제 명명하였다. 즉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승민 외, 2012). 이에 연구자는 예비 연구, 질문지 개발 및 작성,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자료 수집 절차, 분석 과정 등 연구 절차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날 수 있는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질적연구에서 중립성은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이확립될 경우에 획득이 된다(Guba & Lincoln, 1981).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앞서 서술한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선 경험과 이해 등을 미리작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반성적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판단중지를 위한 성찰과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괄호치기의 사유과정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로, 참여자들이 실제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고 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9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면담한 진술과 6명의 참여자의 FGI 내용에 기반하여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일관된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은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7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28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7개의 핵심 구성요소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존중', '평가에서 점점 자유로워짐', '배움을 위해 용기 있게 나를 드러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봄', '실제관계가 상담관계로 전이', '상담사로서 나의 확장'이다. 본 절에서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의 진술과 함께 핵심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표 6〉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

(표 6) 수퍼바이지의 실제판계 경험의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핵심 구성요소
수퍼바이저가 나와 나의 일상(삶)에 관심이 있음	서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
수퍼바이저의 태도나 모습에 자꾸 관심이 감	
수퍼바이저가 나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짐	
가르침이 아프지 않게 느껴짐	_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 존중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짐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느낌이 듦	
내가 더 나은 상담사가 될 것을 믿어주는 느낌이 듦	- - - 평가에서 - 점점 자유로워짐 - -
상담에서의 의도가 수퍼바이저에게 전달됨	
수퍼바이저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수퍼바이저의 한계, 인간다움을 만남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달래 주어 안정이 됨	
수퍼바이저가 평가자, 권위자라기보다 큰 어른이나 멘토로 느껴짐	
새로 알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짐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드러냄	_ 배움을 위해 용기 있게 나를 _ 드러냄
잘 배우기 위해 힘들어도 드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아는 만큼 드러냄	
상담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강점과 성장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차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봄
나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을 이해함	
상담사로서 나의 발달 수준과 이해 상태를 살피며 지도하려는 수퍼	
바이저의 노력이 느껴짐	
상담에서 나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게 됨	
수퍼비전 이후 소진이 충만함으로 채워져 다시 상담을 하게 하는 에너지가 됨	
수퍼바이저가 내게 준 충만감을 내담자에게 전해주고 싶음	- _ 실제관계가 _ 상담관계로 전이 -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만나지 못함이 미안함	
누그러진 마음으로 생긴 마음의 여백에 내담자를 다시 담게 됨	
내가 체험한 실제관계를 내담자와 함께 함	
나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됨	상담사로서 나의 확장
상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됨	
내담자의 문제보다 내담자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상담을 하게 됨	

1) 서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는 서로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수퍼바이저는 상담 사례 이외에도 참여자들의 일상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늘 물어보신다. 수퍼비전 이외의 삶까지도 궁금해하시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참여자들은 수퍼비전이 진행될수록 수퍼바이저가나와 나의 상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수퍼비전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수퍼바이저와 함께하면서 참여자들도 수퍼바이저가 궁금해진다.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자꾸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든다.

(1) 수퍼바이저가 나와 나의 일상(삶)에 관심이 있음

수퍼비전 전후, 수퍼바이저가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질문하는 작은 관심에 참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느낀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이외의 참여자들의 일상에 관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관심을 가지고 늘 물어보신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안위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 때로는 따뜻함을, 때로는 감동을 경험한다. 수퍼비전에서 일상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지 수퍼비전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게 아닌지 고민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늘일상을 물어봐 주시는 수퍼바이저 덕분에 감사하게 여기며 편안하게 일상의 고민도 공유할 수 있었다(참여자 8). 한 참여자는 오랜만에 만난 수퍼바이저가 이전 수퍼비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물어주시는 장면을 회상하며,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참여자 5).

수퍼비전 할 때도 그냥 수퍼비전 받고 돈 드리고 끝나는 이게 아니라 '그 래서 선생님은 요즘에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라던가 또 계속 그거를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경험이나 이런 걸 또 같이 나눠주면서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드릴 수 있구나' 하는 편안함도 생기고. (참여자 8)

오랜만에 만나니까 한 번 '너 잘 지내냐' 뭐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이번에는 네 달인가 다섯 달 만에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그 때 고민하던 거 어떻게 됐니?'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가벼운 그런 얘기인데 사실 5개월 만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미 스쳐지나가 버렸을 되게 작은 정보인데 그걸 기억해 주셨을때 감동을 받았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 이런 게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막 일상 얘기를 잠깐 이렇게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눴거든요. 요즘 날씨가너무 더운데 잘 지내냐 이런 얘기 되게 사소하고 소소한. 그 안에서 나에대한 되게 애정을 좀 느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참여자 5)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요즘 힘든 거는 없는지, 상담을 하면서 너는 상담 외에 다른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일과 그런 것들 상담사 자체의 어떤 챙김 자기 돌봄 이런 것까지 항상 수퍼비전을 받을 때마다 시작 전이나 끝날 때 언제든지 좀 챙겨주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참여자 2)

(2) 수퍼바이저의 태도나 모습에 자꾸 관심이 감

수퍼비전을 받다 보면 수퍼바이저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된다. 일부러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수퍼비전을 해주시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수퍼바이저가 상담사로서 내담자에게 보이는 태도나 더 나아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들이 너무 따뜻해서 따라 하고 싶다. 수퍼바이저가 사회적 부모님같이 느껴져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수퍼바이저가해왔던 과정을 따라가고 싶기도 하였으며(참여자 2), 수퍼바이저를 상담사로서의 모델링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삶에 본보기로 삼고 싶은 마음이 까지도 들었다(참여자 6).

그냥 사례를 볼 때에도 그냥 사례에 대한 분석이랑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이상으로 좀 자세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 람을 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그 선생님의 그 자세가 되게 따뜻하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 은 것 같고.** (참여자 8)

사회에 나가서 생긴 좀 부모님 같은 존재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옆에서 잘 보고 배우고 하면서,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어떤 삶 속에서 제가 취해야 되는 자세라든가 **어떤 본보기 같은.. 본보기?** 저는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대처할 수도 있구나 **약간 그런 모델링의 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참여자 6)

(3) 수퍼바이저가 나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짐

대부분의 참여자는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느꼈다. 나의 상담과 나라는 상담사를, 더 나아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까지도 수퍼바이저가 잘 알고 있다고 느꼈다. 상담에서 어려워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일지, 어떤 식의 방법이 나에게 잘 맞는지 등을잘 파악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참 정확하고 편안하게 다가왔다. 수퍼바이저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다고 느껴져다른 누구의 위로보다도 그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참여자 4).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 없었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 역시 내가 숨기려고 해봤자 (웃음) 날 다 알고 있는 분이야. 약간 이 런 마음들이 여유를 주고 편안하게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5)

그냥 단순히 격려와 위로는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도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들이라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같아요. (참여자 4)

선생님은 경험을 늘 하게끔 하시는데, 저를 아시니까. 제가 경험을 통해 감정이 접촉되고 경험이 되어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시고 저한테 이제 경험하도록 해주시죠. (참여자 9)

한동안 되게 많이 수퍼비전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시기가 있어서 점점 이 제 **제 패턴이 좀 더 익숙해지시고 좀 더 파악이 잘 되어가셨던 것 같아** 요. (참여자 1)

2)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존중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수퍼바이지를 존중하는 태도는 모든 참여 자들이 공통으로 보고한 경험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수퍼바이저의 무조건 친절하거나 따뜻한 행동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에 깔린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가깝다. 실수에 대해 조언하거나 교정적인 피드백을할 때도 최대한 아프지 않게 알려주려는 수퍼바이저의 노력이 느껴진다. 사례지도 시간을 쪼개어 먼저 참여자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물으시기도 한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하나의 '일'로서 보기보다 참여자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겨 주신다. 때로는 보호받고 돌봄을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1) 가르침이 아프지 않게 느껴짂

참여자 대부분은 수퍼비전에서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아프지 않게 배웠다. 수퍼바이저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무겁지 않게 이야기해주시면서 차분히 참여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시니 가르침이 참 편안하게 쏙쏙 잘 들어 온다. 실수한 부분이 드러날 때 창 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섭거나 혼날까 봐 걱정되지는 않는다(참여자 5). 못한 부분을 콕 집어 나누는 것임에도 수퍼바이저의 표현이나 태도 덕분에 그것이 불편하거나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어떤 공감을, 이제 축어록에서 반응이 이 내담자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말이 빙빙 돌아가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여기서 놓쳤나 보다'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약간 웃음이 있는 목소리로 이제 뭐랄까 '여기서는 좀 놓쳤나 보네~'하면서 이렇게 좀 웃으 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 주는 부분들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제 가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크같은? 그것들이 좀 섞인 말로 좀 무거운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하지만 이제 이후에 해 야 하는 말들을 되게 차분히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참 따뜻하죠. (참여자 2)

제가 틀리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선생님 이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지 알겠다. 하지만 지금 이 내담자가 ~한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다르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아, 그러네, 아니네. 여기네.'라는 거를 좀 더 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방어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서늘한 감각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끔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은 거의 받지 않아서 그게 되게 크게 비교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중략) 잘 못 말한 말이었던 건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주시니까 비난한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참여자 5)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냥 느낌으로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뭔가 정확하면서도 판단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나에게 어떤 틀을 씌워주는? 넌 이래 넌 저래 이런 거는 아닌 느낌? 되게 좀 유연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말투도 되게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다고 할까? (중략)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 나를 혼낸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떤 말이 나한테 찾아오고 있네? 하는 느낌? 이게 뭔가 좀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2)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짐

수퍼바이저의 가르침만큼이나 참여자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수퍼바이저가 참여자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는 모습이다. 참여자들이 걱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사례지도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다. 수퍼바이저가 가진 어떤 정의나 개념에 빗대어 참여자들을 판단하거나, 참여자들의 배경 정보들을 바탕으로 단정지으려고 하지 않고, 매번 참여자들을 그 자체로 봐주시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수퍼바이저가 실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딱 집어주시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예뻐하시고 반기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참여자의 경험에서 수퍼바이지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든든한 애정이 참 많이 느껴진다(참여자 8). 한 참여자는 수퍼바이저가 자신과의 수퍼비전 시간을 하나의 일로써 보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는데(참여자 2), 이 진술에서 진심으로 수퍼바이지를 만나려고 하는 수퍼바이저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날따라 좀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걱정돼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좋았어요. 관심을 받는 것 같고 관심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받은 것 같아서 좀 이해해 주려고 더 궁금해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져서 (참여자 6)

그래서 좀 이렇게 별로 실수하거나 이래도 움츠러들지 않는 게 또 그거는 그거대로 선생님이 제가 보고서를 늦게 낸다거나 누락시킨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딱 이렇게 집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되게 이미 제 존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예뻐하고 반기시는 걸 아니까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있고. (참여자 8)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그냥 저라는 대상은 어떤 상담경력, 몇 년에 00 출신의 누구, 이렇게 단정 짓는 기

분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고 하는 노력처럼 보였어요. (참여자 7)

다른 수퍼비전에서 만난 수퍼바이저는 뭔가 다음 스케줄이 이미 이~만큼 있을 것 같은, 그런 너무 다급하고 여유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 선생님은 이 수퍼비전을, 그리고 저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일'로서 바라본다고 느꼈었는데, 이 수퍼바이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하나의 '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진심으로 봐주는 것 같다는 느낌. (참여자 2)

좀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락을 드렸었고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사실 신경을 안 쓰시거나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되게 괜찮냐고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뭔가 되게 힘드시겠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필요하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여자 1)

(3)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느낌이 듦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참여자들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경험으로 확장되었다. 많은 참여자가 위로와 함께 돌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뭉클함과 감사함이 면담 중에도 고스란히 전달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동생 걱정해주시듯이 '그런 말을 들어서 어떡하냐' 고 하시면서 되게 좀 화도 같이 내주셨던 그 순간이 저는 좀 **케어 받는** 순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나 자신도 내가 못 챙기고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챙겨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참 따뜻하고, 뭉클하고. (참여자 2)

그냥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뭉클한 지점들이 있어요. (중략) 왜냐하

면 시간에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 넘어주는 느낌이랄까 시간의 경계, 역할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카톡을 막 보내주시면서 마음 쓰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죠. (참여자 8)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지식적으로 배운 게 없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수퍼비전이었어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내가 너를 알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는 거.. 그게 저한테 필요했거든요. 그걸 아시고 하셔서 그때 좀 제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참여자 9)

3) 평가에서 점점 자유로워짐

수퍼비전은 늘 긴장되는 자리이다. 수퍼바이저를 찾아갈 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수퍼바이지에게 매우 흔한 감정이다 (Quek & Storm 2012; Shim 2002). 자신을 평가하는 권위자라는 인식에서 쉽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실제관계는 참여자들이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옅어져 가는 과정으로 체험된다. 수퍼바이저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평가의 시선으로만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가가 아예 빠지거나 아주 동등한 관계로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장된 시선으로 수퍼바이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점차 느껴간다. 참여자들은 점점 더 수퍼바이저를 평가자로만 보지 않게되고, 자신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게 된다.

(1) 내가 더 나은 상담사가 될 것을 믿어주는 느낌이 듦

더 나은, 더 좋은 상담사가 될 것이라고 믿어주는 수퍼바이저의 모습에서 참여자들은 힘을 얻는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막막하고, 때로 상담이라는 길이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라는 수퍼바이저의 믿음이 상담을 지속하는 원

동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 참여자는 수퍼바이저가 자신보다도 자신을 더 믿어주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으며(참여자 4), 몇몇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믿어주는 것에 안도감도 느껴진다고 하였다(참여자 1.7).

내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나를 너무 물렁하게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 내가 무너졌다고 나를 너무 힘없이 보면 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중략) 거기에 있어서는 수퍼바이저가 제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을 하셨기 때문에 꾸준히 혼내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믿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참여자 4)

저를 봐주면 힘이 좀 더 실리는 거 같아요. 그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더 커질 때 저를 봐주면, 되게 매선 눈초리로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 걸 봐주시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라는 힘이 더 실리는 거같아요. (참여자 7)

항상 상담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유능감보다는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못 하는 것 같고,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잘 맞는지 의문까지 품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안도감? 그걸 확인을 받고 좀 누군가한테 좀 이해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심도 되고. (참여자 1)

(2) 상담에서의 의도가 수퍼바이저에게 전달됨

잘하지는 못했지만, 상담에서 하려고 했던 노력과 의도를 수퍼바이저가 정확히 알아주었을 때 참여자들은 평가에 대한 인식이 덜해졌다고 말한다. 내담자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마음을 이해받으니 안심이 되고 안도감이 들었다. 한 참여자는 상담은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내담자를 향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퍼바이저가 알아줄 때, 자신이 추구하는 상담사로서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 존중받는 느낌이들었다고 하였다(참여자 7).

여기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이름이 **인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그 사람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게 느껴진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귀 기울이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내담자 표현을 너무 많이 따라갔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뭔가 내가 노력해 준 것 이제 내가 내담자를 생각하고 조금 더 그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들을 좀 더 읽어주는 느낌이에요. (참여자 5)

제가 촘촘하게 수퍼비전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때 이제 너무 자주 보니까 수퍼바이저 선생님이 이제 제가 막 미사여 구나 부연 설명이 늘어나면 '알아, 알아' 약간 이렇게 하면'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알아' 약간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는 구나' 하면서 조금 더 편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뭘 아는 구나에요?)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이런 의도로 하려고 노력했구나,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나 표현되지 않은 거구나. 이걸 아는 거요. (참여자 4)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담자로서의 태도라든지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령 미흡했을지언정 제가 내담자에게 가지고 있는 선의라든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살펴서 이해해 주는 느낌... (참여자 7)

음... 사례 상담을 지도 들어가기 전에, 딱 정확한 워딩은 생각은 안 나는데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례를 지도해달라고 했을지 사례를 보면서참 많이 느껴졌다.' 그 말부터가 일단은 되게 좀 저한테 있어서 크게 다가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알아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 (참여자 2)

(3) 수퍼바이저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몇몇 참여자들은 이전 수퍼비전에서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었다. 도우려 하기보다 혼남과 비난이 목적인 것 같아 배움 없이 끝났다고 느껴질때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관계를 경험한 수퍼바이저에게는 혼이 나더라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진심이 전해졌다. 이미 상담에서 진행한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는 수퍼바이저의 마음이 느껴졌다. 한 참여자는 혼이 나지만, 그것이 배움을 위한 혼이라는 것이 전달되어 안심된다고했다(참여자 4).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수퍼바이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니 평가나 비난에 대한 염려가 조금씩 줄었다.

꾸준히 혼이 나면서도.. 배울 점이 있겠다. 이 선생님께는 배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분이 내가 못한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혼남인 게 느껴졌어요.** (참여자 4)

수퍼비전이라든지 공개사례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남겨 주시고, 그룹 수퍼비전이 끝난 후에도 채팅으로 이렇게 못다한 말씀 남겨 주시고, 쉬는 시간 동안에도 이야기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단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참여자 7)

살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근데 그게 꼭 그 사람의 어떤 이득에 의해서가 아닌 뭔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이 약간 그 좀 기댈 수 있는 어떤 쉼터 같기도 하고 어 지지대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6)

그냥 어쩌면 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익숙하지도 않고 한데, 누 군가한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좀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 목적이 그냥 정말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이제 나를 까발려가지고 뭔가를 해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상담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담사 역시 너 자신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알 려주고 그 과정들을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이후에는 좀 든 든함의 느낌도 있고 편안한 느낌도 있고 (참여자 2)

(4) 수퍼바이저의 한계, 인간다움을 만남

수퍼바이저가 상담사로서 갖는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서 들을 때, 참여자들은 많은 감정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유능하고 완벽해 보였던 수퍼바이저임에도 아직 상담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안도감과 가까움을 경험했다. 오랜 경력이 있음에도 상담을 하면서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수퍼바이저를 보면서, 어느 지점에 다다르더라도 완벽히 잘 해낸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참여자 8). 참여자들은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담을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실 제일 컸던 거는 뭐든지 다 알 것 같고 저렇게 유능한 모든 걸 이제다 내가 못 보고 있는 걸 보고 알려주고 엄청난 지식과 경험이 정말 많은 나랑 좀 다를 것 같은 저 사람이 나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조금 더 인간답게, 그러니까 너무 먼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가까운 존재라는 느낌? 그래서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지금 겪는 것을 이분은 이미 겪어봤으니 충분히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줘서 훨씬 더 좀 신뢰가 많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가까워지는 느낌도들고 (참여자 2)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사례는 그냥 많이 해 볼수록 쌓이기는 하는 거구나 근데 저렇게 많이 하신 분도 어려운 게 있다는 게 있다는 걸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마음이 편해져요. 제 업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내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 같거든요. 수퍼바이저의 제스처가 '나 여태껏 상담했는데 30년 했는데도 어려운 사례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저의 마음의 과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중략) 저도 좀 내려놓고 '나도 30년 후에도 힘들수 있겠구나. 30년 후에도 내게는 힘든 사례가 분명히 있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참여자 8)

(5)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달래 주어 안정이 됨

상담에서 실수했거나 망쳤다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초조해했던 감정들을 담은 채로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에 참여하기도 한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압도되기도 하고 수퍼바이저에게 혼이 날까 봐도 초조하다. 수퍼바이저를 찾아가는 참여자들은 불안이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갔지만, 오히려 수퍼바이저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보듬어주며 안정감을 제공했다.

제가 그 수퍼비전에서 내담자한테 했던 걸 이야기 나누는데, 선생님이 '이 내담자는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 어떡하죠.. 저 이미 지난 회기에서 그 내담자한테 그거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하면서'힘이 날 줄 알고 그랬다', 막 '큰일이 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지금이라도 안 게 진짜 다행이다'라고 하시면서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다고, 수퍼비전 받고도 바로 그다음 날에 하면 안된다는거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별일이 아니다'라는 듯이 이야기해 주셨던 덕분에 수퍼비전이 쭉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어요. (참여자 4)

뭔가 또 그 당시에 만약에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없으셨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시면서 좀 제 책임에 대해서 많이 가볍게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되게 그때 그런 말을 못 들었으면 좀 진짜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 이러고 저는 또 제가 이제 스스로 좀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참관자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제가 좀 말문이 더 막히고 자신이 없고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략) 그때 지금 수퍼바이저 선생님은 오히려 '**선생님이 이런 면이 다 있네'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단호하게 명료하게 말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끝도 흐리고 이런 모습을 다 보네'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순간들, 그럴때 뭔가 저를 되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그렇게 달라져도 괜찮아'라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이거 과정이야 너 상 담사로서 발전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성장해'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서 (참여자 9)

(6) 수퍼바이저가 평가자, 권위자라기보다 큰 어른이나 멘토로 느껴짐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를 큰 어른이자 멘토로 느끼면서 평가자나 권위 자로 바라보았던 인식에서 점점 벗어난다. 수퍼바이저가 상담사로서 고 군분투하고 있는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수퍼바이저가 나를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성장하기를 진심 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담자와 단둘이 만나는 상 담이 홀로 전투에 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지만, 혼자이고 외롭고 무서 울 때 수퍼바이저가 뒷배같이 지켜주어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경험 한다(참여자 2).

상담은 또 혼자서 이렇게 쭉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가끔은 홀로 하는 싸움 같기도 하거든요. 혼자서 홀로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혼자가 아닌 거구나, 나를 지금 지켜봐 주고 있는 되게 든든한 뒷배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경험들이 저를 조금 아까 말했던 울컥하게 만들고, 좀 온기가 돌게 만들고 그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못해도 좀 약간 그래 못해도 지금은 그렇지만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좀 이 부분만 좀 고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게 좀 그런 태도가 많이 느껴져서 혼나는 것 자체가 '이 수퍼바이저를 절대로 안 만날 거야' 이러면서 겁나거나 무섭거나 그렇지 않은 건가 봐요. (참여자 5)

항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못하는 걸 통해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퍼바이지가 잘하면 수퍼비전을 왜 받으러 오 냐 받으러 올 이유가 없다. 수퍼바이지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항상 칭찬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거에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 9)

그런 순간들인 거 같아요. 내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냥 네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선배 전문가로서의 이제 좀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로 같은 것도 떠오르고 갈 길이 구만리고 많지만 그래도 지금 순간 상담자로 가는 길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안심시켜 주고 '너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고 이런 게. (참여자 7)

(7) 새로 알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짐

수퍼바이저의 평가에서 아주 말끔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평가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서 참여자들은 수퍼비전에서 새롭게 알게 될 것들에 대해 기대하게 된다. 수퍼비전에서 자신의 어떤 면을 새롭게 알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례에서 막혔던 부분이 후련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며 수퍼비전에 참여한다.

오히려 나에게 좀 되게 편하게 직면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거부 감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궁금해요. 이게 좀 수퍼바이저와의 만남, 나의 무엇을 또 발견할까? 약간 좀 이런 기대감도 있고. (참여자 3)

못한 걸 들고 가면 좀 창피하기는 한데 (웃음) 이분한테 가져가면 후련하

긴 할 거라는 기대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참여자 5)

4) 배움을 위해 용기 있게 나를 드러냄

수퍼비전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참여자들은 용기를 낸다. 사례를 마주하고 있는 마음이 절박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퍼바이저를 찾아간다. 부끄럽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잘 배우기 위해서 현재의 나의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참여자들은 마음을 다잡고 용기 내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상담에서 했던 것들, 상담 중 체험한 마음, 현재 수퍼비전을 대하는 마음과 기대 등 드러내는 내용은 다양하다. 내용은 다양하지만,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한 마음의 동기는 동일하다.

(1)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드러냄

상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때로 절박한 심정을 느낀다. 사례와 관련하여 불안하고, 힘든 감정에 압도되기도 한다.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줄 그 무엇이라도 당장 간절하다. 이런 간절함은 참여자들이 힘듦과 불안함을 수퍼바이저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록 했다. 한참여자는 내담자를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막막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례를 들고 수퍼바이저를 찾아간 참여자도 있었으며(참여자 9), 너무 힘들어서,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수퍼바이저에게 연락을 취한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

조금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 내려놓고 도 저히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참여자 5)

이 사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암 담하고 막막하고 그게 너무 커서 그거에 너무 압도돼서 이 평가자가 나 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는 제 안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고 가야 한다, 내가 이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그냥이 수퍼바이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야 이런 건 제 안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그때는 너무 힘들기도 했고,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내가 상담을 하는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약해졌을 때..(중략) **좀 부끄럽기는 했지만, 그때는 좀 어떻게 그렇게 개방이 됐어요.** (참여자 6)

그래서 뭔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고민이 되긴 했었던 것 같은데도 뭔가 답답하고 이게 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더 훨씬 커서 고민보다는 그게 더 커서 좀 그래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고민하고 오래 막고심하다가 했다기보다는 뭔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좀 자연스럽게 연락을 드린 것도 있었고.. 살아야겠다.. 이런 좀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2) 잘 배우기 위해 힘들어도 드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낌

수퍼바이저가 어떻게 보실지, 사례를 들고 갈 때 늘 고민이 된다. 보고 서에 어떤 회기와 축어록을 넣을지도 고민이 많다. 부끄러워서 들고 가 고 싶지 않은 사례들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겨내야 하 는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마음과 더 잘 배우고 싶은 두 마음의 씨름 과정이 있지만, 참여자들에게는 더 잘 배우 는 과정이 중요해서 드러내기로 결심한다.

부끄럽고 그냥 들고 갈까 말까 정말 고민도 너무 많이 했고 망설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숨기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이사례 자체를 이제 좀 감추고 몰래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제 내가 이겨내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계속 찜찜함을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그래도 결국에는 수련과정에서도 필요한 과정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찾아가게 됐었어요. (참여자 2)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거 쓰면서 좀 칭찬받고 싶은 거 있었어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이거 쓰면서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되긴 했는데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썼어요.** (참여자 8)

못한 케이스를 가져가도 오히려 못한 걸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으니까요. 내가 지금 망치고 있는 사례라는 건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퍼바이저가 길을 잡아주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못한 케이스 망한 케이스만 가져가요 (참여자 9)

(3)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아는 만큼 드러냄

잘 배우기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망친 상담'을 드러내는 것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점과 모르는 지점을 수퍼바이저에게 더 정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와 모르는 정도를 수퍼바이저에게 더 정확히 알려야 그것에 맞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한 참여자는 그간 다른 수퍼바이저와 오해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수퍼바이저는 모른다고 생각할때가 있었고, 내가 궁금한 부분인데, 수퍼바이저는 넘어갈때가 있었다. 그런 상황들이 소모적이라 느껴졌고, 그 후로는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더 명확히 드러내어 오해없이 더 잘 배우고 싶었다고 하였다(참여자 4).

사실은 저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해 수퍼바이저가 모른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지점을 수퍼바이저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모르는 지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서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만큼만 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더 통합이 안 되면 그냥 잘 통합이 안 된다고도 얘기하게 돼요. (참여자 3)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동의하는 척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중략) 동의가 안 되면 저는 동의가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편이고 그래야 수퍼바이저 선생님이 왜 동의가 안 되는지 이걸 또 물어보시면서 다뤄주시니까 (참여자 8)

5)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봄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자신에 대한 진정성이 회복되며 더 나아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된다. 수퍼바이저는 상담에서 드러나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살펴주고, 모두에게 일관된 지도가 아닌 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라는 상담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상담안에서 드러나는 상담사로서의 자기 모습을 수용 받으니, 참여자들도 점점 상담에서의 자기 모습을 존중하고 확신하게 된다. 상담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내담자에게 느껴지는 마음을 잘 보면서 상담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간다.

(1) 상담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강점과 성장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차림

이상하게 수퍼비전에서는 상담사로서의 강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성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못한 부분만 더 드러나 보일 뿐이다. 참여자들은 보통 상담에서의 자기 모습에 대해 일부분만 지각할 뿐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수퍼바이저는 상담에서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장점과 성장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주었다고 했다. 한 참여자는 잘한 부분, 나아진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 높아졌다고 하였다(참여자 1). 강점을 알아봐 준 수퍼바이저 덕분에 위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참여자 5),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담을 하는 모습을 조금 더 온전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퍼바이저 선생님이 되게 칭찬이랄까. 잘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 여기는 이제 '정말 많이 나아졌다' 라든지 뭔가, '이제 잘하시네요.' 이렇게 좀 얘기 좀 강점을 많이 찾아주셨을 때 그랬을 때 좀 조금이라도 저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상처받고 위축된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들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은 제 장점을 되게 많이 봐줘요. (중략)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장점이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참여자 5)

내가 너무 애쓰는 부분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하고 있다, 근데 수퍼 바이저가 그거를 진짜 믿고 있다. (중략) 그리고 내가 못 하고 있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그렇지 않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아까 말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된다면, 수퍼바이저가 제가 이제 사례 보고 서를 쭉 써봤는데 그 수퍼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제가 못 한 것들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이 상담에서는 네가 뭘 잘했는지 얘기를 해봐라'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퍼바이저가 이전 상담들에서 보였던 나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너는 이 상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것들을 잘 했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읽어주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죠. (참여자 2)

(2) 나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을 이해함

상담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각각의 상담에는 상담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같은 개입이라도 상담사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구현은 다다르게 된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봐준다고 느꼈다. '이 장면에서 상담사라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나의 상담에서 나의 특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려는 수퍼바이저의 노력이 느껴졌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수퍼비전을 받으니 사례가 더 잘 소화되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아 상담에 더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뭔가 저는 그런 식의 피드백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선생님은 상담의 자질이 없다.' 이런 식의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꿀수 없는 영역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그건 뭔가 되게 복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긴장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 주실 때는 이제 그런 지점이 아니라 그냥 내 성격에 맞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중략) 되게 그런 걸 뭔가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랑 되게 다르구나 다른데 달라서 이런 것들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실 필요는 있겠다. (참여자 1)

상담사의 특성을 함께 고려를 하면서, 그래서 너가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해주시니까 이 사례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라 저한테 주관적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를 제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걸 함께 좀 봐주는 것들이 떠올랐고. (참여자 2)

제 상황도 알고 제 특성도 알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약간 나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걸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연결 지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참여자 6)

(3) 상담사로서 나의 발달 수준과 이해 상태를 살피며 지도하려는 수퍼 바이저의 노력이 느껴짐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참여자 각각의 발달 수준과 이해 상태를 고려하는 맞춤식(personalized) 지도를 해주는 모습에서 자신이 배우려는 것과 수퍼바이지의 가르침이 잘 조율되는 경험을 했다. 참여자들의 의견과 눈높이를 확인하는 수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질문들에서 수많은 수퍼바이지들 중 한 명으로서 지도받는 것이 아닌, 나라는 한 명의 수퍼바이지를 위한 지도를 제공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일단 저의 반응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수퍼비전 장면에서 저의 반응을 체크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세요. 수퍼비전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요?' 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중략) 생동감 있게 그때그때 바로 반응을 보시고 계속 물어보세요. 굉장히 질문이많으세요. 그래서 수퍼비전할 때 그런 반응과 저의 대답과 이런 것들을보시면서 계속 이제 완급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면더 알려주는 거고 이해를 못 하면 그냥 이거 한 개만 소화시키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제가 많이 이해하고 이러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고 (참여자 9)

근데 지금은 이 수퍼바이저는 제 축어록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보고 저를 쳐다봐요. 우리를 쳐다봐요. (참여자 3)

두 번째는 **저의 상담사로서의 발달 과정을 좀 고려해 주는 것, 좀 종합하면 상담사의 현재의 특성을 함께 고려를 해주냐** 이게 좀 큰 차이인 것같아요. (참여자 2)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선생님은 먼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세요. 먼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느껴요? **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를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죠. (참여자 5) 너 지금 이런 상태구나를 더 잘 봐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중략) **저의 상 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주시는 것처럼 더 느껴지고..**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거 같아요. (참여자 7)

(4) 상담에서 나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게 됨

상담에서 느껴지는 내적 체험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여자들에게 큰 변화였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느껴야만 한다'라거나, '이런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 진짜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내담자와 상호작용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수퍼바이저는 나를 나로서 더 볼 수 있게 하는 촉진제로서 있어 주었다. 한 참여자는(참여자 2) 공감이 어려운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노력했지만, 공감이 어려웠다. 수퍼바이저는 내담자가 어떤 마음인지 알기 위해 나의 경험을 보도록 했다. 내담자의 경험과 유사한 나의 경험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니 조금씩 내담자를 마음으로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답답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르구나, 이 답답함이 각자 느낌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다 다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너의 그 답답함은 뭐야?' 약간 이런음.. 좀.. 고유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인정해 주는? 상담에서 그 경험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는 느낌, 고유성을 존중할 것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그러니까 상담자가 느끼는 감정이 상담에서 되게 중요하다 뭔가.. 이게 어떤 상담을 어떻게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그런지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참여자 1)

그게 단순히 '너는 그냥 이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노력해봐'가 아니라 '너는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어렵게 다가 오는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그것과 관련된 저의 경험들이 있는 지 최대한 공감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찾아보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면서 내담자의 상황을 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여자 2)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퍼비전 할 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해 주세요. (중략)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제 또 내담자의 마음이랑도 잘 연결을 시켜서 '아마 내담자도 선생님이 갖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하면서 제 느낌이랑 내담자가 가질 만한 느낌을 연결 켜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 안의 답을 지금 찾아가는 그것 자체가 너무 이제 뭔가 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제가 괜찮다는 느낌 (웃음) 그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제가 경험이 중요한 사람인 걸 아시고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이죠. 그러면 그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내담자한테 가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수퍼비전 시간 동안 선생님이 저에게 경험치를 갖도록 해주고, 수퍼비전에서 내담자의 것과 유사한 제 안의 그 경험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재경험하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갈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6) 실제관계가 상담관계로 전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마음보다 끙끙거리며 애를 써야 할 때가 많다. 내담자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에게 자책이 들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와 실제관계 경험에서 소진이 해소되고 다시 상담을 하게 되는 힘이 생겼다고 하였다.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은 왜곡되거나 놓치

고 있던 나와 내담자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했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초심을 회복하기도 했으며 만나러 가기 싫었던 내담자가다시 만나고 싶어지기도 했다. 내담자의 문제가 아닌, 내담자 자체를 점차 마음에 담으며 수퍼바이저와 함께 했던 실제관계 체험을 내담자와도함께 해나간다. '실제관계가 상담관계로 전이'의 하위 구성요소들에는내담자에 대한 참여자들의 마음과 관계의 변화 과정이 잘 드러나며, 역전이 회복과정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 수퍼비전 이후 소진이 충만함으로 채워져 다시 상담을 하게 하는 에 너지가 됨

참여자들은 때때로 소진된 상태로 수퍼바이저를 찾아간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내담자가 싫어지기도 하고, 상담에 대한 효능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다.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보기에 너무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찬찬히 참여자들을 다독이신다. 힘듦을 알아주시고 천천히 다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 주시는 수퍼바이저 덕분에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한다. 한참여자의 이야기에는(참여자 5) 소진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과정이 잘드러나 있다. 상담을 망치고 자책에 빠져 있는데, 수퍼바이저가 힘듦을 알아주니, 마치 한 인간으로서 보호받고 보장받는 느낌이 든다. 수퍼바이저와 공유된 연결감을 느끼면서, 다시 해보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제가 만나기 싫은 내담자들을 수퍼비전 받을 때.. 선생님이 이제'아 그렇지, 힘들다 힘들어 얘는 너무 힘든 애야' 이러시면서 '그렇지만 이게 이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주는 경험이지 않겠냐. 만나기 싫다는 느낌.. 근데 우리가 버티려면 이 내담자를 좀 더 이해를 해야 한다' 하면서이제 내담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실 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중략) 선생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보여주시니까 이제 저런 태도와 저 시각 관점으로 내담자를 이제 다시한 번 보게 되고 그러면은 싫었던 내담자들도 싫지 않고 오히려 좀 이렇

게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런 게 딱 생기면서 그게 생기고 나서 다음 상담을 할 때 내담자랑 그 만남이 느껴져요. (참여자 8)

상담사 입장에서는 소진을 경감시켜주고 상담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미 상담 너무 망쳤어,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들고 왔는데 '너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자. 아이고.. 너 그럼 진짜 힘들었겠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상담도 했어? 아이고 대견해' 막 이런거를 경험할 때 저는 약간 보호받는다던가 인간으로 보장받는 느낌인 것같아서. 그때 좀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해볼수 있는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참여자 5)

그 상담을 하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게 수퍼비전인 거 같아요. 내담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 내담자와의 관계를 파헤쳐서 막이렇게 '내담자 어렵네'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잘 맞추면 관계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상성이 되게 잘 맞아 둘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상담사가 상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하고 싶어지게 만들었어요. 빨리 돌아가서 이거를 저 내담자한테 적용을 시켜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수퍼비전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어찌 됐든 상담사가 상담 때려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참여자 5)

그래서 뭔가 '내가 화가 났었구나 이 내담자한테..'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퍼바이저가 대신 같이 화를 내주는 장면에서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감정을 그러니까 **이게 내담자가 또 다시 이해가 되고.** (참여자 1)

(2) 수퍼바이저가 내게 준 충만감을 내담자에게 전해주고 싶음

상담에서의 소진이 실제관계 경험 안에서 해소되고 상담을 다시 해 보고자 하는 에너지가 올라오면,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로부터 경험한 충만감을 내담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진다. 수퍼바이저가 참여자들에게 본

보기 되어 주었던 모습들을 내담자에게 해주고 싶고, 실제관계 안에서 경험한 수용과 존중이 얼마나 좋은 줄 알기에, 이렇게 좋은 것을 내담자에게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귀 기울여주는 행동이 **이런 충만감을 주는 구나 그걸 느끼니까 내담자에게도 이거를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담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인 것 같 아요. (참여자 5)

그냥 좀 그게 좀 약간 상담에서 지지적인 관계가 되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한 내담자가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는 자기에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좋은 어른이 없는데 상담에서 그런 역할을 받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내담자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 수퍼바이저가 내 삶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만한 그런 좋은 어른의 역할을 좀 해준 거, 그게 '나도 상담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참여자 6)

그게 너무 좋으니까 저는 내담자에게 지시하거나 교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수용해 주려고 존중해 주려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받아봐서 너무 좋은 걸 너무 아니까 내담자에게 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3)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만나지 못함이 미안함

참여자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내담자를 다시 이해하게 된다. 내담자가 상담에서 보인 모습들 자체가 내담자의 힘듦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동안 있는 그대로 내담자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한다. 한 참여자는(참여자 4) 자신의 화로 인해서 내담자를 제대로 보고있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화가 걷히니 자신이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진심으로 가졌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상담에서 해주어야 할 것이 명확해졌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한 다는 상식 안에서 자꾸 내담자를 보았고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왜 내담자가 상식선에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시 하게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딱 풀었을 때 내담자가 이렇게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 있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아무도 봐준 어른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미안해지고 하면서 되게 아 나는 조금 다른 타인이 되고 싶다 다른 타인이 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동기도 생기고 되게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내가 약간 화 때문에 묻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내담자가 좀 안쓰러웠지.. 나도 내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 그러려면 내가 내담자한테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의 화 때문에 아직 그걸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참여자 4)

(4) 누그러진 마음으로 생긴 마음의 여백에 내담자를 다시 담게 됨

실제관계 경험은 참여자들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역전이를 회복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니 내담자를 만나기 힘들었는데, 마치 상담처럼 수퍼바이저가 감정을살펴주시고 다루어 주셔서 마음에 꽉 차있던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시작했다. 감정이 해소되고 다시 내담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상담에서무엇을 놓쳤는지 보였다. 한 참여자는 감당이 안 되었던 내담자에 대한감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나중에는 자신이 들었던 감정에 대해 내담자와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참여자 1).

수퍼바이저가 저한테 '선생님은 ~하게 이야기했지만, 내담자한테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도한 건그게 아닌데, 만약에 ~한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해주시니까 그 때 그 내담자에 대한 화도 약간 누그러지는 게 제가 좀 느껴졌고 케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담자에게 내가 이걸 못해줬 구나 화를 내가 같이 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를 조금 더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참여자 4)

처음에는 제 감정을 묻고 그다음에 이 내담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작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감정들이 좀 해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도 해소가되고, 내담자를 이해하게 되면서도 해소가 돼서.. 그거를 이렇게 좀 담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가능한 수준으로 처음에는 이게 뭔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나중에는 내담자랑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5) 내가 체험한 실제관계를 내담자와 함께 함

참여자들이 수퍼바이저와 경험했던 실제관계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이 수퍼바이저와 경험한 따뜻하고 좋았던 것들이 상담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었다. 한참여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수퍼바이저와 비슷한 행동과 표정들이 반영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참여자 2). 수퍼비전에서 실제로 체득된 것들이라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자신의 상담에 묻어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참여자 4). 내담자에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설명해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행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 그것의 효과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말들과 행동과 표정들이 저도 모르게 그 상담관계에서 제가 내담자한테 그 모습을 똑같이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확실히 상담관계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좀 더 빠르게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받아본 경험을 하니까 되게 체득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버릇처럼 나오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수퍼바이저의 그 태도가 저한테서 조금씩 조금씩 묻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제 안에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 해줘야 한다.' 이런 게 조금 좀 많이 줄고, 옛날보다는 좀 끊을 수 있는 게 되었다는 느낌도 들어요. (중략) 상담에서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내담자에게 다 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지는 느낌.. 수퍼바이저의 여유가 나에게도 묻어나는 느낌인 거 같아요. (참여자 3)

수퍼바이저에게 경험되어진 따뜻함, 이런게 있으니까 내담자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준다고 내담자가 풀릴까? 이런 이제의문이 저에게도 있었다면, 수퍼바이저 선생님이 안심시켜주는 부분들이그냥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 주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체험적으로. (참여자 4)

7) 상담사로서 나의 확장

참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은 참여자들의 상담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자신을 조금씩더 믿으면서 주도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내가 하는 상담이 내담자에게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과 여유가 생긴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은 더 알 것같다. 나라는 상담사로서 임하면서 상담에서 조금 더 자신있게 새로운시도를 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에서 체험된 수용은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넘어, 내담자 자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러

한 변화는 내담자에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1) 나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됨

참여자들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 후에 자신의 상담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개입을 더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고 막막한 기분에서 조금씩 벗어나 나를 좀 더 신뢰하면서 상담을 해나갈 수 있었 다. 안될 것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성장 과정 안에서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참여자 9), 상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특성을 살린 '나만의 상담'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참여자 3).

그래서 이 수퍼바이저랑 관계하면 할수록 내가 더 이제 뭔가 분리가 되나? 그래서 더 나로서 더 찾고 싶은 건가? 좀 이런.. 왜냐하면 더 관계하면 할수록 더 내가 발견되어지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수용적이게 되고, 그냥 이 정도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 정도도 괜찮으면, 굳이 제2의 누구누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도나로서 내 거를 찾으면서, (중략) 나로서 어떤 나의 특징? 나의 어떤 고유성? 나의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어..그런 모습으로 있고 싶은가 봐요. (참여자 3)

여전히 모르는 것들은 많지만 내가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좀 길이 어렴풋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에 길을 잃은 것 같은 그 느낌에서 벗어나 좀 자기 신뢰를 하면서 상담을 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참여자 2)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자신감은 조금씩 붙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전에는 내가 말하는 게 다 엉망이다 이러면서 되게 자책감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해진 느낌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사람한테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도움은 된다라는 걸 좀 확신을 갖

게 되는 지점에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상담에 약간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유도 좀 생기고 용기도 좀 생기고 저는 약간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항상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이 과정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도전도 해보고 또 실패하면 옛날에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여유가 좀 생긴 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 그게 굉장히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참여자 9)

(2) 상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됨

실제관계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상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었다. 수퍼비전에서 배웠던 것을 머리로만 알거나 마음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닌, 상담에서 직접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상담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른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려고 실험을 하였고(참여자 6), 몇몇 참여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더 귀 기울이고 개방하여 상담에서 활용하는 재료로 삼기도 하였다(참여자 1, 2).

내가 망치고 뭘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힘이 생기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좀 안 해보던 걸 해볼 수도 있고 내 감정을 개방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안심하고 좀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좀 상담 자체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2)

내담자한테 뭔가 저런 감정을 오히려 좀 이렇게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런 걸 활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맞겠구나. 그거를 내가 더 이렇게 좀 귀 기울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모델링같이 좀 할 수 있었던, 좀 속 시원하기도 했던 것 같고.. (중략) 뭔가 그걸좀 솔직하게 이렇게 내담자랑도 얘기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뭐 이런 감정이 느껴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좀 말할 수 있게끔도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약간 상담 용어로 정상화. 정상적인 거야 그렇게 좀 해 주는 그런 경험인 것 같고.. 실제관계 경험이라는 게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상담자로서 이렇게 안 하던 것 그리고 수퍼바이저가 권하던 것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상담하면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하지 않았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중략) 이렇게 상담에 적용하려고 조금 더 이렇게 살갑게도 해보고 좀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웃음) 개인적으로 좀 더 살갑게 이렇게 막 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노력.. 변화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3) 내담자의 문제보다 내담자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상담을 하게 됨

수퍼바이저와의 진솔한 만남은 참여자들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도왔을 뿐 아니라 내담자를 그 자체로 바라보게 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내담자가 가지고 온 호소 문제를 넘어서 지금 내담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관심이 가고, 상담에서 만나고 있을 때 내담자의 말과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된다. 한 참여자는 내담자를 앞에 두고들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걷히고 자신 안에 전달되는 내담자의 상태에 대해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참여자 4).

아까 내담자를 만나면서 좀 자세가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담자가 말하는 그런 문제 이상으로 그냥 내담자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게 좀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 (중략) 그냥 내담자가 호소하는 이 문제를 넘어서 내담자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어떻게 뭘 좋아하나 뭐 그런 되게 일상적인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저는 이런 수퍼비전을 한 뒤에 이 후에 진행되는 상담들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느꼈거든

요. 실제로 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내 마음이 좀 공감된다고 느끼고 위로받는다고 느꼈을 때 상담실에 가서도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느낀 것 같아요. (참여자 5)

좀 더 제 안에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부분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담자에게 더 집중이 잘 되는? 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느낌이지? 이것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내담자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내담자의 말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한 사람그 내담자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 이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상담에서 여러 가지 스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을 깊게 이해해 주는 그 만남? (참여자 9)

2.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일반적 구조

참여자의 체험 결과를 기술하는 현상학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것이다(Giorgi, 1985). 앞서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추출된 의미 단위들을 통합하고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여 경험의 핵심 구성요소와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통찰을 기반으로 경험에 대한 심리학적 구조에 대해 일반적 구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일반적 구조는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Giorgi, 1997). 이에 본 절에서는 앞 절에 제시한 구성요소와 의미를 중심으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구조를 통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일반적 구조 제시를 위해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를 1) 실제관계를 위한 준비, 2) 실제관계 체험, 3) 실제관계 적용, 4) 실제관계 경험의 확

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 그림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제관계를 위한 준비

실제관계를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과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존중'이다. 실제관계를 위한 준비는 실제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경험이다. 실제관계의 핵심 적 체험을 이끄는 바탕이 되는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서로에 대해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보려는 모습에서 실제관계의 실체성이 드러난다. 수퍼비전이 진행되기 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의 노력이 잘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에 대해 상담 전문가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궁금해한다. 수퍼바이저들은 참여자들을 판단하거나 진행한 상담에 대해 단정하지 않고, 먼저 의견을 묻거나 감정을 살피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수퍼바이저의 모습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수퍼바이저의 진심을 경험한다. 수퍼비전에서 실체성이 바탕이 되는 상호작용은 Buber(1958)의나-너 관계에서의 대화적 상호작용(dialogical interaction)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상호적 대화에 바탕이 되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진정한 만남을 이끌어낸다.

실제관계를 위한 상호적 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특별히 수퍼바이저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존중은 수퍼바이지를 역할 이전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대하는 수퍼바이저의 인간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가 포함된다. 참여자들이 받은 인간적배려와 존중은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수퍼바이저의 모습에서만 나타난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엄격하게 혼이 나더라도 그 행동들에 내재된 참여자를 위한 수퍼바이저의 진심 어린 애정을 경험한 것에 가까웠다.

2) 실제관계 체험

'평가에서 점점 자유로워짐'과 '배움을 위해 용기 있게 나를 드러 냄'은 실제관계의 핵심적 체험에 해당된다. 참여자들이 평가나 비난에 대한 걱정을 무릅쓰고 배우기 위해 용기 있게 자신의 상담(상담에서의 기술적 측면, 상담에서의 내적 경험 등)을 내보이는 경험을 하고, 수퍼바 이저는 이런 수퍼바이지를 지지하며 상담 안에서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게 촉진한다. 용기있게 나를 드러내보고, 수용을 받는 경험을 통해 수 퍼바이지는 평가라는 인식에서 점차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드 러낼 수 있게 된다.

실제관계 체험에서 실체성은 수퍼바이지가 평가에서 점점 자유로워지 는 과정을 통해 점차 강화되어 간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수퍼비전을 평 가를 받는 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실제관계 경 험 안에서 서서히 옅어졌다. 수퍼비전은 평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 관계에서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권력의 차이가 존재한다(Bernard & Goodyear, 2003).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 수퍼바 이저의 역할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 부각이 되거나, 그것을 넘어서 권력 을 남용하는 역할로 관계를 맺게 되면 온전한 수퍼비전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수퍼바이저의 과도한 평가자 역할로 인해 온전한 수퍼비 전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 수퍼바이지들은 자신 이 가진 평가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실제보다는 과하게 수퍼바이저에 대 해 비판하고 무섭고 혼을 내는 존재로 바라보기도 한다. 수퍼바이지들은 실제관계 안에서 자신 안에 있던 평가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수퍼바이 저와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 수퍼바이저를 동등 하거나 수평적인 관계로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직적인 관 계로 인식하지만, 권력이나 평가적 인식을 기반으로 수퍼바이저와의 관 '권위주의'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큰 어른, 멘토와 같은 측면 계를 '귄위'있는 수직적 관계 경험을 하였다.』이것은 수퍼비전 관계

¹⁾ 권위(authority)는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으로

에서의 실체성의 모습이며, 실체성이 강화됨에 따라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를 믿고 조금 더 의지하며 자신을 내보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관계 체험에서 진정성은 수퍼바이지가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진정성이 상담과정에 도움이 되는 원인이 자 결과로 여겨지는 것처럼(Gelso, 2011), 수퍼바이지의 진정성도 수퍼비 전에 도움이 되는 원인이자 결과로 볼 수 있다. 원인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자들이 배움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잘하지 못한 상담을 드러냄으로 써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되고 성장한다. 즉, 드러냄은 수퍼바이지의 배 움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수퍼비전의 효과를 높 이는데 원인이 된 것이다. 결과의 측면은 참여자들의 진정성 확장으로 포착된다. 수퍼바이지의 진정성을 내담자의 진정성과 유사하게 생각한다 면, 진정성은 내면 경험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수퍼바이저와 소통하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Gelso, 2011). 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상담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깊이 인식한 후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자신의 상담 과정을 수퍼바아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 고 소통함으로써 상담 안에서의 자기 경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 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으로 서며 진정 성을 확장하는 경험이 되었다.

3) 실제관계 적용

실제관계 적용은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이 참여자가 자신의 상 담을 바라보는데 미친 영향과 더 나아가 내담자와의 관계에도 어떻게 적 용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다. 핵심 구성요소 중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봄'과 '실제관계가 상담관계로 전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봄'은 참여자들이 수퍼비전에 가지고 간 자신

정의되며, 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이동순, 송도선, 2015).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는 권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합리성 없이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신념이나 행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태도이다(최병태, 2008). 즉, 권위는 자발적인 것에 비해 권위주의는 외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상담을 왜곡되거나 편협한 시선으로 보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담을 조금 더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자신의 상담에 대해서 부족하고 잘하지 못한 부분만 주로 보였던 것이 점차 나 의 강점과 성장한 부분까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측면은 자신을 한 측면으로만 편협하게 바라보았던 것에서 조금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모습으로 실체성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상담 안에서 드러난 나의 고유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상담에서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된다. 더 나아가 상담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게 된다.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하 고, 나의 경험을 존중하게 되는 모습에서 진정성의 측면이 드러난다.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은 상담관계로 전이된다. 실제관계 경험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담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진정성을 회복하고 실체성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피하고 있던 불편함을 마주하며 상담관계에서의 진정성을 회복하였으며, 내담자를 전보다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내담자와의 실제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로 보고된 것은 내담자에 대한 소진을 극복하고 다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이다. 이는 수용전념치료의 수용-기반 개입 효과원리와 유사하다. 수용-기반 개입의 원리는 회피하고자 했던 내적 경험을 충분히 체험하는 과정을통해, 그 경험이 두려워하는 만큼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함으로써 그 경험을 피하느라 사용했던 노력을 줄여 더 생산적인 측면에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Cordova & Kohlenberg, 1994).

참여자들은 수용-기반 개입에서 언급하는 내적 경험의 있는 그대로의 충분한 체험과정(이아라, 2013)을 통해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내담자에 대한 미움, 화, 수치심들을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 이는 내담자에 대한 진정성이 강화되는 측면이다. 충분한 경험은 스스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는 과정으로 변하며, 그런 마음에 담긴 개인적 의미를 돌아보며 변화를 경험한다(Greenberg, 2010). 이때 참여자들이 내담자에 대해 느끼는 진정성에 대해 수용적이고 공감적으로 지지하는 수퍼바이저의 태도는 참여자

들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기 충분한 시간동안 그 감정에 머물도록 촉진한다. 부정적 감정을 수용한 결과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고, 다시 그 내담자를 마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소진되었던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마음의 과정을 통해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을 점차 내담자와도 함께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의 모습들이 자신에게 묻어나 비슷하게 내담자를 대하게 되었으며, 확실히 이전보다 상담관계가더 단단해지고 좀 더 빠르게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에서 체험되었던 경험들이 상담관계에서도 재현되는 병렬과정(parallel process)현상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실제관계 경험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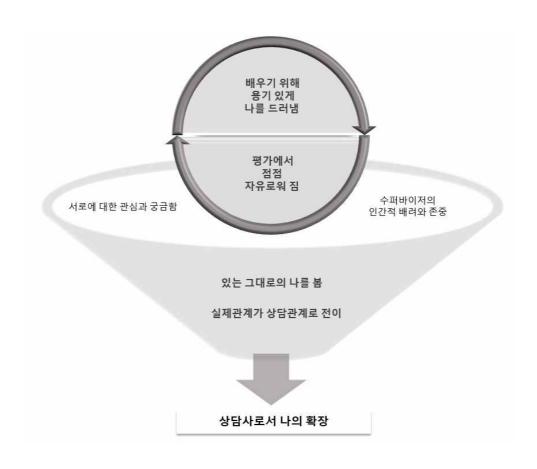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상담사로서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핵심 구성요소 중 '상담사로서 나의 확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관계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험들은 수퍼비전에서 다루어진 상담사례와 이후 해당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실제관계 경험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실제관계 확장은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상담과 상담사로서의 성장과 더 관련이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실제관계 경험은 참여자들의 실체성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담자의 호소에서 드러나는 문제에만 몰두하기보다 내 담자 자체를 이해하려는 변화이다.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상담실에 들어 온 문제나 그 문제로 인한 판단이나 선입견을 넘어서 내담자의 삶과 관 심사 등을 살피며 내담자 자체를 탐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 가서 상담 장면에서도 현재 내담자가 보이는 말과 마음, 행동에 더욱 집 중하게 되었다. 내담자를 온전하게 만나려고 하는 것은 실제관계에 관한 상담사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본 진보겸 등(2019)의 연구에서 상담사의 것을 배제하고 비판단적으로 내담자를 인식하는 것이 실제관계 경험의 중요한 결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즉, 수퍼비전에서의 실제 관계 경험이 상담관계의 실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측면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관계 경험 후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담에서 진정성이 확장된 모습을 보였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신뢰하면서 상담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퍼비전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수퍼바이저로부터 독립적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Heppener & Rohlke, 1984)과 자율성(Ellis, 1991)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의 상담에 대한 자신감은 상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새로운 시도는 그동안 피해왔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개방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자신이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내담자에게 개방하기도 하고 상담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도 진정성 확장이자 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담사의 진정성은 개인 내적인 경험 차원에서 머무르기보다 그것을 꺼내어표현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홍지선, 2018), 참여자들의 감정 개방은 더욱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진정성의 표현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심리적 강인성(psychological hardness)이 있을 때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지선, 2018). 참여자들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힘이 생겨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했는데, 이는 실제관계 경험이 심리적 강인성향상에 이바지하여 상담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촉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1)-4)에 제시한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요약하여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

Ⅴ. 논의

본 연구는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9명의 참여자의 진술과 6명의 참여자의 FGI의 내용에 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7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28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수퍼바이지의 실제관제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본 장의전반부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실제관계 경험을 1)실제관계의 개념적 특성, 2)수퍼비전에서 나타나는 실제관계의 특성, 3)실제관계 경험의 학습과 상담관계로의 확장, 4)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되는 실제관계로 나누어 선행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후반부에서는 상담사 교육 및 상담 수퍼비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1) 실제관계의 개념적 특성

실제관계는 관계의 맥락이나 내용을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최한나, 2010), 맥락이 다양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실제관계 특성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항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실제관계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유사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드러난 실제관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를 배려하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며, 수퍼바이저와의 인간적 관계경험은 수퍼비전 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간적 자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박영현, 2022; 오은화, 조양희, 2021). 또한 수퍼바이지들이 수퍼바이저로부터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에 더해 정서적 지지와 공감, 인정과 수용이 함께 이루어진 수퍼비전을 더 만족스럽게 지각(이두희 장유진, 2019; 지승희외, 2014)했다는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 수퍼바이지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들의 비개방을 촉진하고, 회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Gray et al., 2001).

이러한 측면은 상담에서 내담자의 실제관계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포착된다. 내담자의 실제관계 경험을 살펴본 주은선과 박영현(2020)의 연구에서도 내담자들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이해해 주는 상담사와의 만남을 실제관계 경험으로 보고하였다. 수퍼바이저와 인간적 관계 경험이 수퍼비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도 내담자들이 상담사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경험이 강할 때상담 효과를 깊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유지영 외, 2018)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밖에 실제관계에 대한 상담사의 인식을 탐색해 본 연구에서도 상담사들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존재로서 상호작용하는 것을실제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화진, 2014). 이는 수퍼비전과상담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의 유사성은 맥락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경험되는 실제관계의 개념적 특성이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수퍼바이저와 인간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수퍼비전의 특징을 반영한다. 국내의 수퍼비전은 기술과 학습을 넘어서 숙련자의 정체성, 가치 등을 함께 전수하는 단순한 교육자-학습자 관계 이상의 관계맺음을 기반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권혜영, 조은숙, 2020; 손승희, 2005; 조윤진 외, 2014). 이러한 형태의관계에서는 숙련자의 인간적 자질이나 인간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인성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이 더 중요하게 드러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내담자

가 서구에서 말하는 상담관계보다는 정서적으로 좀 더 사적인 측면을 실 제관계로 여긴다는 국내의 실제관계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이수정, 2017).

둘째,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상호작용은 서로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유하는 상호주관적 특징이 있다.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상대방의 주관적 경험을 인정하며, 서로의 주관적 세계에 참여하면서함께 공유하는 것이다(Stern, 1985). 이러한 모습은 연구참여자가 보고한수퍼비전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기준으로 수퍼바이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수퍼바이지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하는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다.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수퍼바이저의 가르침을 듣는다. 연구참여자의 진술 중 일부를 요약하여 예를 들면, 수퍼바이저가 공감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공감은 모두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지 않고, '모두 그렇게 말하지만, 너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태도로 수퍼바이지의 주관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객관성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닌 수퍼바이지의 주관적경험을 바꾸려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주관적 세계에 참여하고, 함께 있으며,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관계주의 이론가들이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실제관계 의미를 규명해온 것과 유사한 측면이다(Frank, 2005; Wallin, 2007). 상담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실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상호주관적 특성이 나타났다. 먼저 실제관계에 대한 상담사의 인식을 탐색한 조화진(2014)의 연구에서 상담사는 실제관계를 '관여와 깊이'와 '힘의동등성'차원으로 구분하여 '내담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투명한상호작용', '상담사와 내담자의 유사한 감정을 나누기', '유대감과소통', '내담자의 사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관여', '현실이고 인간적인 존재로서 상호작용'의 6개 군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사의 진솔성, 상호주관성, 공감, 즉시성이 기존의 실제관계 개념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실제관계 인식을 살펴본 이수정(2017)의

연구에서도 내담자는 실제관계에 대해서 정서적 유대-전문적 개입, 내담자 수용-상호인정으로 관여와 상호작용의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상호인정의 측면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실제관계의 상호주관적 상호작용과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바이지에게 치료적 관계 경험으로 체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퍼비전에서 상담진행이 어려운 내담자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다루어져 해소되는 것을 실제관계로 경험했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에게 내담자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감을받는 과정을 통해 '이렇게 느껴도 괜찮은 거구나'라고 느끼며 자기감정을 타당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상담에서 내담자에게도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관계는 그 경험 자체가 변화를가져오는 속성을 지닌 치료적 기능이 있는데(Gelso & Hayes, 1998),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면 수퍼비전에서도 치료적 관계 경험이 일어난 것으로볼 수 있다. 이는 상담 안에서 내담자가 상담사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방법을 찾고, 상담사 이외의 관계에서 관계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실제관계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이수정, 2017)와 유사한측면이다.

치료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본 김영근(2016)의 연구에서 상담사의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가 자기(self)를 온전히 이해하고 진실한 자신을 만날수 있게 하고, 그 결과 내담자는 자신의 실현 경향성(feasibility)에 따라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일 수 있는 진정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온전한 자기와 타인을 만나는 진정성을 경험하게 되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관계를 시도해 볼 수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와의관계에서 나 자신일 수 있는 진정성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어가는 실체성 회복과정과 유사하다.

2) 수퍼비전에서 나타나는 실제관계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제관계의 본질적 특성 이외에 수퍼비전 장면에서 독특하게 보여지는 실제관계 경험과 특성이 나타났다. 특별히 실제관계에서 수퍼바이지의 진정성이 실체성에 비해 중요하게 부각되어 나타났다. 본 항에서는 수퍼비전 실제관계에서 독특하게 구현된 진정성과 실체성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수퍼바이지들은 평가에 대한 인식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관계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진정성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에서의 가짜가 아닌 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드러내는 진정성(최한나, 2011)과 수퍼비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진정성은 본질은 유사하지만 구현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참여자가 수퍼비전에서 힘들지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냈다고 보고한 경험을 보면, 사례에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모르는 지점, 못하고 망한 상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상담 등으로, 대부분 자신의 상담사례와 내담자에 대한 감정, 상담에서의 부족함이나 실수들이며 수퍼비전에서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반면, 상담에서 실제관계의 진정성은 한 인간(개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가깝다. 그 이유는 상담이 주안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이내담자 삶 전반의 생활세계이기 때문이고,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지의 생활세계 중 특별히 상담사례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퍼비전이라는 구조상 수퍼비전 관계가 단순히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닌 상담사례가 매개로 있는 삼자관계이기 때문에, 상담사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더 가깝다. 물론, 수퍼바이저를 만남에 있어 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고, 상담에서의 실제관계에서처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그것이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의 핵심이라기 보다, 자신의 상담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상담사로서 부족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수퍼비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진정성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면담에서 참여자들에게 '역할이나 맥락을 넘어서서 인간 대 인 간으로 수퍼바이저를 만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의아해하 거나 갸우뚱한 경우들이 있었다. 추후 면담을 진행하면서, 질문 자체가 애초 수퍼비전이라는 맥락을 간과했다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 한 시행착오는 실제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 다고 판단하여 추후 면담을 진행하는 데는 이러한 점들을 다시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수퍼바이지들의 배움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유능감 향상에 대한 동기는 수퍼비전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상담에서 잘하지 못한 부분까지 드러내는 진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퍼바이지들이 유능한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것을 수퍼비전의 긍정적 의미로여긴다는 이현진과 김명찬(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아직 수퍼바이지의 동기와 수퍼비전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동기는 수퍼바이지가 자기개방, 자기 탐색, 실천과 같은 수퍼비전 효과를 촉진하는 행동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수퍼비전 효과를 촉진하는 여러 행동 중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은 상담에서의 실수를 예방하고 수퍼비전 과정을 촉진하는 수퍼비전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박진희, 유미숙, 2011). 본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상담을 드러낸 것'은 자기개방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자기개방을 촉진한 것으로도 볼 수있다.

이는 자기개방과 수퍼비전 성과의 관계에서 수퍼바이지의 동기가 조절 변인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전문적 성장을 위한 동기 보다 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수련 회기를 위해 수퍼비전에 참여하 는 경우 수퍼비전에 형식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개방을 하기보다는 방어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안미 경, 김봉환, 2017). 배움과 성장에 대한 동기가 결여된 경우, 수퍼비전 효과를 창출하는 촉진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잘 배우기 위한 수련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내보였던 것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서 수퍼바이저의 역할과 태도가 강조되어 온 것(Watkins, 2011, 2012)과는 달리 수퍼바이지도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태도로 실제관계를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퍼바이지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바탕이 되어 실제관계 경험이 무르익어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본 연구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의미있는 현상이라고 여겨지며, 따라서 추후 수퍼바이지의 태도나 동기등 수퍼바이지의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수퍼바이지들이 경험한 실제관계는 온전히 수퍼바이저를 동등하거나 수평적인 관계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하지만, 권력이나 평가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큰 어른, 멘토와 같은 측면으로 수직적 관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은 특성상 평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퍼비전 관계에서 수퍼바이저와 권력 차이를 보이며(Bernard & Goodyear, 2003),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본다고 알려져 있다(김진숙, 2006; 방기연, 2006). 연구에 참여한 수퍼바이지들이 여전히 수직적 관계로서 수퍼비전 관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나, 수직적 관계에서의 평가나 권력 차이로 인해 수퍼바이지가 긴장과 불안이 유발된다는 선행연구(Quek & Storm 2012; Shim 2002)의 결과와는 매우 다른모습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직적 관계에서 긴장과 불안을 경험했다기보다, 수퍼바이저를 나보다 경험이 많은 큰 어른으로서 바라보았으며 뒷배같은 든든함과 신뢰를 경험했다.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는 평가나 권력이 아닌 긍정적 위계의 형태라 하더라도 위계적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서 경험되지는 않는다는 측면은

상담에서 실제관계와 매우 다른 측면이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실제관계 경험을 살펴본 주은선과 박영현(2020)의 연구에서 내담자들은 상담사와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한 관계로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Gelso 등(2005)의 연구에서도 상담사와 내담자는 실제관계 안에서 역할을 넘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 듯 상담에서의 실제관계는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와 매우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는 상담과 수퍼비전이라는 맥락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가 갖는 실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최한나와 김창대(2008)의 연구에서 수퍼바이지들이 좋은 수퍼비전에 대해 대인관계 초점만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도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수퍼비전 실제 관계의 실체성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관계는 서양에서 개 념화되고 연구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지속되어 왔다(조화진, 2016; Mitchell, 1988; Renik, 1996). 마찬가지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도 문 화적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많이 수용하고 있지만(임희섭, 1994), 여전히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가 남아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도 수직적 질서에 바탕을 둔 교류행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규석, 신수진, 1999).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한국 문화의 관계적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더 수직적이고 위계적으로 인식되는 수퍼비전 관계에서(Killian, 2001; Quek & Storm 2012; Shim 2002) 실제관계 경험은 권력적, 권위주의적 수직관계에서 큰 어른, 멘토와 같은 긍정적 위계관계로의 인식 변화는 있을지라도 수직적 관계는 중요한 형태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의 수퍼비전에서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동등하고 수평한 관계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 위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3) 실제관계 경험의 학습과 상담관계로의 확장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통해 실제관계 형성과 구축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상담관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실제관계 선행연구에서 주로 실제관계의 치료적기능이 강조되어 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수퍼비전 실제관계에서 독특하게 발견된 점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실제관계 학습과 확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바이지들은 실제관계를 체험적으로 습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감각적이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고하였다.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 자체가 배움이 되고 체득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론을 가르치는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과는 차이가있다.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실제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만감, 온전함, 수용 받음 등으로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은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진정성의 확인이라고도 할 수있다. 진정성의 확인과 확장의 경험이 내면화(internalization)되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상담에까지 드러난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에 참여한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상담의 재료로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수퍼비전에서 경험한 진정성 체험이 수퍼바이지의 상담에서 발현된 예시를 찾아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 후,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하려고 애썼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담자의 경험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대한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지만(Rogers, 1972), 그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주관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주관을 이해하고 서로 공유영역을 넓혀가는 상호주관성(김윤옥, 2007)에 입각하여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갔다 즉, 상담사가 내담자의 주관에 더 초점

을 두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상담사의 진정성을 활용하여 내담 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나 활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거나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그것이 몸에 습득되는 것을 말한다(고미숙, 2006).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암묵적 학습(Reber, 1967)과도 유사하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암시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Schon, 1983). 이러한 맥락에서, 수퍼비전은 실제관계 교육의 장(field)이었으며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구축 역량을 키우는 체험적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저와 실제관계 경험을 학습하고 내담자와의 상담관계로 확장하였다. 먼저 수퍼바이지들은 실제관계에서 경험한수퍼바이저의 태도나 행동을 자신의 상담에서 모델링하였다. 모델링 (modeling)은 대리적 경험을 통한 대표적 학습경험 중 하나이다(Bandura, 1986). 참여자들은 실제관계에서 경험한 수퍼바이저의 태도나 행동들이자신의 상담에서 묻어났다고 보고했으며, 의식하고 노력했다기 보다는 '내가 받아 본 경험이라 아니까'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것 같다고하였다. 이는 수퍼비전에서의 공감, 존중 등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한수퍼바이지가 자신의 상담에서 수퍼바이저와 동일한 태도로 내담자를 대하게 되는 모델링의 과정이 드러난 것이다(방기연, 2006; 엄은숙, 2019). 앞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수퍼바이저의 인간적인 태도와 배려와 존중하는 행동이 수퍼비전 실제관계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퍼바이지들이 그러한 태도를 그대로 모델링하여 자신의 상담관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담자와의 실제관계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자신의 상담에서 내담자와 유사하게 재현하였다. 이는 병렬과정의 형태로 실제관계에대한 교육과 학습이 일어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병렬과정은 정신역동과 대상관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Searles(1955)가 처음으로 언

급한 개념으로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관계 또는 수퍼바이저와 상담사 간의 관계가 이후의 수퍼비전 장면 또는 상담 장면에서 실연(enactment)되는 현상이다(Bernard & Goodyear, 2019).

실제관계 학습의 확장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수퍼바이저와 상담사 간의 관계가 이후 상담 장면에 드러난 현상에 해당한다. 수퍼비전에서의 관계가 상담 장면에 재현이 되는 병렬과정은 Doehman(1976)에 의해서 제시된 역병렬 과정(reverse parallel process)이다. 기존의 전통적인병렬과정이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의 경험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관계에 전달되는 상향식 이동만을 언급했다면(Searles, 1955), 역병렬 과정은 병렬 과정을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으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관계에서의 경험이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에 전달되는 하향식 이동을 의미한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와 경험한 불안이이후 수퍼바이지와 내담자와의 관계와 정서경험과 연관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Doehrman, 1976),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진행 방식이나 관계 특성들이 이후 수퍼바이지의 상담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riedlander et al., 1989).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수퍼비전에서의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이 상담사와 내담자관계에 전달되는 현상을 지지한다.

특별히 본 연구의 결과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병렬과정이 교육적 맥락에서 보여졌기 때문이다. 즉, 병렬과정은 체험적으로 학습된 실제관계가 다른 맥락인 상담관계에서 학습의 결과로 구현되는 과정으로해석할 수 있다. 병렬과정은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도 병렬과정은 유용성 입증을 위한 실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로인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윤성근, 양은주,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본연구에서 수퍼비전의 실제관계가 상담에서의 실제관계로 실연됨을 밝혀낸 것은 병렬과정의 교육적 현상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결과로서매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 결과는 실제관계 실연의 가능성을 처음 드러낸 것이므로 더 적극적으로 수퍼비전 실제관계의 병렬과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관계의 역동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필

요할 것이다.

4)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되는 실제관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실제관계의 사전적 정의는 "두 사람 혹은 그이상의 사람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각자가 상대방에게 진실하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관계"이다(Gelso, 2004). 이러한 실제관계개념은 실제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에 대한 크기(magnitude)와 매우 궁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정서의 범위를 갖는다는 반응가(valence)에의해서 더욱 정교화 되었다. 즉, 상대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거나, 부정적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도 실제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최한나, 2010).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참여자들은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에 대해서 궁정적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현상은 기존의 실제관계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usserl이 주장한 '사태로 돌아가라'는 현상학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퍼바이지들이 체험적으로 보고하는 실제관계 경험 그 자체(사태)가 실제관계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연구에 참여한 수퍼바이지들은 실제관계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관계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관계 현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이 실제관계 개념의 사전적 정의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개인이 처한 맥락과 주변 현상에 대해 들여다보며무엇이 긍정적 경험에 더 초점이 되어 실제관계 경험을 보게 하였는지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저에 대해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박영현, 2022; 오은화, 조양희, 2021), 지지와 공감, 인정과 수용이 함께 이루어진 수퍼비전을 더 만족스

럽게 지각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두희, 장유진, 2019; 지승희 외, 2014). 같은 맥락에서 수퍼바이지들은 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대인민감성이 높은 수퍼비전 스타일을 더 만족스럽게 지각한다고 보고 되어오고 있다(손승희, 2004; 이승은, 정남운, 2003). 수퍼바이저와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지들의 기대는 실제관계 경험을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서구의 문화보다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적인 측면과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수퍼비전 관계에서 한국 수퍼바이지들이 미국 문화권의 수퍼바이지들보다 수퍼비전 관계를 보다 평가적이고 위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어(Killian, 2001) 수퍼바이저를 만날 때 더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Quak & Storm, 2021, Shim, 2002). 관계적 측면이 중요한 만큼, 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맥락도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퍼비전에서 부정적인 실제관계를 경험한 경우, 해당 수퍼비전은 지속되기보다 조기에 종결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실제관계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지만, 상담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실제관계 경험을 한 상담사들은 다른 수퍼바이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적 실제관계 경험의 탐색이 어려울 수 있다. 더 아나가 수퍼비전 성과 혹은 좋은 수퍼비전 관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수퍼비전에 초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실제관계 탐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실제관계에 대한 의미 설명과 표현이 긍정적 경험을 떠오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Gelso(2004)가 실제관계 개념설명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추가한 크기(magnitude)와 반응가(valence) 개념 중 특히 '실제관계의 정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매우 부정적인 정서의 범위를 갖는다'는 반응가에 대한 내용은 실제관계의 경험적 연구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관계 자체가 다소 긍정적인 뉘앙스로 설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실제관계 척도가 개발되기 전 처음으로 실제관계 구인을 측정하 려고 했던 Eugster와 Wampold(1996)는 Carter와 Gelso(1985, 1994)가 개 념화한 실제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사와 내담자의 실제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담사의 실제관계를 "내담자를 좋아함, 투명성, 개방하는 정도를 통해 나타나는 상담사의 자발적인 의지로, 엄격하게 역할 정의와 대비된 있는 그대로 또는 자연히 일어나는 행동"으로 설명하였고, 내담 자의 실제관계를 "내담자가 상담사를 좋아하는 정서에 초점이 되며, 그 정서는 개인적인 방식에서 연결된 것으로 진정한 또는 진심 있는 태도와 관련 있음" 등으로 설명하였다(유지영, 2015 재인용). 이 설명은 실제관 계의 하위요인 중 실체성 요인이 배제되고 진정성 요인의 특징만 담겼다 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초기 실제관계 개념을 설명한 방식을 살펴보기 에는 유용하다. Horvath(2009)는 실제관계 개념을 타인에 대한 민감성,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 인간적인 따뜻함, 성실함, 관대함, 친절함 등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좋아함', '좋아하는 정서', '따 뜻함', '친절함' 등은 실제관계를 궁 · 부정 정서의 중립보다는 긍정 적 뉘앙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후 개발된 상담사용 실제관계 척도(Gelso et al., 2005)와 내담자용 실제관계 척도(Kelly at al., 2007)의 문항들은 대체로 중립적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제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사용 실제관계 척도의 '내담자는 "실제의 나"에게 호감을 느낀다', '내담자는 나에 대한 그의/그녀의 긍정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내담자는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한다'의 문항들과 내담자용 실제관계 척도의 '상담사는 실제의 나를 좋아했다'등의 문항들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에 치우쳐 실제관계를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관계 개념과 용어가 갖는 이러한 이유로 참여자들이 실제관계 경험을 떠올릴 때 긍정적 경험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뷰 문항 구성은 기존의 실제관계 개념에 대한 이론과 척도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면담 상황에서도 강렬했던 부정적

경험을 떠올리기에 다소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과 선이해를 성찰하고 배제하려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와 일부 유사하게 나온 연구 결과들이 있다. 특별히, 연구자의 선이해 중 돌봄이나 수용 경험, 아끼고 신경 써 줌 등의 긍정적 관계 경험과 참여자들의 실제관계 경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연구자의 선이해가 미세하게라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지만, 연구자도한 명의 수퍼바이지로서 참여자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가깝다고 보인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에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질문지 개발과정뿐 아니라 결과 도출과정에서도 전문가 검토와 멤버체킹절차를 거쳐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의 선이해가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참여자들의 경험과 연구자의 경험이 유사하게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2. 상담 수퍼비전에서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수퍼비전 및 상담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수퍼비전과 같은 교육적 장면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교육자와 학습자는 각각의 자유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상호인격적인 관계로 서로를 수단화하지 않고 나-너의 관계로 만나야 하며(Buber, 1958), 더 나아가 교육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교육자가 교육자-학습자의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학습의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실존주의 교육 관계와 유사하다(김 철, 200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 내용에 대한 수퍼바이지의이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 안전감과편안함을 느꼈다. 또한 수퍼비전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수퍼바이지들의 감정을 살피면서 조심스레 전달하는 수퍼바이저의 태도에서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고 더 적극적으로 수퍼비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협력적이고 대화적 측면을 잘 반영하며 수퍼비전에서 인간적인 관계 경험은 긍정적 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배움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제관계 경험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관계 맺음'은 수 퍼바이저의 인간적 자질이나 태도, 존중과 배려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사람에 대한 태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같은 '사람됨'과 관련이 있는 개인이 갖는 태도적 자질로서, 수퍼바이저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개인 분석 등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수퍼바이저의 교육 훈련을 구성하면서 전문적 지식 전달에 더해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격적 함양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적 요소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형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수퍼바이지가 실제관계 경험을 할 때의 수퍼바이저의 행동, 태도, 언어 등에 대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수퍼바이저들은 이를 통해 평소 자신의 수퍼비전 스타일과 태도에 대해 점검해 보고 수퍼바이지와 맺는 실제관계에대해 돌아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퍼바이지가어떠한 순간을 실제관계로 경험했는가를 살펴보며 추후 수퍼비전에서의실제관계 형성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 자체가 실제관계 '학습' 경험으로도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한다. 상담에서 실제관계는 강한 치료

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Hayes, 1998), 작업동맹 등 다른 관계 요인과 비교하였을 때도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져 오고 있다(Marmarosh et al., 2009). 이렇듯 상담에서 실제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사 교육이나 수퍼비전에서 그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칠지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을 통해 내담자와 실제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습득했다. 즉,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구현 역량이 성장한 것이다. 특별히 실제관계가 체험적으로 습득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구현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퍼바이저 자신이 다른 관계에서 경험한 실제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제관계를 체험적으로 어떻게 경험했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체험적 습득은 개개인마다 그 경험과 의미가 차이가 있으므로 수퍼바이저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자기 성찰적 과정은 수퍼바이지와의 실제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더나아가 실제관계에 대해 수퍼바이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현재 수퍼비전 관계에서 실제관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실제관계를 강화하고 약화하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체험들은 수퍼바이저들이 자신의 실제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고, 현재 실제관계 상태를 확인하는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관계가 체험적 교육으로 습득된다는 것 이외에 실제관계경험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습득이 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과 교육적 원리까지는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서는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가 습득되는 과정을 교육의 과정으로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상담 수퍼비전과정에서 실제관계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수퍼바이지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그 절차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모집하는 목적 표집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9명의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2차례 진행하였고, 면담을 진행한 9명의 참여자 중 6명과 FGI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과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Giorgi(1985)가 제시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도출되었고, 경험의 구성요소 간의 일반적 구조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은 7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28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7개의 핵심 구성요소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배려와 존중', '평가에서 점점 자유로워짐', '배우기위해 용기 있게 나를 드러냄', '있는 그대로 나를 봄', '실제관계 가상담관계로 전이', '상담사로서 나의 확장'이다.

다음으로 도출된 구성요소와 의미를 중심으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의 구조를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일반적 구조 분석결과,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서로에게 갖는 순수한 관심과 궁금증과 함께, 서로 간의 대화적 상호작용(Buber, 1958)이 기반이 되어 실제관계 체험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관계 체험의 핵심은 수퍼바이지가 평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자신을 경험하고, 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체험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지는 자신의 상담에 대해 조금 더 그 자체로 바라보고, 그 동안은 보지 못했거나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내담자와 실제관계를 강화해 나가며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을 재현하였다.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바이지가 상담사로서 성장하고 조금 더 자신있게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데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일반적 구조는 실제관계를 위한준비, 실제관계 체험, 실제관계 적용, 실제관계 경험의 확장으로 나누어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관계 경험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의 구조에대해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은 평가적 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실체성 회복과 동시에, 배우기 위해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진정성 확장의 지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체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저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관심, 자기 개방 등을 통해 수퍼바이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수퍼바이저를 평가하는 존재로만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멘토이자, 먼저 상담을 경험하고 알려주는 길라잡이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수퍼비전 실제관계에서도 기존의수퍼비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인간적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박영현, 2022; 오은화, 조양희, 2021)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실제관계 경험을 하게 하는데 수퍼바이지의 용기와 적극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저의 태도를 그대로 바라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용기 내어 자신의 상담을 드러내 보이려는 시도를 통해 자신들의 내면에자리잡고 있던 평가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내려놓는 과정을 반

복했다. 수퍼바이저가 평가자로서만 수퍼바이지 앞에 있는 것이 아닌, 멘토나 큰 어른으로서 점차 느껴지면서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 고, 그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실제관계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이러한 결과는 권력의 차이로 인한 수직적 측면이 강조되어 온 기존의 수퍼비전 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수직적 관계가 수퍼비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수퍼비전 실제관계 형성과 발달에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바이지의 주체성과 동기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존의 수퍼비전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온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수퍼비전 현장에서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 참여와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맺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으며,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관계에서의 수퍼바이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수퍼비전에 수퍼바이지들이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장(field)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퍼바이지 실제관계 경험은 그 자체가 체험적으로 학습되며 상담에서 실제관계를 재현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 경험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된 것을 몸으로 이해하여 내담자들과 함께 하게 된다. 참여자들에 따르면, 내담자와 진정성있게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떤 느낌인지어렵고 모호했는데, 수퍼바이저와의 경험을 통해 실제관계 맺음이 무엇인지 "아~하!"하며 감각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

몸의 감각이 기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경험은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이해를 도모했던 Merleau-Ponty(1945)의 '몸 철학'의 개념과 연결된다. 몸의 현상학이라고도 불리는 몸 철학에서는 의식과 감각은 항상 몸이라는 한계 속에 있으며, 따라서 지식은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의 체험, 즉 몸의 감각과 신체화된 의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Merleau-Ponty, 1945). 즉, 지식, 앎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주관하는 모든 판단에 앞서 몸의 감각을 통한 체험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정지은,

장기수, 2021).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실제관계를 알아감은 이미 알려진 실제관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통한 것이 아니다. 수퍼바이저의 몸과 표정, 음성의 지각을 통해 따뜻함과 편안함, 안정감을 경험하고 체득한 것으로 Merleau-Ponty(1945)가 주장한 체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부합하는 경험으로서 의미있게 해석이 된다. 내담자와의 실제관계 구현 또한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운 것이 아닌 몸에 새겨진 감각들이 자연스럽게 재현되었다는 점에서도 Merleau-Ponty(1945)의 몸 철학과 맞닿아 있다. 또한 정지은과 강기수(2021)가 주장한 체험이 학습자의 고유한 지식을 형성하는 근원적 역할을 한다는 몸 철학의 교육적 의의에도 부합하는 좋은 예시로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제관계가 몸의 기억으로 학습되고,다른 관계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이 밝혀져, 상담 수퍼비전 현장에서 수퍼바이지들의 관계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찰이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바이지의 상담사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지들의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비전에 가져간 상담 사례뿐 아니라 상담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내담자들과의 상담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상담사로서 조금 더 자신을 활용하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수퍼바이지들은 내담자들을 보는데 있어서 호소문제에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내담자 자체를 보거나 내담자의환경적 맥락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내담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측면들은 숙련상담사들이 내담자에 대한 인간적 관심과 깊은 애정이 있으며, 내담자를 총체적으로 보고 믿으려는 특성을 지닌다는 선행연구와유사한 측면이다(김창대 외, 2009).

더 나아가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 후 수퍼바이지들은 내담자나 상담관계에 대해서 갖는 자기 감정이나 느낌 등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 게 되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되었 다. 특별히 내담자들에게 자기 개방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 담에서 위험을 조금은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숙련상담사들은 상담과정에서 반영적이고 평가에 비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과 피드백에 개방적인 특징을 지닌다고도 알려져 있는데(Jennings & Skovholt, 1999), 본 연구에 참여한 수퍼바이지들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과 유사한측면을 보인다. 종합해보면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은 궁극적으로수퍼바이지가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개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조금더 성숙한 상담사가 되어가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상담사라면 이렇게 느껴야만 한다거나 상담사라면 이렇게 반응해야만 한다는지식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의 감각과 감정을 충분히 활용하며 상담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성장의 한 측면으로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

3. 연구의 의의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 경험이어떤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상담관계의 개념과 요인을 그대로 옮겨 사용한 것이 아닌,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그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살펴보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상담관계에 대한 이론을 수퍼비전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수퍼비전 관계의 일부 측면만 반영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Beinart, 2004; Bernard & Goodyear, 2019)와 만약 개념적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퍼비전에서의 실제 경험이나, 인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퍼비전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제관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제까지 상담 수퍼비전 연구에서 문헌적 고찰에 머무르거나 소홀히 되어왔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 살펴봄

으로써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의 실체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상담 수퍼비전 장면에서 실제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퍼비전 실제관계에 관한 문헌에서는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가설적으로 제안해 왔다 (Watkins, 2015).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실제관계 경험의 요소들을 토대로 수퍼비전 과정 전반에서 실제관계가 수퍼비전이 시작되기 전과 수퍼비전 과정 중, 수퍼비전이 끝난 후의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실제관계 경험의 핵심에 수퍼바이지가 수퍼비전에서의 평가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넘어서는지가드러났으며, 실제관계 유지와 깊이가 더해지는 데에 수퍼바이저의 인간적 태도와 수퍼바이지의 배움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함이 밝혀졌다.더 나아가 수퍼비전이 끝난 후 실제관계 경험은 수퍼바이지들의 상담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고 성숙한 상담사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점들은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체험이 상담사의 성장이나, 수퍼비전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적 제안을 실질적으로 밝혔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과 그 영향에 대한 고찰을 촉진하여 상담 수퍼비전이나 상담사 교육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에서 의의가 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의 더 수직적이고 위계적으로 인식되는 수퍼비전(Killian, 2001; Quek & Storm 2012; Shim 2002)이 갖는 한계점들을 실제관계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퍼비전 관계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은 현재까지도 학자마다 상이한 편이며 수퍼비전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Borders & Brown, 2006; Ellis & Ladany, 1997). 전통적으로 수퍼비전 관계는 수퍼비전 작업동맹과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다가 최근 들어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한계들이 언급되면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수퍼비전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도 수퍼비전 관계를 다차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로서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제관계가 어느 정도 수퍼비전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기존의 다양한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정의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려는 시도들의 근간이 되어 수퍼비전 관계의 통합적 이해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작업동맹이나 실제관계처럼 이론적 모형이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을 질적연구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관계는 실제 경험에서부터 귀납적-연역적 방법을 통해 정립된 개념이 아닌, 상담관계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정립된 개념이다(Gelso, 2011). 따라서 이론적으로 그 개념이 갖는 정의와 속성이 존재한다. 질적연구 중 특히 현상학 연구는 본래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험적 접근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나 삶에 처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와의미를 도출할 때 유용하다(박승민, 2022).

보통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경험적으로는 존재하고 여러 개인이 그 현상에 대해서 공유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주제로 삼는다(Creswell & Poth, 2021). 그리고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며,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도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실제관계 개념에 대해, 그 속성과 그 경험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질적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연구를 시작하며 개념적정의가 이미 존재하는 실제관계에 대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연구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본 논문에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한계, 그리고 한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관한 모든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앞으로 상담학 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이나 문헌에서 도출된 개념에 대한 경험적 실체와 실제 인식

등을 살펴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본 논문의 연구 과정을 참고하여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까다로우면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살펴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자'라는 다소 넓은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실제관계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은 살펴볼 수있었으나, 수퍼비전이나 수퍼바이지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관계 경험의세부적인 측면까지는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별히 연구를 진행하며, 면담에서 실제관계를 경험했다고 밝힌 수퍼바이저와 만난 기간과 수퍼비전 진행 횟수에 따라서 실제관계 경험의 차이가 포착되었다. 즉, 실제관계가 무르익어감에 따라 체험되는 경험이다를 수 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기에는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지속한정도를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여 참여자 모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실제관계 형성과정에서 초기, 중기, 무르익은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수퍼 바이지의 경험만을 다루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연구를 설계하며 수퍼비 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주체가 수퍼바이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참여 대상을 수퍼바이지로 결정하였는데, 면담의 내용에서 수퍼바이저가 어떠 한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퍼바이지가 실제관계 경험에서 인식한 수퍼바이저의 모습들이 매우 중 요한 결과들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실 제관계 경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수퍼바이지들이 경험했던 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혹은 수퍼바이저가 독특하게 경험하는 실제관계 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둘 이상의 주체가 상호작용한다는 관계적 속성을 고려하여 수퍼바이저 혹은 수퍼바이지 한쪽 대상만이 아닌 수퍼비전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수퍼비전 연구와 실제에 더 풍부한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심층면담과 FGI를 통해 이루어진 자료수집 과정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예비 연구참여자에게 실제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오히려 체험적인 진술에 방해가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수퍼바이저와의 만남이 인상 깊었던 수퍼비전 경험'과 같이 넓은 질문부터 시작하여 실제관계 경험으로 질문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면담에서 경험까지 이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경험에 이르는 도입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FGI를 먼저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FGI는 참여자들이 짧은 시간에 주제로 선정된 경험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나누어 서로의 공통된 경험을 확인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심층면담에서 경험을 진술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FGI가 개별 면담 이후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면담 전에 먼저 FGI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심층면담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초점화된 체험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제관계는 긍정적 · 부정적 경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관계의 긍정적 경험이 강조되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와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 기대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박대해, 기영현, 2022; 오은화, 조양희, 2021), 관계 중심적인 수퍼비전을 더 만족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승희, 2004). 이러한 기대로 인해 수퍼바이지들이 실제관계 경험을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적으로 경험되는 실제관계 측면 이외의 부정적으로 경험되는 실제관계 측면들에 대해 조금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속되는 수퍼비전 과정 안에서의 긍정적 · 부정적 실제관계 경험의 변화 모습과 실제관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결렬과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실제관계 경험 중 진정성 경험이 주로 드러나고 실체성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진정성은 한 개인이 지금-여기에서 순간순간 정말 진짜인 나를 지각하고 그 상태 로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경험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실체성에 비해 수월한 측면이 있다. 반면, 실체성은 상대를 왜곡없이 인식하게 되 는 것으로, 순간순간의 진정성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전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강화된다. 전이상태를 의식 수준에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전이에서 벗어나는 과정적 경험도 의식 수준으로 인식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참여자들이 실체성 경험을 떠올리는 데는 한계 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체성의 변화 과정은 단기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의 수퍼비전 경험은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양함으로 실체성이 충분히 드러나기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장기 수퍼비전 을 받은 수퍼바이지들을 대상으로 수퍼비전 초기, 중기, 장기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 변화 경험을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실체성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실체성 경험이 잘 드러나고 포착될 수 있는 질문이나 문항 등에 대한 다 양한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활용하여 수퍼비전에 서의 실제관계 연구를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 을 활용하여 수퍼바이지의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을 살펴보고 경 험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수퍼비전에서의 실 제관계 경험을 확인하고,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하 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의 일부를 이제 막 밝혀낸 것에 불과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 한 방법론적 접근을 활용하여 수퍼비전 실제관계 연구를 확대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순화, 주영아, 조하나(2013).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31-651.
- 강지연, 유성경(2006). 수퍼바이지 수치심과 수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4), 1005-1021.
- 고미숙(2006). 체험교육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7(1), 133-162.
- 권혜영, 조은숙(2020). 국내 상담 수퍼비전 연구의 동향 이전 시기(1998년~2008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8**(2), 135-160.
- 김계현(2002).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김계현(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젼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9-53.
- 김동일, 정여주, 신윤정, 팽현지(2021). 국내 대학원 수련과정과 슈퍼비전 운영 방안. **상담학연구, 22**(5), 23-43.
- 김미옥(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 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 김민찬(2021). 게슈탈트 상담에서의 교정적 관계 경험.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2018). 상담자의 질적연구 윤리로서의 윤리적 주체-되기. **질적탐 구(4)**2, 57-95.
- 김영근(2016). 치료적 관계 안에서의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 *인간ㆍ환* 경ㆍ미래, 17, 111-142.
- 김윤옥(2007).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둔 화법 교육 연구. 교원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규(2015). **게슈탈트 심리치료 [2판]** : 창조적 삶과 성장. 서울: 학지

사.

- 김 진(2005). 철학노트. **철학과 현실**, 15-34.
- 김진숙(2006). 성찰적 수퍼비전 접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73-694.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9). 상담전공 내담자가 지각한 효과적 인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10**(1), 83-107.
- 김 철(2009). Buber와 Bollnow의 인간관과 교육관 실존적 만남으로서 의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3(3), 149-171.
- 김한미(2009). 도제식 교수-학습의 방법과 구조에 관한 질적연구 : 성악 레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련(2022). 수퍼바이저 스타일, 수퍼바이저 진정성, 수퍼비전 작업동맹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후자, 김정남(2001).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그룹 연구방법 (Focus group method) 에 대한 고찰. 계명간호과학, 5, 1-21.
- 두경희, 김계현, 김동민(2008). 상담일반: 수퍼비전 성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9**(3), 1007-1021.
- 박보람(2018). 미술치료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8(2), 119-137
- 박승민(2022). **질적연구 Point Workshop 자료집.** 서울: 숭실대학교 부부 가족상담연구소.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2012). **근거이론접근을 활용한 상 담 연구과정.** 서울:학지사.
- 박승억(2007). **후설 & 하이데거.** 파주: 김영사.
- 박영현(2022). 인간중심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와 수퍼바이저의 관계맺음과 자기개방 경험.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 장현아(2015). 상호주관성 이론과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치료자-내 담자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게슈탈트상담연구, 5(2), 1-13.
- 박진희, 유미숙(2011). 이야기게임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생활 문화에 대

- 한 내용분석: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게임. **한국심리학회지: 학 교, 8**(1), 61-78.
- 박창수(2001). 부버의 관계철학을 통해서 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김신애. (2022). 상담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실제관계(real relationship)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9**(5), 31-54.
- 방기연(2003). 상담수퍼비전. 서울: 학지사.
- 방기연(2006) 상담심리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233-254.
- 소수연, 장성숙(2011). 효과적인 수퍼비전 요소에 관한 수퍼바이저의 지 각연구. **상담학연구, 12**(3), 1051-1067.
- 손승희(2005). 수퍼비전에서 상담 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7-64.
- 손우정(2010). 마르틴 부버 '만남' 철학이 도덕과 교육에서 갖는 의의. 윤리철학교육, 12, 65-83.
- 손은정, 임영선, 유성경, 강지연(2006). 수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2.
- 손진욱 (2005). 자기심리학과 상호주관성이론에서의 치료자-환자관계. 정신분석, **16**(1), 13-27.
- 손진희(2004). 수퍼바이저 행동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수퍼비젼 요소 연구. **상담학연구**, **5**(2), 243-261.
- 안미경, 김봉환(2017). 수퍼비전에서 상담사의 비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질적탐구, 3**(2), 31-62.
- 임은숙(2019). 실존주의 수퍼비전에 참여한 상담자의 자기인식과 관계맺음 경험.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은화, 조양희(2021). 상담 수퍼비전에서의 성찰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8**, 81-99.

- 오형경, 진미경(2018). 한국판 수퍼비전 관계 척도(K-S-SRQ)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9**(2), 25-41.
- 왕은자(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권, 김계현, 김미경, 문영주, 손은정, ... & 천성문(2019). **상담 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유혜령(1997). 현대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아동 이해의 문제. **아동교육, 6**(1), 96-110.
- 유혜령(2013). 현상학적 질적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 사이에서 길 찾기.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10(1), 5-31.
- 유혜령(2014). 현상학적 글쓰기: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살아나는 공간 만들기. 교육인류학연구, 17, 1-34.
- 유혜령(2015).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논리와 방법: Max van Manen의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5**(1), 1-20.
- 유혜령(2018). **질적연구와 철학, 질적연구의 현상학적 접근**. 철학 아카데 미.
- 윤석빈(2006). 마틴 부버의 대화 원리: 인간 실존의 토대로서의 대화. **동 서철학연구, 42.**
- 윤성근, 양은주(2022). 병렬 과정의 이해와 수퍼비전에서의 활용. **인간이 해, 43**(1), 89-107.
- 유지영(2015). 한국판 실제관계 척도-내담자용(KRRI-C)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영, 이은주, 최한나(2018). 상담자,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실제관계가 상담회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상담 학연구, 19**(6), 73-92.
-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 출반부.
- 이동순, 송도선(2015). 교사 권위의 형성 요인. **교사교육연구, 54**(4), 726-739.

- 이미정(2014). 상담수련과정에서 기독교인 상담사의 자기 발달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정(2017). 내담자들이 인식한 상담에서의 실제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김창대(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 구, 40,** 231-250.
- 이아라(2013). 진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 처치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원희(2012). 상황인지와 교사교육. 교육학논총, 33(2), 51-68.
- 이승은, 정남운(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41-460.
- 이은주(2017). 작업동맹과 실제관계의 변화형태와 상담성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 안지영, 금창민(2021). 수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1983 년~ 2019 년까지. 교육치료연구, **13**(1), 185-211.
- 이종훈(2009). 후설 현상학의 이중적 얼굴은 과연 어떤모습인가?:[이념들] 제 1 권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 **현상학과 현대철 학, 42**, 1-27.
- 이홍숙, 최한나(2013).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경력 수준에 따른 수퍼비전 수행과 성과의 차이. **상담학연구**, **14**(3), 1679-1698.
- 임지혜(2019). Buber의 관계론에 기초한 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섭(1994).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 장유진(2022). 상담 수퍼비전에서의 수퍼바이지의 전환적 학습 경험. **교** 원교육, **38**, 399-427.
- 장지연(2002). 마틴 부버의 '대화적 관계의 교육'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국, 배성아, 이현주(2013). 초상화법에서 사용되는 심층면담에 관한

- 탐구: 동반자적 관계 형성과 주관적 요소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 **인류학연구, 16**(3), 1-29.
- 정윤희(2019). 노인 내담자의 상담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심(2015). 기독교 상담에서 전이와 역전이의 이해와 활용. **복음과 실 천신학, 37,** 39-67.
- 정지은, 강기수(2021).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에 나타난 몸철학 의 교육적 의의. 교육사상연구, 35(2), 73-100.
- 조용환(2004). 질적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7-72.
- 조용환(2011).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 류학연구, 14(3), 1-29.
- 조용환(2012). 교육인류학과 질적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 조영매(2017).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재난에 투입된 상담자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8**(1), 67-85.
-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2014).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부정적 경험의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41-877.
- 조화진(2014). 상담에서의 실제관계에 관한 한국 상담자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화진(2016). 상담자 실제관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7**(2), 47-66.
- 주은선, 박영현 (2017). 포커싱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의 상담에서의 실제 관계에 관한 경험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7**, 55-78.
- 주은선, 박영현 (2020). 상담에서의 실제관계 (real relationship) 에 관한 내담자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67-92.
- 주은선, 이혜경, 주은지(2007).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 모색. 한국심 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69-586.
- 지승희, 주영아, 김영혜(2014). 수퍼비전 경험과 되고 싶은 수퍼바이저 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5**(5), 1671-1693

- 진보겸, 금명자, 주은선(2019). 실제관계 (Real Relationship) 에 관한 상담 전문가의 인식과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373-401.
- 천혜숙, 유미숙(2010). 아동, 청소년상담: 놀이치료 수퍼비전에서의 작업 동맹, 치료자의 자기개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175-1189.
- 최병태(2008). 교사의 권위—지적 권위와 직위상의 권위를 중심으로. **인** 문**학연구, 35**(2), 385-410.
- 최영민(2008). 상호주관성: 정신분석 패러다임 의 변화. **정신분석, 19**(2), 125-138.
- 최지민(2014). 관계성(Relationship)의 도덕교육적 의미 연구: 부버와 나당 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 김영혜(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 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료, 18(4), 713-729.
- 최한나(2007).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련자의 인식 차원.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한나(2010). 상담관계의 두 가지 측면: 작업동맹과 실제관계. **인간이해, 31**(2), 85-101.
- 최한나(2011). 한국판 실제관계 척도-상담자용(K-RRI-T)의 타당화를 위한 예비연구. **상담학연구, 12**(1), 143-158.
- 최한나, 김창대(2008).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한규석, 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 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허재경, 김지현(2009). 성찰 중심 수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의 변화과 정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10**(2), 719-740.
- 홍영식, 한재희(2012). 상담 수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387-1406.

- 홍지선(2018).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 발현과정.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지영(2005). 수퍼바이저의 스타일이 수퍼비전 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asheim, L. (2011). *Practical clinical supervision for counselors: An experiential guid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Ain, S. & Gelso, C. J. (2008). Chipping away at the blank screen: Self-disclosure, the real relationship, and therapy outcome.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North American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New Haven, CT.
- Allen, D. J., Szollos, S. J., & Williams, B. E. (1986). Doctorial students' comparative evaluations of best and worst psychotherapy supervi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7*, 91–99.
- Alonso, A. (2000). On being skilled and deskilled as a psychotherapy supervisor.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mathfrak{G}(1)$, 55-61.
- An, H. Y., Goodyear, R. K., Seo, Y. S., Garrison, Y., Baek, K. Y., & Cho, H. J. (2020). Supervisor style as a predictor of counseling supervision relationship quality and supervisee satisfaction: perceptions of US and South Korean supervise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1*, 487-504.
- Armeniox, L. F. (2000). Level of supervisee disclosure in the clinical supervision of counselors-in-training.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Auxier, C. R., Hughes, F. R., & Kline, W. B. (2003). Identity development in counselors-in-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1), 25–38.
- Bahrick, A. S. (1989). Role induction for counselor trainees: Effects on

-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The Ohio State University.
- Baker, D. B., & Benjamin Jr, L. T. (2000). The affirmation of the scientist-practitioner: A look back at Boulder. *American Psychologist*, 55(2), 24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
- Bang, K., & Goodyear, R. K. (2014). South Korean supervisees' experience of and response to negative supervision event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7(4), 353-378.
- Bang, K., & Park, J. (2009). Korean supervisors' experiences in clinical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1042–1075.
- Barnett, J. E., Erickson Cornish, J. A., Goodyear, R. K., & Lichtenberg, J. W. (2007). Commentaries on the ethical and effective practice of clinical supervi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3), 268a.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3).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3rd. ed). Boston, MA: Allyn & Bacon.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상담 수퍼비전의 기초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유영권, 방기연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 출판년도 2004).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Bernard, J. M. (2014). *Tracing the development of clinical supervision.*In Supervision in Counseling (pp. 11-30). Routledge.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1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6th ed.).* Pearson Education Inc.
- Beinart, H. (2004). Models of supervision and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nd their evidence base. *Supervision and Clinical Psychology: Theory, Practice and Perspectives*, 36–50.

- Borders, L. D., & Brown, L. L. (2006). *The new handbook of counseling supervision*. Routledge.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 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arch & Practice*, 16(3), 252–260.
- Bordin. E. S. (1983). A working alliance based model of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1), 35-41.
- Buber, M. (1958). *I and Thou* (2nd ed., R. G. Smith, Trans.). T&T Clark Ltd.: Edinburgh. (Originally published in 1923).
- Buber. M(2007). 인간의 문제[(Das)problem des menschen](윤석빈 역). 서울: 도서출판 길. (원 출판년도 1943).
- Cashwell, T. H., & Dooley, K. (2001). The impact of supervision on counselor self-efficacy. *The Clinical Supervisor*, 20(1), 39-47.
- Carey, J. C., Williams, K. S., & Wells, M. (1988). Relationships between dimensions of supervisors' influence and counselor trainees' performanc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 Carifio, M. S., & Hess, A. K. (1987). Who is the ideal supervisor? *Professional Psychology:Research and Practice, 18,* 244–250.
- Cliffe, T., Beinart, H., & Cooper, M.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questionnair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3*(1), 77-86.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 Cordova, J., & Kohlenberg, R. (1994). Acceptance and thetherapeutic relationship. In S. C. Hayes, N. S. Jacobson, V. M. Follette. & M. J. Dougher (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pp.125–140). Reno. NV: Context Press.
- Corey, G., Corey, M., & Callanan, P. (2003).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tis (6th ed.).* Belmont, CA: Thornson Brooks.

- Couch, A. S. (1999). Therapeutic functions of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analysis.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54*, 130–168.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 Poth, C. N. (2021).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 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조홍식 외 역) 서울: 학지사. (원 출판년도 2018).
- DeRoma, V. M., Hickey, D. A., & Stanek, K. M. (2007). Methods of Supervision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Training: A Brief Report.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3), 415–422.
- Doehrman, M. J. G. (1976). Parallel processes in supervision and psychotherapy.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40, 9-104.
- Efstation, J. F., Patton, M. J., & Kardash, C. M. (1990). Measuring the working alliance in counselor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22~329.
- Ekstein, R., & Wallerstein, R. S. (1958).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llis, M. V. (1991). Critical incidents in clinical supervision and in supervisor supervision: Assessing supervisory iss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42–349.
- Ellis, M. V., & Ladany, N. (1997). *Inferences concerning supervisees and clients in clinical supervision: An integrative review.* In C. E. Watkins, Jr.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pp. 447–507). John Wiley & Sons, Inc..
- Eugster, S. L., & Wampold, B. E. (1996). Systematic effects of participant role on evaluation of the psychotherapy session.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1020-1028.
- Fellmann, F. (2015).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Phänomenologie zur Einführung).
- Frank, K. A. (2005). Toward conceptualization the personal relationship in therapeutic action: Beyond the "real" relationship. *Psychonalytic Perspectives.* 3(1), 15–56.
- Frawley-O'Dea, M. G., & Sarnat, J. E. (2001).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 contemporary psychodynamic approach.* Guilford Press.
- Freud, A. (1954). The widening scope for indications for psychoanalysis [Discu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 607–620.
- Freud, S. (1913).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In J. Strachey* (Ed. and Trans.),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12, pp. 97–108).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57). Future prospects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In J. Strachey(Ed. & Trans.),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11, pp. 139–151). London, England: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0)
- Freud, S. (1958).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XII.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2016). 정신분석 강의[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임홍빈 외 역) 서울: 열린책들. (원 출판년도 1964).
- Friedlander, M. L., & Ward, L. G.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ory style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41-557.
- Fuertes, J. N., Mislowack, A., Brown, S., Gur-Arie, S., Wilkinson, S., &

- Gelso, C. J. (2007). Correlates of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A study of dyads. *Psychotherapy Research*, *17*, 423–430.
- Gait, S., & Halewood, A. (2019). Developing countertransference awareness as a therapist in training: The role of containing contexts. Psychodynamic Practice: Individuals, *Groups and Organisations*, *25*(3), 256–272.
- Gadamer, H. G. (2012). 진리와 방법[Truth and method.] (임홍배 역). 파주: 문학동네. (원 출판년도 1960)
- Gazzola, N., & Teiault, A. (2007). Relational themes in counseling supervision: Broadening and narrowing processe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41, 228–243.
- Gelso, C. J. (2002). Real relationship: The "something mor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2*, 35–41.
- Gelso, C. J. (2004). *A theory of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Rome, Italy.
- Gelso, C. J. (2011).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The hidden oundation of chang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elso, C. J., & Hayes, J. (1998).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Gelso, C. J., & Hayes, J. A. (2007). *Countertransference and the therapist's inner experience: Perils and possibiliti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elso, C. J., Hill, C. E., Mohr, J. J., Rochlen, A. B., & Zack, J. (1999).

 Describing the face of transference: Psychodynamic therapists' recollections about transference in cases of successful long-term

-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257-267.
- Gelso, C. J., Kelley, F., Fuertes, J., Marmarosh, C., Holmes, S., & Costa, C. (2005). Measuring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Initial validation of the therapist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52*, 640-649.
- Gelso, C. J., Kivlighan, D., Busa-Knepp, J., Spiegel, E. B., Ain, S., Hummel, A. M. Ma, Y. E., Markin, R. D. (2012). The unfolding of the real relationship and the outcome od berie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 495–506.
- Gelso, C. J., Kivlighan Jr, D. M., & Markin, R. D. (2018). The real relationship and its role in psychotherapy outcome: A meta-analysis. *Psychotherapy*, *55*(4), 434.
- Gelso, C. J., Latts, M. G., Gomez, M. J., & Fassinger, R. E. (2002).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7), 861–867.
- Gelso, C. J. & Samstag, L. W. (2008). *A tripartite model of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S. Brown & R.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 267–283). New York: Wiley.
- Gilbert, M., & Evans, K. (2000). *Psychotherapy supervision*. McGraw-Hill Education (UK).
- Gibson, D. M., Dollarhide, C. T., & Moss, J. M. (2010).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new counselo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0(1), 21–38.
- Giorgi, A.(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Duquesne University Press.* Pittsburgh. PA.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외 역). 서울: 현문사. (원 출판 년도 1985).

- Giorgi, A. (2017). A response to the attempted critique of the scientific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48(1), 83–144.
- Giorgi, A., & Giorgi, B. (2003). Phenomenology. Sage Publications, Inc.
- Glesne, C. (2008). Dialogue with Egon. Qualitative *Inquiry*, 14(8), 1358–1359.
- Goetz, J. P., & LeCompte, M. D.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Gonsalvez, C. J., Hamid, G., Savage, N. M., & Livni, D. (2017). The supervision evaluation and supervisory competence scale: Psychometric valid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52*(2), 94–103.
- Goodyear, R. K., & Bernard, J. M. (1998). Clinical supervision: Lessons from the literatur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8*(1), 6-22.
- Gordan, K., & Smith, S. T. (1996). *Psychotherapy supervision in education, clinical practice, and institutions.* Jason Aronson.
- Grant, J. & Schofield, M. J. (2012). Managing difficulties in supervision: supervisors'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528-541.
- Gray, L. A., Ladany, N., Walker, J. A., & Ancis, J. R. (2001). Psychotherapy trainees' experience of counterproductive events in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71.
- Greenberg, L. S. (2010). *Emotion-focused 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eenson, R.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Vol. 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eenson, R. R. (2018).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Volume I. Routledge.
- Guba, E. G. & Lincoln, Y. S.(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 Jossey Bass.
- Gysbers, N. X., & Johnston, J. A. (1965). Expectation of a practicum supervisor's rol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 68-74.
- Hayes, J. A., Gelso, C. J., & Hummel, A. M. (2011).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Psychotherapy*, 48(1), 88–97.
- Haynes, R., Corey, G., & Moulton, P. (2006). 상담 및 조력전문가를 위한 수퍼비전의 실제[Clinical supervision in the helping professions: A practical guide] (김창대 외 번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 출판년 도 2003).
- Heppner, P. P., & Handley, P. G. (1981). A study of the interpersonal influence process in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437.
- Heppener, P. P., & Roehlke, H. J. (1984). Differences among supervisees at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Implications for a developmental model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76–90.
- Hess, S. A. (1999). Intern's critical incidents of nondisclosure and reluctant disclosure in supervision: A qualitative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Hogan, R. A. (1964). Issue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Holloway, E.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Sage.
- Holloway, E. L., Freund, R. D., Gardner, S. L., Nelson, M. L., & Walker, B. R. (1989). Relation of power and involvement to theoretical orientation in supervision: An analysis of discour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1), 88.
- Holloway, E. L., & Neufeldt, S. A. (1995). Supervision: its contributions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2), 207.

- Horvath, A. O. (2009). How real is the "real relationship"? *Psychotherapy Research.* 19(3), 273–277.
- Horvath, A. O., Del Re, A., Fluckiger, C., & Symonds, D. B. (2011).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48*(1), 9–16.
- Horvath, A. O., & Greenberg, L. S.(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A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Hutt, C. H., Scott, J., & King, M. (1983).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upervisees'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20*(1), 118.
- Inman, A. G., Schlosser, L. Z., Ladany, N., Howard, E. E., Boyd, D. L., Altman, A. N., & Stein, E. P. (2011). Advisee nondisclosures in doctoral-level advising relationship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5(3), 149.
-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y, 46*(1), 3~11.
- Johnson, A. (2002). So···?: Pragmatic implications of so-prefaced questions in formal police interviews. *Language in the legal process*, 91–110.
- Kelly, F. A., Gelso, C. J., Fuertes, J. N., & Marmarosh, C. (2010). The real relationship inventory: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investigation of the client form.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7*(4), 540–553.
- Killian, K. D. (2001). Differences making a difference: Cross-cultural interactions in supervisory relationship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2*, 61–103.
- Knight, Z. G. (2014). *Some new thoughts about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analytic supervision. Psychoatic theory:* Perspectives, techniques and social implications, (pp. 207–224). New York:

- Nova Science Publishers.
- Knox, S., Hess, S. A., Peterson, D. A., & Hill, C. E. (1997). A qualitative analysis of client perceptions of the effects of helpful therapist self-disclosure in long-term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3), 274–283.
- Kugler, P. (Ed.). (1995). Jungian perspectives on clinical supervision.

 Daimon.
- Ladany, N., Ellis, M. V., & Freidlander, M. L. (1999).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traine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 447-455.
- Ladany, N. & Bradley, N. J., (2013). *Counselor supervision (4th ed)*. Routledge.
- Ladany, N., Mori, Y., & Mehr, K. E. (2013). Effective and ineffective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1), 28-47.
- Lane, R. C., & Hull, J. W. (1990). The good hour in supervision. Psychoanalytic approaches to supervision, 43–57.
- Lehrman-Waterman, D., & Ladany,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valuation Process Within Supervision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2), 168.
- LoCoco, G., Prestano, C., Gullo, S., & Gelso, C. J. (2009). *Relation of the real relationship and the working alliance to symptom change in brief psychotherap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LoCoco, G., Gullo, S., Prestano, C., & Gelso, C. J. (2011). Relation of the real relationship and the working alliance to the outcome of brie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48(4), 359.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Marmarosh, C. L., Gelso, C. J., Markin, R. D., Majors, R., Mallery, C., &

- Choi., J. (2009).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o adult attachments, working alliance, transference, and therapy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3), 337–350.
- Massey, O. T. (2011). A proposed model for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focus groups in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4*, 21–28.
- Menaker, E. (1942). The masochistic factor in the psychoanalytic situation. *Psychoanalytic Quarterly*, 11, 171–186.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Dispositvo de entrada. *Cognitive Science*, 4(2).
- Merleau-Ponty(2013).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 (류의 근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 출판년도 1945). London: Routledge.
- Milne, D., & Oliver, V. (2000). Flexible formats of clinical supervusion: Descriptio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9(3), 291–304.
- Mitchell, S. A. (1988). *Relational concepts in psychoanalysis: An intergr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gan, D. (2007).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역). 서울: 군 자. (원 출판년도 1997).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London: Sage Publication.
- Mueller, W. J., & Kell, B. L. (1972). *Coping with conflict: Supervising counselors and psychotherapist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Nelson, M. L., & Friedlander, M. L. (2001). A close look at conflictual supervisory relationships: The trainee's perspective.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8(4), 384.
- Ogden, TH. (2004). The analytic third: Implications for psychoanalytic theory and technique. *Psychoanal Q: 73*, 167–195.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3.
- Palomo, M., Beinart, H., & Cooper, M. J.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questionnaire (SRQ) in UK trainee clinical psychologis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2), 131–149.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atton, M. J., & Kivlighan Jr, D. M. (1997). Relevance of the supervisory alliance to the counseling alliance and to treatment adherence in counselor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108.
- Pedgett, D. K.(2005).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유태균 역) 경기: 나남. (원 출판년도 1998).
- Quek, K. M. T., & Storm, C. L. (2012). Chinese values in supervisory discourse: Implications for culturally sensitive practic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4,* 44–56.
- Ramos-Sánchez, L., Esnil, E., Goodwin, A., Riggs, S., Touster, L. O., Wright, L. K., ... & Rodolfa, E. (2002). Negative supervisory events: Effects on supervision and supervisory alli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2), 197.
- Reber, A. S. (1967). Implicit learning of artificial grammar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6*(6), 855–863.
- Renik, O. (1996). The perils of neutrality. *Psychoanal Quar, 65*, 495-517.
- Rodenhauser, P. (1996). Psychiatrists as treatment team leaders: Pitfalls and rewards. *Psychiatric Quarterly*, *67*, 11–31.

- Ronnestad, M. H., & Skovholt, T. M. (1993). Supervision of beginning and advanced graduate student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4), 396-405.
- Rogers, C. R. (1957b).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Houghton Mifflin Harcourt.
- Rogers, C. (1972). The process of the basic encounter group.
- Rogers, C. R. (1977). A way of being. Houghton Mifflin Harcourt.
- Rogers, C. R., & Freiberg, H. J. (2011). 학습의 자유: 자기주도적 인간육성의 길. [Freedom to Learn]. (연문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 출판년도 1994).
- Sant, M., & Milton, M. (2015). Trainee practitioners' experiences of the psychodynamic supervisory relationship and supervision: A thematic analysis. *The clinical supervisor*, *34*(2), 204–231.
- Schon D.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Basic Books*, New York.
- Searles, H. F. (1955). The informational value of the supervisor's emotional experience. *Psychiatry*, 18, 135-146.
- Seidman, I. (2009).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3rd] (박혜준 외 역). 서울: 학지사. (원 출판년도 2005).
- Sexton, T. L., & Whiston, S. C. (1994).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An empirical review,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1), 6-78.
- Shim, S. S. (2002). Cultural landscapes of pastoral counseling in Asia:

- The case of Korea with a supervisory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5(1-2), 77-97.
- Sigaut, F. (1993). Learning, teaching, and apprenticeship. *New Literary History*, 24(1), 105-114.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2003). Struggles of the Novice Counselor and Therapis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45–58.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505–515.
- Spiegelberg, E. (Ed.). (2012).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A historical introduction* (Vol. 5).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tern, D. (1985).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Stolorow, R., Atwood, G. & Brandschaft. B. (1994). *The intersubjective perspective*. Northvale. Jason Aronson INC.
- Stone, L. (1954). The widening scope of indications for psycho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 567–594.
- Swanson, J. L., & O'Saben, C. L. (1993). Difference in supervisory needs and expectation by trainee experience, cognitive style, and program membership.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4), 457-464.
- Vaštakė, M., Skruibis, P., & Kočiūnas, R. (2021). Changes in reflexivity during existential supervision. *The Clinical Supervisor*, 40(2), 263–281.
- Van Kaam, A. L. (1966). Religion and personality.
- Van Manen,M.(1994). 체험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외 역) 서울:동녘. (원 출

- 판년도 1990).
- Wallin, J.(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New York, NY:Guilford Press.
- Watkins Jr, C. E. (1995). Psychotherapy supervision in the 1990s: Some observations and ref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9(4), 568–581.
- Watkins Jr, C. E. (2011).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5(2), 99-116.
- Watkins Jr, C. E. (2012). Moments of real relationship in psychoanalytic supervis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72(3), 251–268.
- Watkins Jr, C. E. (2015). The real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 trans-theoretical common fa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therapy, 19(3), 20–26.
- Westefeld, J. S. (2009). Supervision of psychotherapy: Models, issues, and recommend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π 2), 296-316.
- Whitman, S. M., Ryan, B., & Rubenstein, D. F. (2001). Psychotherapy supervisor training: Differences between psychiatry and other mental health disciplines. *Academic Psychiatry*, *25*(3), 156–161.
- Worthen, V., & McNeill, B. W. (1996).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good supervision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25.
- Yontef, G. (2008). 알아차림, 대화 그리고 과정[Awareness, dialogue & process]. (김정규, 김영주, 심정아 역). 서울: 학지사. (원 출판년도 1993)
- Zetzel, E. (1956). Current concepts of 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7, 369–375.

부 록

〈부록]	1>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170
〈부록 2	2>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176
〈부록 3	3>	면담질문지	177

〈부록 1〉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질 적연구

연구 책임자명: 박현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입니다. 귀하는 만 18세 이상의 상담수련생이자 상담관련 전공에서 석사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최근 2년 이내에 수퍼비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책임 연구원(박현정,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만 18세 이상의 상담수련생으로 최근 2년내에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총 16명의 상담수련생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 1) 귀하는 연구원과 총 3회에 걸친 면담에 참여할 것입니다. 1차 면담은 약 1시간 ~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면담은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녹음됩니다.
- 2) 1차 면담이 끝난 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면담이 필요한 경우, 2 차, 3차 면담이 진행됩니다. 2차, 3차 면담은 약 30분~1시간 정도 걸쳐 진행되며, 면담은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녹음됩니다.
- 3) 면담 내용에 대한 해석 검토 : 일부 참여자는 연구원이 해석한 본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이메일을 통해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A4용지 1장 분량 / 약 10분 소요). 이 과정은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요청에 응하 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사례의 지급없이 진행되며, 이 때 각 참여자 는 본인의 인터뷰 내용에 한하여 해석을 검토할 뿐 타인이 진술한 내용 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22년 11월 30일 이전에 총 3번의 면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1차 면담은 약 1시간 ~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며, 2차, 3차 면담은 약 30분~1시간 가량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폐기를 원할 경우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단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의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간혹 수퍼비전에서의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 상기되면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 어떠한 불이익 없이 도중에 연구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 연구원에게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경험에 대해 재정리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수퍼비전에서의 실제관계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기여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박현정(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령, 성별, 현재소속기관, 학력, 상담경력, 수퍼비전 경험, 소지한 자격등,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면담녹음파일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책임 연구원인 박현정과 공동연구자인서울대학교 김창대(지도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암호화 된 외장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개인식별정보(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고, 계좌번호)는 참여자 모집과 면담진행 및 사례비 지급에사용될 것이며,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면담 1회 참여마다 5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1차 면담은 약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므로, 면담이 30분~1시간 정도 진행되고 면담 중단 의사를 밝히면 사례비의 일부(25,000원)가 지급되며, 30분 미만으로 면담이 진행되고 면담 중단 의사를 밝히면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2차, 3차 면담의 경우에도 각각 면담에 대해서 5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단, 2차, 3차 면담은 약 30분~1시간 정도 진행될 수 있음으로 2, 3차 면담은 30분~1시간 진행되어도 5만원의 사례비가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2차, 3차 면담에서 30분 미만으로 면담이 진행되고 면담 중단 의사를 밝히면 사례비의 일부(25,000원)가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u>박 현 정</u> 전화번호: <u>010-0000-0000</u>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실제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연구 책임자명 : 박현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돗의한 □ 돗의하지 않은 □

3 TL	0 1 1 1 20 1 1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고급한 용기자를 고전하였습니다.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u>날짜 (년/월/일)</u>

〈무독 2〉인구동계약적 실문시
※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이, 성별:
2. 소속기관:
3. 학력:
4. 상담 관련 자격증:
5. 현재 근무지:
5. 상담경력:
6. 선호하는 상담이론:
※ 다음은 귀하가 받았던 상담 수퍼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정보를 기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이제까지 받은 수퍼비전 횟수:
2. 이제까지 만난 수퍼바이저의 수:
3 식제과계 결허을 하 수퍼바이저와 마나 기가 및 수퍼비저 회수

4. 실제관계 경험을 한 수퍼바이저가 선호하는 상담이론:

〈부록 3〉 면담 질문지

1. [도입]

- 수퍼바이저와의 만남이 인상깊었던 수퍼비전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 O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수퍼비전에서의 경험은 무엇이 었습니까?

2. [경험의 맥락]

O 수퍼바이저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연결감을 느끼도록 한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3. [경험]

- O 어떠한 점들이 수퍼바이저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연결감이 있다고 느끼게 하였습니까?
- 수퍼바이저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연결감을 어떻게 경험 하였습까?

4. [영향]

- O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O 수퍼바이저와 실제관계 경험이 수퍼바이저에 대한 인식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O 수퍼바이저와 실제관계 경험은 당신의 상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 O 수퍼바이저와 실제관계 경험을 한 후 상담사로서의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 었습니까?

5. [의미]

- O 수퍼비전에서 실제관계 경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O 수퍼바이저와의 실제관계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 [마무리]

O 이 외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of Supervisee in Supervision

Park, Hyun Ju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ntent and meaning of the supervisee's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in counseling supervision, within the context of supervisory relationships, examining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supervisees'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in counseling supervision. The research question for this purpose was: What are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supervisee in counseling supervision and what is their meaning?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chosen. and specifically, Giorgi's (1985)descriptive wa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to deeply understand and clarify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participants'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Participants were sele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to select participants who could honestly and specifically express their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in counseling supervision. The selected participants were 9 supervisees who had experienced counseling supervision at least 10 times within the past two years and had a graduate degree in counse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022 to November 2022, and semi-structured open-ende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e to three times with each participant. After the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mpleted, additional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6 participants who expressed a desire to participate.

Th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nalytical procedure of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302 units of meaning were derived, and they were categorized into 28 sub-constituents and 7 core constituents. When presenting the research results, focusing on the content of the derived core constitu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constituents, the following can be shown:

⟨Interest and curiosity about each other⟩ is a context that enables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the supervision process. It refers to the interest and curiosity that the supervisor and the supervisee have for each other during the supervision process. The supervisor shows continuous interest in the daily life and life of the supervisee, and the supervisee feels that such a supervisor is gradually understanding him or her. As the supervision progresses, the supervisees also experience a desire to learn and imitate what the supervisor is curious about, wanting to be like them.

⟨Supervisor's human consideration and respect⟩ is the consistent display

of humane attitude shown by the supervisor in the context of promoting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the supervision process. The supervisee feels valued as a person as when the supervisor carefully and gently guiding them without causing any harm, and sometimes receiving a sense of protection and care.

⟨Fears of evaluation that gradually fade⟩ is one of the key experiences of real relationship in the supervision process. The supervisee gradually moves away from the evaluative gaze as they realize that the supervisor believes in them, recognizes their hard work in counseling, and genuinely tries to soothe their nervousness and help them. Supervisees increasingly do not see supervisors as only evaluators and stop perceiving themselves as objects of evaluation.

⟨Courageously revealing myself to learn⟩ is another key experience of real relationship in the supervision process. The supervisee courage to reveal their own shortcomings in order to learn better. Their willingness to learn promotes encourage that they can reveal themselves despite feeling embarrassed.

⟨Seeing myself as I am⟩ refers to the process where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helps the supervisee to look at themselves in the
counseling process. The supervisee learns how to utilize themselves in the
counseling process. As they observe the supervisor respecting their
characteristics, the supervisee gradually gains trust in their emotions and
feelings experienced in counseling.

⟨Transition of the real relationship into the counseling relationship⟩ is a process of sharing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with the client and working through that experience together. The supervisee feels more courageous to face the client with whom he or she has had difficulties after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Furthermore, supervisee wants to have the same experience with clients that he or she had with

supervisors.

⟨Expanding as a counselor⟩ is a change in the supervisee's counseling after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Supervisees are able to try new things in their counseling, and they are able to utilize themselves in counseling rather than being immersed in the "act" of counseling itself. Based on the comprehensive findings, it can be asserted that the supervisee's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with the supervisor emerge from a sincere exchange of guidance from the supervisor and the supervisee's courageous aspiration to learn. Within this process, the most essential and relevant learning takes place. Furthermore, the supervisee proceeds to integrate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s with the supervisor into the counseling setting, replicating them with clients.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and deeply explores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of supervisee,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supervision research. It also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forming and maintaining real relationships in counseling supervision scenes, thereby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supervisory relationships.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 blueprint for concrete consideration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forming real relationships in supervision scenes, which is expected to be useful in future supervisor training. Real relationships in counseling are known to be a strong therapeutic factor(Hayes, 1998), but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how to educate and teach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real relationships in counseling supervisor education or supervi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al relationship experience in supervision promotes real relationships with clients in counseling, providing a reflection on how to teach real relationship in supervision.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unselor

education through supervision.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unselor education.

keywords: supervision, supervisee, supervision relationship,

real relationship, phenomenological study

Student Number: 2018-30124